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무상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6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9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손 제 석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치가 참 좋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원형과 현대적 발전을 각각 상징하는 경주와 포항을 대학의 입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이같이 수승한 우리 대학 위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교육부로부터 위덕대학교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91년 11월부터 개교한 '96년 3월까지의 설립과정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근거없는 소문은 나를 무척 괴롭혔다.

급기야 '93년 8월 26일 한 일간지는 사회면에 큼직하게 우리 대학이 들어선 현 위치 25만평의 부지 입지승인이 전직 장관에 대한 특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하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인용하여 지역언론 역시 확인도 않고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개혁바람이 거셌던 사회분위기여서 대학 개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걱정이 앞섰으며,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비애감이 밀려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육지진

"남의 허물은 나의 그림자"

언을 염송했고 이와 함께 현실을 진리의 눈으로 파악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결국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 신문의 무명은 나의 눈 또한 밝은가를 돌이켜 보라는 법문이 아닌가. 대학 설립작업과 관련하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실상과 같이 자심을 아는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으로 추진하라는 〈대일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자기 참회가 일어나니 분노와 비애감은 바람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더욱 여실지자심의 진리에 입각하여 대학설립이라는 현실 과제를 다루어 나갔고, 마침내 모든 이의 찬탄 속에 이 땅의 두번째 불교종립 종합대학을 장엄하게 개교할 수 있었다.

여실지자심의 가르침에 따라 상대의 허물 보지 않고 내 허물을 찾을때, 그의 저 허물은 바로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받아 들여진다. 이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밀엄정토(密嚴淨土)가 될 것이다. 〈위덕대학교 총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교계 환경운동 실천 위주로

"벌이 꿀 채집하듯 자연 대하자"

조계종 '푸른산 지킴이 운동' 추진
재생용품 쓰기 · 청소하기 '솔선'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법구경〉의 가르침이다.

교계의 환경운동이 실천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환경운동에도 꿀벌의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91년 발족된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을 중심으로 환경의식을 다져온 교계 환경시민단체들은 사찰주변 환경정화, 유기농산물 및 환경물품 사용 · 제작, 생태기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작지만 실제적인 환경보호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교계의 환경보호운동은 사찰주변의 등산로나 계곡을 청소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모임 맑고향기롭게모임 부산불교환경운동연합 녹색환경감시단과 전국 15개 불교산악회 등이 사찰주변을 주 · 월간별로 청소하면서 '사찰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계종도 5월22일 사찰환경보존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범종교차원의 (가칭)'푸른산지킴이운동'을 기획, 6월5일 세계환경총회에서 '서울의제 21'로 공식발표하기로 하는등 종단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물품을 제작 · 사용하거나 유기농산물을 공동구입하는 알뜰환경운동도 활발하다. 경불련환경모임, 맑고향기롭게모임은 폐식용유를 수거해 비누를 제작, 염가나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석왕사생활협동조합(이사장 영담)은 비누 · 노트 · 화장지 등 각종 재생용품과 유기농산물을 공동구입해 판매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맑고향기롭게모임 회원들과 동대부고 학생 500여명은 지난 해 3월부터 매달 셋째주 일요일 서울 관악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땅속에 묻힌 비닐 · 캔 · 페트병 등을 캐내고 있다. 매번 캐내는 쓰레기는 20 / 짜리 대형봉지 300여개 분량.

청소년 환경공모전

7일 청정국토운동본부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환경의날을 기념, 7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회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환경강연회(강사 · 권숙표 연세대 명예교수)를 개최한다.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연사랑의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당일 조계사에 전시되고 단행본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온누리가 깨끗해져요〉란 제목으로 출간된다.

한편 청정국토본부는 내달 초에 기관지 〈공해없는 세상〉의 원고를 모아 단행본 〈불교와 환경〉을 출판할 예정.

대북지원 지정기탁 '불심 환영'

불교추진위, 조불련 연대 추진…불자 성금 잇따라

남북적십자 대표들이 5월26일 대북 식량지원 규모와 지정기탁제 등을 골자로한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불교계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정기탁제' 실시는 남한의 기탁자가 북한의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지정해 지원물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교계 관계자들은 남북불교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유지원씨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연대, 북쪽의 불자들에게 식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의 식량지원에 소외됐던 함경도 지역 등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녘동포돕기 성금에 불자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의장 원돈)은 해인사 등 7개 강원에서 전개한 1차분 성금 1천8백여만원을 5월27일 불교추진위에 기탁했다.

또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오희창 사무총장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기간에 실시한 탁발행사 수익금 2백여만원을 5월26일 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의상스님이 창건한 부석사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입니다. 국보와 보물이 즐비한 부석사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무량수전(국보 18호)입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늠름하면서도 가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번씩 보고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멀리 소백산의 연봉(連峯)을 바라보면 우리 산하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을 절절히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시원한 계곡과 장대한 희방폭포로 유명한 희방사도 참배합니다.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6월 테마여행 - 부석사 · 희방사

■ 참가 안내

◇출 발: 6월 29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안 내: 이강근 교수(경주대)
◇회 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후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복지재단 간병봉사단 서울시 우수단체 선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간병봉사단이 제3회 서울시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우수자원봉사단체로 선정돼 5월 24일 보라매공원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92년 창립돼 보훈병원 국립재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주1회 실시했으며 현재는 중앙병원 불교병원등 14곳에서 150여명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엄사탑 발견 불상주조틀 공개

95년 8월 구례 화엄사 서5층석탑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청동제 불상주조틀(가로 7.1㎝, 세로8.1㎝)과 다라니경이 1천2백년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가 보존처리를 거쳐 공개한 총 46점의 유물 가운데, 진흙등에 찍어 불상을 조성하는 불상주조틀은 처음 공개된 것이다.

운문사 비구니 승가대학원 인가

조계종 교육회의

비구니 전문강사 양성교육기관인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이 설립된다. 또 학년정원 7인이상, 총학인정원 30인이상 80인이하의 승가령도 확정 발표됐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교육원은 5월27일 제27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비구니 전통강원인 운문사 승가대학에 승가대학원 설립을 인가했다. 운문승가대학원은 수의과정(2년)과 전문과정(3년)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또 기본교육 이수자격을 현 15세이상 50세이하에서 18세이상 40세이하로 조정했다.

세계유산이냐 골프장이냐 9면 | 판소리로 만나는 '사명대사' 13면 | 백양사-장성군 '마찰심화' 19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형태 / 규격(폭×높이)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 × 26.5㎝	230,000원
16㎝ × 40.5㎝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



사 설

불교와 서울환경선언

6월5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지구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인류문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ethics)'을 선포한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지구환경보전의 노력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과 공동보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이다. 이를 위해 강현욱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이 지금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제5차 고위급 회담에 참석 중인 정부 대표들과 유엔 환경계획(UNEP) 등 각국 환경대표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수도에서 환경윤리선언을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선포되는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은 전문과 실천원칙, 그리고 실천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2년의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선언과 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범지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와 생명경시는 여전히 가속되고 있다. 서울 선언은 인류가 지구상의 여러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자연을 정복과 보존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탐욕을 충족시키려 하는 한, 지구 환경의 피폐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 한다.

서울 선언을 계기로 불교계도 그동안 소홀했던 환경운동에 새로운 활력과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그 철학적 인식과 실천에서 근본적으로 환경론적이었음에도 정작 구체적인 환경운동은 주로 교육이나 기초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뿐,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에 소중한 유산인 산림과 가람이 개발과 편의의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파괴돼 왔다. 또한 사찰이 신도편의를 위해 사찰 입구까지 시멘트로 길을 낸다든가 이런 저런 불사로 산림과 경내를 파헤치는 일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절집부터 우선 개발과 편의, 쾌적성이라는 잘못된 적응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도량의 본분을 지켜나가야 한다.

불교의 환경보존노력은 이같은 자체 점검에서 시작된다. 이제 절은 수행자들의 수도도량으로서만이 아니라 속세에 지치고 시멘트 냄새에 찌들은 무량 중생들의 회귀를 위한 정신의 쉼터요, 감로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 도량 자체는 無言의 설법을 전신으로 토하고 있는 공간이다. 최근 이찌죠라는 일본학자는 리조트가 궁극적으로 불교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언제나 돌아가 쉴 곳이라는 윤회적 본성의 반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내부적 노력이 외부적으로 확산될 때 불교 환경운동이 설득력과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불교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하에 다양한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인골프장문제를 비롯 시화호니, 대청호니, 산업쓰레기문제, 민통선의 개발문제 등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들에 대해 결집된 목소리를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자면 우선 조직과 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도 불교가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환경과 불교학'의 주제하에 환경을 재인식하는 교리내용을 찾아 경전을 재해석하는 한편, 그 성과를 널리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대중의 계몽과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본격적인 감시활동도 벌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존의 전문 환경단체는 물론, 다른 종교단체들과도 동체대비의 정신 아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열린마당

인각사지 수몰위기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인각사(642년 의상대사 창건)지(사적374호)가 댐 건설 계획으로 수몰위기에 처했다(본지 104호 참조). 건설교통부가 영천 의성 경산 등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에 추진중인 군위댐이 인각사지로부터 불과 5백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각사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문화유산의 해를 기해 더욱 비등한 가운데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편집자 주〉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수량 3천1백만t(길이 138m 높이 39.5m)의 군위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인각사지 전경. 보각국사비와 부도탑(보물 428호)이 있다.

"삼국유사 저술성지 살려야"

대원 〈인각사 주지〉

일연스님이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불멸의 역사서를 집필한 성지를 수몰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중대한 역사의 일부를 수몰시키는 행위이다. 일연스님이 누구이신가. 더 늦기전에 종단에서도 나서야 한다. 주민은 물론 군청과 군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중지를 합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역사의 멸실을 막을 수 있다.

오는 8월10일 일연스님 추모대제때 대구모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도 갖고 있으나 절 차원으로는 역부족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문호나 음악가 등의 작품이 탄생된 장소를 문화유적지나 관광명소로 잘 보호하고 알리고있다. 겨레의 성지를 복원하기는 커녕 수몰시키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 댐건설 취소를 확정발표해야 농민들도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인각사지 발굴도 가능해진다.

인각사지 인근의 학소대는 행락객들이 많이 몰려올 정도로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건교부는 군위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천명해야 한다.

"주민 · 군의회등 댐건설 반대"

홍순홍 〈군위군수〉

많은 돈으로 대치할 수 있으나 문화유산은 금명어리로도 대치할 수 없다. 군위군에서는 자체 식수조달을 위해 소규모의 상수도수원지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군위댐건설계획으로 무산돼 15억원을 환경부에 돌려줘야 했다. 군위댐이 건설되면 고로면의 1/3 이상이 댐 영향권내에 들어가고 고로면사무소가 수몰되어 고로면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교부에서 굳이 댐건설을 강행한다면 지방정부로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없는 입장이다.

댐건설과 관련한 토지보상등은 위임사무로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인각사 수몰을 반대한다.

올들어 여러차례 주민들의 데모가 있었다. 군의회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수몰위기 인각사를 살리자'는 30여쪽 분량의 책자를 만들어 각계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통신에 토론방을 개설해 서명작업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작년에는 반대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송부하기도 했다.

"문화재 보호차원 대책수립"

김종진 〈문화재관리국 사무관〉

개발과 보존의 대립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잃고 말았다. 21세기의 문화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은 우리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계승에 있다. 인각사지 수몰위기가 또 하나의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군위댐건설과 관련 2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공문을 보내 인각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밝히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다행히 현재 군위댐건설은 아직 기본설계 단계에 있고,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함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민원이 빗발치고, 상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인각사를 수몰시키면서까지 댐건설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문화재관리국은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해 인각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PC에선 …

pc 통신 하이텔 나우누리에는 '인각사 살리기' 대화방과 서명운동이 활발히 열리고 있다. 하이텔에는 3월29일 등록돼 5월16일 현재 5백55건의 인각사 수몰반대 여론이 올라있다. 특히 타종교인들의 참여도 관심을 끈다. 나우누리도 특별게시판이 설치돼 인각사 소개에서부터 토론방 서명까지 다양하게 세분화돼 있다. 나우누리에는 2백96명이 인각사 수몰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문화유산의 해인 1997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각사는 원형대로 복원되어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이텔 seulggi 김학수〉

○… 다른 나라는 없는 것도 지어내서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일연스님으로 유명한 인각사를 수몰해? 건설이 그리도 중요하다면 아예 전국산을 밀어버리지? 그 흙으로 국토확장하면 좋겠수다. 〈하이텔 steinone 박중현〉

○… 그동안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의식주문제에 집중하여 국가를 이끌어 왔습니다. 광복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2천년대는 돈으로 국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불

"민족숨결 무시 졸속행정에 아연"
"인각사지 복원 역사교육장으로"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문화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하나의 유물이 자취를 감춘다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하이텔 zsmus 어경준〉

○… 정부에서 하는 일인지 대구시민들이 그리도 원하는지? 대구토박이인 내가 부끄럽다. 대구시민들이 그걸 원한다면! 이땅의 자연은 지금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것 뿐이다.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한다. 〈하이텔 du128ri 정현숙〉

○… 우리의 것을 무시한 졸속행정처사는 인각사 수몰의 안타까움보다 먼저 답답함이 앞섭니다. 내년부터 개방이되는 모든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정신 함양의 목적을 둔 '문화유산의 해'가 유명무실한 것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나우누리 ipas 성현철〉

○… 재작년 경주고속철도 반대서명운동에 이어…, 경주고속철도 문제가 벌써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국민적 저항이 심했는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할 일 없는 사람들…. 〈나우누리 befool 홍영주〉

○… 이런식으로 하나 둘씩 소멸된 문화재들이 적지 않은데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번에 인각사가 없어진다면 앞으로도 문화재보존은 어려워 질 것이니까요. 〈나우누리 allurer 조영길〉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양심을 찾으시오!

성 명 서

종정예하의 법어가 없는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났습니다.

법어가 없는 부처님 오신 날은 현 집행부의 불감증에 걸린 부정과 파행을 질타하는 종정예하와 청정교단을 바라는 대중의 말없는 사자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질타를 모면하기 위하여 불교신문에 종정예하의 대담을 왜곡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종정예하와 나눈 사적대화를 마치 대담기사처럼 싣는 것은 종정예하를 기만하고 나아가 우리 종도들을 현혹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교계의 바른 소식을 알려야 하는 불교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파행과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습니다.

송월주집행부는 출범후 종헌종법을 위반해가며 파행과 부정의 종무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은 전종도의 뜻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4월 16일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개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자숙과 참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4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독선과 부정을 은폐하는 근거없는 주장과 자의적인 내용을 종도들에게 유포시키는 해종행위를 벌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성명서에서 스스로 종무행정의 파행운영과 부정의 은폐기도를 드러내어 전 종도를 기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선과 부정을 공개합니다.

총무원의 모든 예산은 종헌 제 36조 4항에 의거하여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직영사찰의 관리주체는 총무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앙종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종무회의 결의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영사찰의 예산을 유용, 횡령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불법적인 종무회의 결의조차 받지 않고 지출한 내역이 있어 횡령의 혐의가 있으며, 그 예산의 대부분이 총무원장과 관련된 단체나 행사에 집중 지원되어 있어 음성자금의 변태적 지출이요, 선심성 종권유지자금 지출이라는 종회의원들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종헌, 종법상 근거가 없는 기구이며 조직의 실체도 없는 송월주 총무원장의 사조직이며 개인사업입니다. 총무원장은 이러한 개인사업을 빌미로 기금을 불법조성하고 있으며, 선심성 예산지원등 개인의 사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부공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소조작을 중지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익명의 불자라는 명목으로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고정적으로 일천만원씩 입금되는 기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종회의원들의 요구를 무주상보시를 앞세우며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의 은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입니다.

나아가 집행부의 독선과 부정은 오만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의 총무부장이 일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회가 유회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종회모독이요, 월권행위입니다. 만약 국가의 행정장관이 이번 임시국회는 안건도 상정이 않되고 유회될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송월주 집행부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종무운영을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총무원장은 종헌을 위배해가면서 불교방송 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불교방송의 대규모 부정횡령에 총무원 관련설이 나도는데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축소조작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애종적 결단으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고 현 송월주 집행부가 불교발전과 종단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개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는 독선과 부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무원장의 파행과 부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권고를 거부한다면 전 종도와 더불어 총무원장의 퇴진운동을 벌여 종단을 바로세우고 불교를 바로세우는 불사에 중앙종회의원들이 앞장을 설 것입니다. 종회의원들의 애종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부처님과 역대조사를 욕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정중히 송월주총무원장의 사퇴를 권고합니다.

불기 2541년 5월 29일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

전화 : 중앙종회 사무처 735-5860 · 749-4878
팩스 : 749-4879

승가 기본교육 강화 역점

조계종 승가령·교육법 개정안 확정

조계종 승가대학령과 교육법 및 기본교육미이수자 대책안이 최종 확정 발표됨으로써 교육원은 새로이 지방승가대학 체제 정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공포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돼온 이들 법령안들은 빠른 시일내에 열릴 총무원 종무회의 및 종회의 결의를 밟아 7월2일까지 개정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확정 시행된다.

교육원은 5월27일 제27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학년정원 7인이상, 총학인정원 80인이상 80인 이하, 교수 3인이상(총학인정원이 50인 이상인 때에는 5인이상)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미인가 승가대학은 개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단인가를 받을 것과 전통도량에 위치한 승가대학은 사미와 사미니를 함께 수학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확정안은 당초 교육원이 공포했던 학년정원 12인이상, 총학인 정원 50인 이상, 교수 5인이상에서 사실상 교구본사 및 교직자들의 요구를 대체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해 공포된 승가령에 완강히 반대했던 교구본사 및 전국교직자연합의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년간의 인가 유예기간이나 교수 수는 합의점을 찾은 상태나 학년 학인 제한없이 총원을 하한선 20명 상한선 70명으로 하자는 교구본사 주지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원 80인이하 규정에 있어 사미승가대학의 경우 개정일로부터 4년 후에 적용하며, 사미니승가대학의 경우에는 유보키로 한것은 일선 강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기존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한 것이나, 현행 6개월의 행자교육과정을 1년으로 늘린 것은 승가기본교육정착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기초교육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미, 사미니계 수지 후 2년이내에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 사미니의 승적을 박탈한다'는 종단 기본교육 미이수자 대책안과 '은사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도제로 하여금 종단의 의무교육을 이수케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본·말사 주지나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인사규정 개정안 신설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종단 교육개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구본사 및 교직자들은 아직 공식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원이 그동안 몇차례 공청회와 수시로 실무자 회의를 벌인 끝에 일선의 요구를 대폭 수렴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더이상 자신들만의 요구를 내세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1년여나 늦춰진 종단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또다시 제동을 걸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중 승가령의 경우 기존선 자체만을 고려한 현실적 작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일선 강원의 비판은 쉽게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수덕사 교무국장 주경스님은 "실제로 해인사 등 학인정원이 80명을 훨씬 넘는 승가대학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개정안에 맞지 않는 요건을 가진 승가대학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행자교육원 교수사와 임원들이 요정했던 행자교육원 상설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구본사들은 당해사찰에 행자교육원이 설치되는 것을 꺼리는 형편이고, 예산문제 또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종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난제를 안고있어 행자교육원 상설화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행자교육 6개월서 1년으로

학인수등 당초안보다 하향조정



◇2년가까이 논란이돼온 조계종 승가대학령과 교육법 및 기본교육 미이수자 대책안이 최종 확정됐다.

조직구성 매듭 '본격 활동'

중앙신도회 10일 첫 운영회의 의미

총무원과의 불화설에 휩싸여있는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10일 교구신도회장과 사무국 부장급이상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회의를 열어 조직정비 및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로써 2년여의 산고끝에 3월15일 창립한 중앙신도회는 그동안 매듭짓지 못했던 부회장단 인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사항을 결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운영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과 신도회 불화설은 재정확보 방안의 이견에서 비롯됐다. 총무원측은 부회장단과 지도위원 영입을 통한 재정확보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중앙신도회는 특정인에 대한 부담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 지역안배 및 사회적 신망도를 우선고려해 명단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일치가 늦어져 아직까지 부회장단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중앙신도회는 신도교무금을 신도회 재정으로 이관 또는 총무원과 신도회 공동명의 예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금 적립액은 5월말 현재 약 3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도 총무원은 난색을 표했다. 때문에 총무원과 신도회와의 갈등으로 신도회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다 중앙신도회장 명의의 '지금까지의 북한동포돕기 수정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일간지 광고가 불화설을 부추겼다.

부회장단·사업계획 등 결정될듯

교무금 총무원 공동예치 '미지수'

당초 총무원장과 신도회장 공동명의의 광고를 게재키로 했으나,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월주스님이 보류를 요청했으나 송회장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해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돌기도 했다.

송회장은 5월 29일 "직접전달할 수 있는 방법만이 북한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라며 "총무원장도 광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광고건과 관련한 불화설을 일축했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운영회의에서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논의도 기타안건으로 상정, 남북적십자사의 직접전달 합의에 따라 모금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과 관련, 총무원과 신도회의 의견차는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또다시 재연될 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도회 사무국은 재정확보 방안 및 올해의 사업계획안을 월주 총무원장에게 보고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일간지광고를 문제삼아 일부 단체에서 송회장의 사퇴를 요구,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전불련 경불련 대불련 등 교계 7개단체는 5월22일 성명을 통해 "자신이 소속된 조계종단이 북녘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종단의 방침을 전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발표한 것은 불교도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송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목어 여성불교학자 1호

大蓮 李永子박사(동국대 불교대학원장)는 우리나라 여성불교학자 1호다. 이박사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천태(天台)학자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그래서 5월 26일 거행된 '이영자박사 화갑논총 봉정식'은 더욱 시선을 끌었다.

불교학 연구와 후학육성의 외길 30여년. 멀고 먼길을 쉼없이 개척하고 정진하여 한송이 큰 연꽃(大蓮)을 피운 이박사에게 1천여 하객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박사의 불교학 입문은 대학 졸업후 불교에 반하여 동국대학교에 학사편입하면서 시작됐다. 63년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니까 36년 세월을 부처님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학문과 신행으로 익혔다. 그 외길은 인고의 길이었고 각고의 길이었으리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오늘의 결실을 볼 수 있었겠는가.

저서 〈한국 천태사상의 전개〉를 비롯 10권의 역서, 17권의 공저, 21편의 연구논문, 13회의 학술발표, 잡지와 신문에 실린 110편의 불교평론과 에세이는 이 박사의 학문적 성과이며 업적이다.

웬만하면 110편의 글을 정리하여 단행본 한두권쯤 펴냈음직 한데 이 교수는 연구성과물 외의 책을 내놓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여학생감,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 학문의 길, 학교 발전의 길에 남녀가 유별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여성학회회장직을 맡아 불교계에도 여걸이 있음을 입증했다. 더불어 불교의 여성관을 학문적으로 정립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박사가 없었으면 불교여성계는 어찌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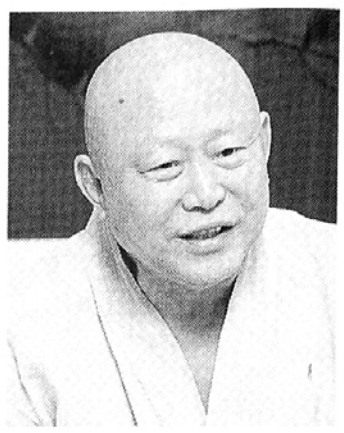
이영자교수를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의 학문세계를 높이 세운 축사는 말의 잔치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교수는 찬사를 과찬으로 받으며, 외길을 지켜준 90노모와 오라버니에게 박수를 돌렸다. 긴여정을 꿋꿋이 달려온 고집스런 학자는 눈시울을 적셨다.

오직 불교학에 열정을 불태우며 학문의 탑을 쌓은 이영자박사의 더큰 회향을 기대한다.

수요인터뷰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천운스님

"교화는 사실상 내공부"



제 17회 교정대상시상식에서 본상 자비상을 수상한 천운스님(대둔사 주지)은 24년간 광주·전남지역 교도소를 순회하며 교정포교에 힘써왔다. 스님은 5월 22일 시상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승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사회복지활동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의 자비실천의 삶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교정대상 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의 소명을 받은 그 책임을 대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준것은 사회가 불자들에 거는 바램으로 받아들입니다. 스님들은 물론 불자들이 재소자교화에 더욱 매진했으면 합니다.

- 언제부터 교정교화활동을 하시게 됐는지요.

▲73년 구례 화엄사 주지시절 순천교도소장과 교도과장이 찾아와서 타종교는 재소자교화가 잘 되는데 불교는 안된다며 법문을 부탁해 온것이 계기가 됐지요. 이후부터 순천교도소 뿐 아니라 장흥·목포·광주교도소를 차례로 거치게 됐습니다.

73년부터 교도소 포교
고아 40명과 생활
광주 불교병원 추진

- 교정활동하시며 보람도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구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 재소자 교화가 사람을 다루는 일인만큼 사실상 내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스님께서는 재소자교화 뿐아니라 아동복지에도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직후 화순 용암사 주지로 있었는데 거리를 헤메는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 애들을 절로 데려와서 키웠지요. 70~80여명씩 데리고 살다가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40여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아이들이 '아버지스님'하며 찾아와 얼굴을 가슴에 묻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요.

- 힘도 많이 드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방구 넘새 구린내 속에서 살 줄 알아야만 부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구이다 보니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방황해도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느낄때까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지요. 자식은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스님께서 광주지역에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계획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광주 향림사에는 노인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복지관을, 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은 별도의 복지관을 광주외곽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광주 우성병원을 인수하여 우수인력과 최신 기계를 갖춘 불교병원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원우 기자

대둔사 참선수련회 (Zen Retreat)

여기 속박과 혼돈을 떠난 한 세상이 있도다.
한국 선가의 귀감인 서산대사의 화두선풍에 뜨거운 번뇌를 식히옵시라.

모 집 요 강

- A4용지에 우측 양식대로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 참가신청서는 본인이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가족 및 친지는 참가 찻수를 달리해야 합니다.
-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 동참금은 7만원입니다.(자원봉사자는 면제)
- 6월 27일까지 동참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 보낼곳 : 우(536-810)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 수련원
- 문의처 : 종무소 전화 : 0634-34-5502,5503 팩스 : 0634-35-5357
- Foreigners may join, An opportunity to sit a Korean style Koan Zen Retreat to be held at Daehungsa Buddhist Monastery, Send enquires and application to :

Retreat Centre, Daehungsa, Gurimni Samsanmyon,
Haenamgun Channam 536-810

일 정

찻수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 7일(월)-11일(금)	39명(남:19명,여:20명)	19세-50세
2차	7월14일(월)-18일(금)	39명(남:19명,여:20명)	19세-50세
3차	7월21일(월)-25일(금)	39명(남:19명,여:20명)	19세-50세
자원봉사자	수련경험자로 매 찻수마다 4명		

신청서 양식

- 신청마감일은 우체국 소인 6월21일분까지입니다.

대둔사 참선 수련회 참가신청서

이름: 한글____한자____불명____성별: 남·여
주소: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 및 팩스:_____
직업: (구체적으로)_____종교:_____
희망찻수: 제 차(월 일부터 일까지)
수련회 경험 유무: 無( )
有_____寺_____년도 제 차
참가소견(자세하게)

년 월 일
신청인_____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둔사(대흥사)** 주지 천운 수련원장 지수 합장

당신의 20시간을 빌려주십시오. 유창한 일본어로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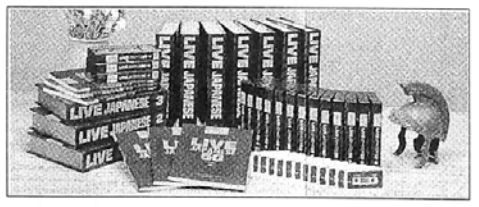


작년 이만때만 해도 일본어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NHK비디오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자유자재입니다. 文部省 능력시험에도 1급(331점) 받았습니다. NHK비디오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두 NHK 덕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인 봉 변호사

일본어를 가장 잘 아는 일본국립국어연구소와 30년간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NHK가 '세계 제일의 일본어 교재'라며 전문가의 자존심을 쏟아부은 교재 -이것이 NHK비디오 일본어입니다.

■ **1집 초, 중급편** : 일본글자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본어에 대해 깜깜하던 사람이 일상대화쯤은 거뜬히 해 내게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 **2집 고급편** : NHK일본어에는 일본느낌, 일본말투가 그대로 살아있는 "일본자체"가 담겨있습니다. 자! 이제 고급 일본어의 진수를 직접 체험하십시요.
■ **3집 LIVE 편** : 기본적인 일본어의 재미는 이미 느끼신 분, 현재 실력을 좀 더 갈고 닦아 '수준급'에 오르실 분, 일본인과 속 시원하게 '진짜 얘기'를 하려는 분, 여기 NHK Live Japanese 50이 있습니다.



※ 세계적 권위의 영어비디오 교재와 기타 어학교재도 있습니다.

일본어 끝내는 가장 쉬운길
NHK LIVE 비디오 일본어
지금 문의주십시오. 당신도 놀랍게 달라집니다.

(02)720-3690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따스함으로 부르는 노래

Focus

"내가 사라가는 동아네……"

화창한 5월 마지막 일요일 장충단공원.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함께 부르는 노래엔 훈훈함이 실려있다. 우리는선우(공동디표 박광서·남지심)초청 '장애인 야단법석 나들이' 행사. 선우회원과 BBS통신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데려온 50여명의 장애인들이 회원들과 2인3각 달리기, 우유 빨리 마시기, 노래부르기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제대로 다니지 못해 그동안 답답했던 이들은 마냥 즐겁다. 손과 발이 되어줄 자비로운 마음들이 많으니까.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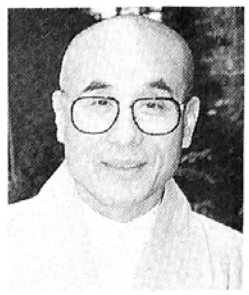
규현 안양암 주지스님 동대에 2억여원 기탁



규현 원효종 안양암 주지는 5월 14일 부처님 오신날 동국대 송석구 총장에게 불교연구기금으로 써달라며 2억3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금은 평소 불교발전에 기여해야 겠다는 원(願)을 세운스님이 20여년간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법문을 하고 받은 보시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다.

"재일동포 신앙 귀의처 삼겠어요"

일본 금강사 중창불사 이 규 범 스님



"재일본 태고종 총본산 금강사가 그동안 누적된 부채 22억원을 시주받은데다 주지가 인사·운영권 등 전권을 맡게돼 새롭게 중창불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중흥불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해 1차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금강사의 획기적인 불사추진 원력으로 재삭발한 이규범스님((재)한국불교태고원 이사장)은 금강사가 재일동포의 신앙적 귀의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장보살 3천불 봉안과 마스시로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은 동포들의 신앙심 고취와 2차대전때 일본이 천황과 육군본부 이전을 목적으로 지하도시를 건설키 위해 땅굴을 파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우리 동포 7천여명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스님은 또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재일동포 3, 4세들을 대상으로한 연수시설과 예절과 문화를 이해시키는 연수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우리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국식 종각과 법당도 새로 건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금강사는 일본전역의 동포들이 동참하여 1977년 창건한 민족공설사찰이었으나 20여년 동안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부채의 증가와 이원화된 운영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규범스님은 "사찰이 제자리를 찾아 민단과의 조직유대를 통한 재일동포의 도량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교 차 로

교정대상 특별상 수상



혜명 대전 혜명정사 주지는 5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5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전교도소 종교위원으로 재소자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 자비상을 수상했다.

한국철학회 회장에 뽑혀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5월 24일 한국철학회 '97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불교산악인련 초대회장에



손현수 대현실업 회장은 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범죄예방 고대협 창립

최일산 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 총재는 5월 21일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同연맹 대학교지부 제1호로 고려대학교협의회(회장 양민규·서어문학과 2)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군승 하안거 결제 들어가



이치영 육해공군군승단장은 9일부터 4박5일간 군승하안거 결제를 실시. 107명의 군승법사가 국방부 호국원광사, 1군 법웅사, 2군 무열사에서 의식·기도·참선 정진에 들어간다.

부산·경남 불교언론인 회장



이영구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은 5월21일 창립된 부산경남 불교언론인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비슬산 휴양림서 임원연수

김장근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 회장은 7~8일까지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청년불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임원연수를 실시한다.

불화 염주등 나눠주며 진관스님 구치소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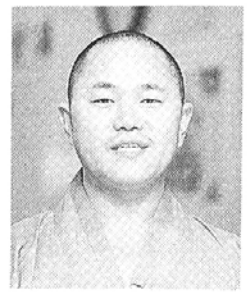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이 구치소내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교도관불자회인 불심회(회장 임장수)를 통해 비불자 교도관과 재소자들에게 불화(佛畵) 등을 나눠주며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또 스님은 운동시간 등을 통해 교도관이나 재소자와 잠깐 스치는 매순간을 법문시간으로 쓰고 있다고. 지금까지 스님이 포교를 위해 쓴 것은 석주스님(칠보사 조실)과 성근스님(신광사 주지)의 붓글씨 2백54점과 동성스님(마산 봉국사 주지)의 달마상 50점, 불서 8백권, 염주 1천개, 불자수첩 1백여권에 달한다.

"인도 불교정신 배워갔으면…"

성지순례·수련회 홍보차 귀국 도 웅 스님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 한국사찰(Nokyawon Korean Temple) 주지 도웅스님이 7월 22일 제1회 인도불교 성지순례 및 수련대회 홍보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

스님은 이번 수련회의 목적을 인도인의 정신과 혼을 배우게 하고 세계 속의 불교를 이해 시키는데 두었다. 그래서 인도와 티벳의 불교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 요가 체험, 인도 고전 무용과 고전 음악회 관람 등 수행 및 불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님은 이번 수련회가 "예불 및 성지참배 법회도 열어 불교교리와 세계불교의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불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의욕에 차 있다.

한편 이번 수련대회는 11박 12일 일정으로 모두 4차에 걸쳐 실시된다.

문의 (02)738-5781

"도움 받았으니 돌려 줘야죠"

10년모은 용돈 털어 구급차기증 윤법성화 보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119구조대는 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인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5월 17일 종로소방소에 구급차를 기증한 윤 법성화보살(法成花·71).

윤보살은 지난해 12월 신설동 로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생명이 위독했던 윤보살은 119구조대의 신속한 후송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퇴원 후 그는 10여년간 모은 용돈 1천만원을 털어 119구급차를 구입했다.

종로구 여성싸이클연합회 고문이기도 한 윤보살은 "후유증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게되어 아쉽지만 사고 후 불심(佛心)은 더욱 깊어졌다"며 자주 조계사에 들러 불공을 한다고 말했다.

"적지만 제가 기증한 구급차가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큰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한국불교계율…' 출판회



인환 동국대 명예교수스님은 5월 30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Ⅰ)〉 출판기념법회를 가졌다.

파라미타 캠프 간담회

성타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스님은 5월 31~1일 고성잼버리캠프장에서 파라미타 캠프관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연합캠프 캠프장 사전답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신사리 100만과 친견



경우 부산 대각사 조실은 5월 16~26일 부처님 진신사리 1백만여과 친견 대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대각사 내 박물관에서 일반인에게 계속 공개하고 있다. 이 박물관에는 인도·태국 등지에서 발견된 사리함과 부처님 십대제자 사리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불교관련 유품이 수만점 수장돼 있다.

식량지원 위해 북한방문



도안 LA 관음사 주지스님은 재미종교인 4명과 북한식량 지원을 위해 5월 23일 방북했다.

스님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자체모금 가두모금 통신송금 등을 통해 모아진 24만불(한화 2억2천6백만원)을 전달할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스님 10주기 추모재

무상 봉은사 주지는 11일 오전11시 봉은사 대웅전에서 영암스님(前 동국대이사장) 10주기 추모대법회를 갖는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캠페인 606,680원 △대불련 부산지부 2,134,770원 △조계종 비구니회 285,000원 △정토회 연등보시금 9,885,000원 △대불련 5,000,000원 △우리는 선우 5,000,000원 △서울대 미대 외 46개 단체 22,765,580원 △김남식 1,500,000원 △이화옥 1,000,000원 △김화숙 1,000,000원 △해종스님 600,000원 △윤장호 외 365명 23,924,56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 10,321,500원 △한끼 굶기 운동 745,000원

〈13일 현재 총 471,752,33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인사

불교방송 △보도국장 김양일 △부산지국 총괄국장 이영구 △방송심의실장 김창영 △편성제작국 국장대우 이선미 △사업국장 직무대리 구기범 △보도국 편집제작부장 이영일 △보도국 정경부장 김정특 △사업국 영업 1부장 겸 2부장 김순식 △기술국 기술관리부장 손경현 △관리국 광고업무부장 박태진 △편성제작국 제작부장 직대 유병직 △보도국 사회종교부장 직대 구태서 △기술국 송출부장 직대 백난찬 △관리국 총무부장 직대 최찬기

게시판

♣ 안내

봄나들이 물품후원=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10일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 노인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행사에 간식류(음료수, 빵)를 후원받는다. (02)203-3677

♣ 강좌

종이접기=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종이접기를 이용하여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주부반' '엄마와 함께반' '아동반'을 개설한다. (02)325-2161

수지침=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은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지침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893-5034

다보문화=(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11일 오후2시 불교방송국 3층 공개홀에서 '한 민족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다보문화강좌를 연다. (02)703-0108

목탁·건강 마사지=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스님)은 4일 오후7시30분 목탁강의와 13일 오후2시에 발반사 건강 마사지 강좌를 개설한다. (053)784-3669

♣ 모집

카운슬러대학 자원봉사자=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6월 2일까지 상담원 활동에 관심있는 모든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12기 카운슬러대학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737-7378

♣ 화촉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권기종교수의 장녀 현아양이 11일 오후1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힌다. (02)260-3500

KAL 월드투어 97.6.18~97.6.30

선착순 단2회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중국 구화산(지장보살) 보타산(관음보살) 성지순례

불기 2541년

후원 : 대한항공 / BBS 불교방송 / 구화산 불교협회 육신보전



구화산 성지순례 ₩960,000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방문지 및 내용	식사
1 6/18 6/24	서울 상해 구화산 상해	전세기 전용버스	12:00 12:50 오후	전세기편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상해 도착 영화사 숙례후 휴식 HOTEL : 상해빈관 /보룡	x 기 중
2 6/19 6/25	상해 보타산 상해	비상호 (신란) 전용버스	10:00 12:00	비상호편으로 상해 출발 보타산 도착후 순례 불공기관음원 보제사, 법우사 호텔 투숙후 휴식 HOTEL : 보타산대주점	호 호 호
3 6/20 6/26	보타산 항주 영파	특속선 전용버스	07:30 11:00 오후	선편으로 보타산 출발 영파 도착후 순례 천동사 아육왕사 항주로 이동후 호텔 투숙 HOTEL : 신교 /항주민	호 중 중
4 6/21 6/27	항주 구화산	전용버스	전일	항주 성지순례 서호, 영은사 전용버스편으로 항주 출발 구화산 도착 호텔 투숙후 휴식 HOTEL : 동아빈관 /취룡	호 중 호
5 6/22 6/28	구화산	전용버스	전일	구화산 순례 백세궁 참배 육신보전 "명가천도 대법회" 회성사, 기원사, 상선당, 천대사 호텔투숙후 휴식 HOTEL : 동아빈관 /취룡	호 호 호
6 6/23 6/29	구화산 남경 상해	전용버스	전일	전용버스편으로 구화산 출발 남경도착후 중식 남경대교, 관광후 상해행발 상해 도착 호텔 투숙후 휴식 HOTEL : 상해빈관 /보룡	호 중 한
7 6/24 6/30	상해 서울	전세기	14:00 17:00	상해시내 견학 홍구공원, 임시정부청사 등 전세기편으로 상해 출발 서울 김포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성불하십시요	호 기

장강·삼협 (1차) ₩1,280,000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방문지 및 내용	식사
1 6/18	서울 상해	MU504 2	12:55 13:50	항공기편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상해 도착 상봉사 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숙식후 호텔투숙 HOTEL : 상해빈관	x 기 중
2 6/19	상해 소주 상해	열차편	전일	열차편으로 소주이동 유원홍콩정원, 호구 열차편으로 상해 이동 호텔투숙 HOTEL : 상해빈관	호 중 한
3 6/20	상해 중경	3U572	10:40 13:25	국내선으로 중경이동 중경지역 관광 중경임시정부 청사 나한사, 이당공원 호텔투숙 HOTEL : 중경호텔	호 중 중
4 6/21	중경 삼협	유람선	전일	유람선 탑승 천간오문 도착후 하선 "귀신성 관광" 풍도 참장 유람하여구협(제협)으로 이동 HOTEL : 백제호 선내숙박	호 선 선
5 6/22	삼협	유람선	전일	6시경 구당협 통과, 백제성(공명유적)으로 조망) 후 무협(제협)으로 이동 무협경유 무산 도착 하선 "불각선"으로 소삼협 관광 유람선으로 귀환 서룡협 이동 HOTEL : 백제호 선내숙박	선 선 선
6 6/23	삼협 이창 무한 상해	전용 버스 CZ2540	07:00 09:00 17:55 19:25	서릉협(제협)통과 삼협댐 경유 이창 도착 점심후 관광후 무한이동 황학루 관광 황공묘 방문후 상해 이동 상해 도착 호텔 투숙 HOTEL : 상해빈관	선 중 한
7 6/24	상해 서울	MU504	09:05 11:55	조식후 호텔출발 황공묘경유로 서울 행발 김포국제공항 도착	호

장강·삼협 (2차) ₩1,280,000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방문지 및 내용	식사
1 6/24	서울 상해	MU5042 SZ4544	12:55 13:50 18:10 20:35	항공기편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상해 도착 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황공묘경유로 무한이동 무한에서 숙박 HOTEL : 동방왕조 선내숙박	x 기 중
2 6/25	중경 삼협	유람선	전일	유람선으로 관광 무산 유람 도착후 하선 "귀신성 관광" 무산신녀상 관광 무산신녀상 관광후 다시 유람선으로 신단(제협)으로 이동 HOTEL : 동방왕조 선내숙박	선 선 선
3 6/26	삼협	유람선	전일	6시경 구당협 통과 백제성관광(유람선에서 조망)후 유람 (제협)으로 이동 무협경유 무산도착 하선 "불각선"으로 소삼협 관광 유람선으로 귀환 서룡협 이동 HOTEL : 동방왕조 선내숙박	선 선 선
4 6/27	삼협 서사	유람선 전용버스	08:00 전일	사시 도착 사시지역 관광 원주박물관 원주고성 미수보탑 관광 숙식후 호텔투숙 HOTEL : 형주빈관	조 중 중
5 6/28	사시 무한	전용버스	08:30 11:30 전일	사시 출발 무한 도착 점심 무한 지역 관광 황학루 구경후 이동 숙식후 호텔투숙 HOTEL : 이릭호텔	조 중 중
6 6/29	무한 상해	전용버스 CZ2579	오전 12:05 13:25	무한 오후에 황공대교 관광 황공묘 방문후 상해 이동 상해 도착 호텔투숙 HOTEL : 상해빈관	호 기 한
7 6/30	상해 서울	MU5041	09:05 11:55	조식후 호텔출발 황공묘경유로 서울 행발 김포국제공항 도착	호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조건 전일정 식사 포함, 입금호텔 사용(2인1실) 공항세 포함 ※ 해외 여행자 보험 (억원 가입(연령별)

한진그룹 한진관광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일반여행업8호

02-726-5702~3

예약 담당 대리 박동룡 박정숙

· VISA 비용별도 ₩16,000 · 구비서류 : 여권, 사진1장
· 신청금 ₩100,000 제일은행 : 105-10-095402 / 예금주 : (주)한진관광

지점 및 영업소 · 부산 : 463-2115 · 제주 : 42-7217 · 팔레스호텔 : 536-0368~9 · 경주 : 745-3070~3 · 광주 : 228-0041~2 · 기드호텔 : 718-3140~1 · 대구 : 426-6706~8 · 대전 : 252-2034~5 · 서울르네상스호텔 : 566-1768 · 서초구청 영업소 : 575-8324~5

탐방 | 강남경찰서 경불회

지장경독송 범죄예방 발원

매주 유치장 법회…미결수 참회·새 삶 유도

5월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경찰서내 유치장.

법수스님(봉은사)이 30여명의 미결수들을 대상으로 약식법회를 연 가운데 〈천수경〉을 독송하고 '업'을 주제로 설법을 하고 있다. 법문중에는 "현재의 상태를 억울하게만 여기지 말고 좀더 나은 인생을 살기위한 마음공부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린다. 30여분간의 짧은 유치장법회가 끝나면 스님은 봉은사 신도들과 함께 마련한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나눠준다. 유치인들은 다소 안정을 찾은듯 간간히 웃음을 지으며 공양을 한다.

지난해 10월10일 경승실(경승실장 범일)과 법당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강남경찰서경불회(회장 문영길 소년계 계장)는 매주 수요일 오후 유치장법회에 이어 오후 6시30분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서내에는 박종구서장을 비롯 70여명의 불자경찰관이 있지만 법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항상 30여명 내외. 격일근무와 당·일·숙직 등으로 연일 격무에 지친 이들에게는 이정도의 참여율도 대단한 발심이다.

인근에 있는 봉은사의 범일스님과 성관, 법수스님이 번갈아 가며 법문을 하는 정기법회는 기초교리·〈지장경〉·〈반야심경〉 강의 등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아직 초보자들이 많아 어려운 교리공부나 용맹정진을 하지는 못하지만 원력은 남못지 않다. 그래서인지 반년만에 76년 생긴 경목실의 3배가 넘는 법당(10여평)을 봉은사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마련, 서울시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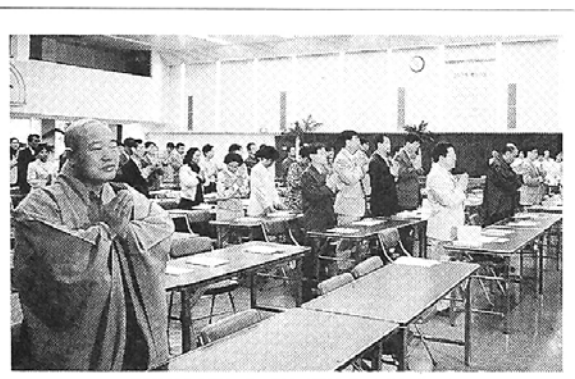
법회가운데 〈지장경〉을 독송하며 유치장이 텅 비는 날을 서원하는 한편, 출근전이나 휴식시간에 법당에 들러 참선과 기도정진을 하며 범죄예방을 발원하는 것이 이들에겐 큰 보람이다. 마치 지옥이 비는 날을 기다리는 지장보살처럼….

경불회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윤용수경장(경비과·37)은 "유치인 가족들이 소리없이 법당에 들러 기도를 하고가기도 한다"며 "때문에 봉은사 신도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강남경찰서 경불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3시 유치장법회를 통해 미결수들의 참회를 유도한다. 이어 오후 6시30분 정기법회에서는 〈지장경〉을 독송하며 범죄예방을 서원한다.



◇5월24일 열린 제17회 전국금융단 합동법회.

불심모아 '경제난 극복' 기원

"굶주리는 북한동포 살리자" 성금 동참

전국금융단불교련 합동법회

'은행불자의 청정한 한마음으로 남·북한의 경제난과 굶주림 해결을'.

지난 5월24일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가 서울은행에서 개최한 제17회 전국금융단합동법회. 한국·한일·제일·종소기업·서울·한국산업·한국수출입·한국외환·상업·조흥·동화은행, 증권거래소 등 16개 은행에서 참석한 1백50여명의 불자들은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생각하며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이날 법회는 최근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6월 금융대란설' 등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은행불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법회였다. 혼란의 금융계에서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는 회원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한마음이 되어 국가적인 난국을 이겨낼 것을 다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축사에 나선 혜덕거사(서울은행불교행우회 지도법사)도 이를 의식, '심청정(心淸淨)이면 국토청정(國土淸淨)'이라는 〈유마경〉의 법문을 인용하며 "금융인 불자가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오늘의 에토(穢土)를 정토로 바꾸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불음합창단(단장 이금순)의 축가에 이은 법어에서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도 "법회 참여와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 다진 내면의 힘으로 직장과 사회에 빛이 되는 금융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남쪽의 어려움이 아무려면 북쪽의 굶주림에 비할까. 법회 마지막에 회원들은 관세음보살정근을 계속하면서 북한 동포돕기 성금을 아낌없이 보시함에 넣었다.

이틀만에 회원2배 '관심 폭발'

대구MBC 불교硏 창립

"교리공부 · 성지순례 통해 신심함양"

대구MBC불교연구회(회장 전병철 사회부장)는 5월21일 이성일고문(부국장) 등 발기인 22명이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 14, 15일 1박2일간 경북 영천 백흥암(주지 육문)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비구니 청정도량인 백흥암에서 법회를 마친후 은해사, 기기암 등을 참배하고 큰스님들의 법문도 들을 예정.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직장동료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불법탐구와 수행을 통해 자기계발과 회사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창립된 同회는 창립총회 이틀만에 회원이 45명으로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직장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처음 6개월간은 매월 1회 정기법회를 갖되 한번은 성지순례를 떠나고 한번은 포교당에서 교리공부를 하면서 수행력을 키우기로 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내실있는 직장법회를 꾸릴 각오다.

전병철회장은 "회원들이 바쁜 직장생활과 가정살이에 쫓기다보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면서 "법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잠시 되돌아보고 '인생의 참 이치가 무엇인가'를 화두삼아 정진하는 법우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청불회 청와대불상 친견

청와대불교신형회(회장 박세일 사회복지 수석)는 5월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등 종단협 소속 스님 40여명을 초청, 청와대내 불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24호) 친견법회를 봉행하고 오찬.

스님들의 불상 친견은 지난 96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금융결제원불교회 창립

금융결제원불교회(회장 조화제 정보시스템부 부부장)는 5일 오후 7시 서울 역삼동 금융결제원 6층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 이르써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 회원단체는 모두 14개로 늘어났다.

조화제 회장은 "성지순례 및 등산법회 등을 통해 사찰예절에서부터 가람구조, 불교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익힌 후 기초교리와 경전공부를 통해 교리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맑고 향기' 광주모임 결성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은 7일 오후3시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맑고 향기룹게 광주모임'(회장 고현 조선대교수) 결성식을 갖는다. 이로써 맑고향기룹게모임은 광주모임 결성으로 9개의 지역모임을 갖게 됐다. 이번 결성식에는 법정스님의 기념 강연회도 마련될 예정.

(062)653-0048

대전 운불련 8돌 법회

대전운전기사불자회(회장 박영조)는 13일 오후 6시30분 대전시민회관에서 총재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장학금 전달식(보문고 학생 15명에게 150만원) 및 유공회원 표창식이 함께 열린다.

부산신도회 불서 전시회

군·병원·교도소에 법보시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주최하고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이 주관한 불교도서전시회가 부산역 1층 문화관에서 5월15일부터 21일까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치러졌다.

군부대 병원 교도소에 불서 보내기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 기간을 통해 기증받은 1천여권의 책들은 1차로 보국사 호국사 금련사 자운사 군법당에 각각 책 1백권과 책장 2짝씩 전달된다. 2차로는 강원도 군단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며, 3차는 6월말경 부산근교의 병원이나 군부대를 지정해 보내진다.

MBC 불교硏 1돌 수계

문화방송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 통일문제연구소 국장)는 15, 16일 경기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을 수계법사로 창립 1주년기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대구산악회 소백산 등반

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는 15일 소백산으로 6월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에는 同회소속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회원 30여명도 참석, 환경캠페인을 벌인다.

고침 128호 5면 '달마룩카 부종정 월주스님 예방' 사진이 '한국불교硏, 티벳 하우스와 결연' 사진으로 잘못 게재됐습니다.



북녘동포위한 100일결사 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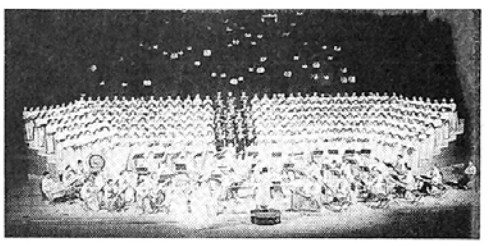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지선)는 5월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북녘동포를 위한 100일 결사법회 입제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제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혜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종회부의장 청화, 총무부장 혜창, 도선사 주지 동광, 보광사 주지 효림, 보문종 총무원 부원장 법종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화엄학림 제1기 학위수여식

실상사 화엄학림(학장 연관) 제1기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 5월19일 실상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법인스님 등 5명의 학인스님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연관스님은 "졸업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여기고 앞으로 한국불교의 선양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 격려했다. 졸업식에는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무비, 불학연구소장 밀원,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봉축기념 천태예술제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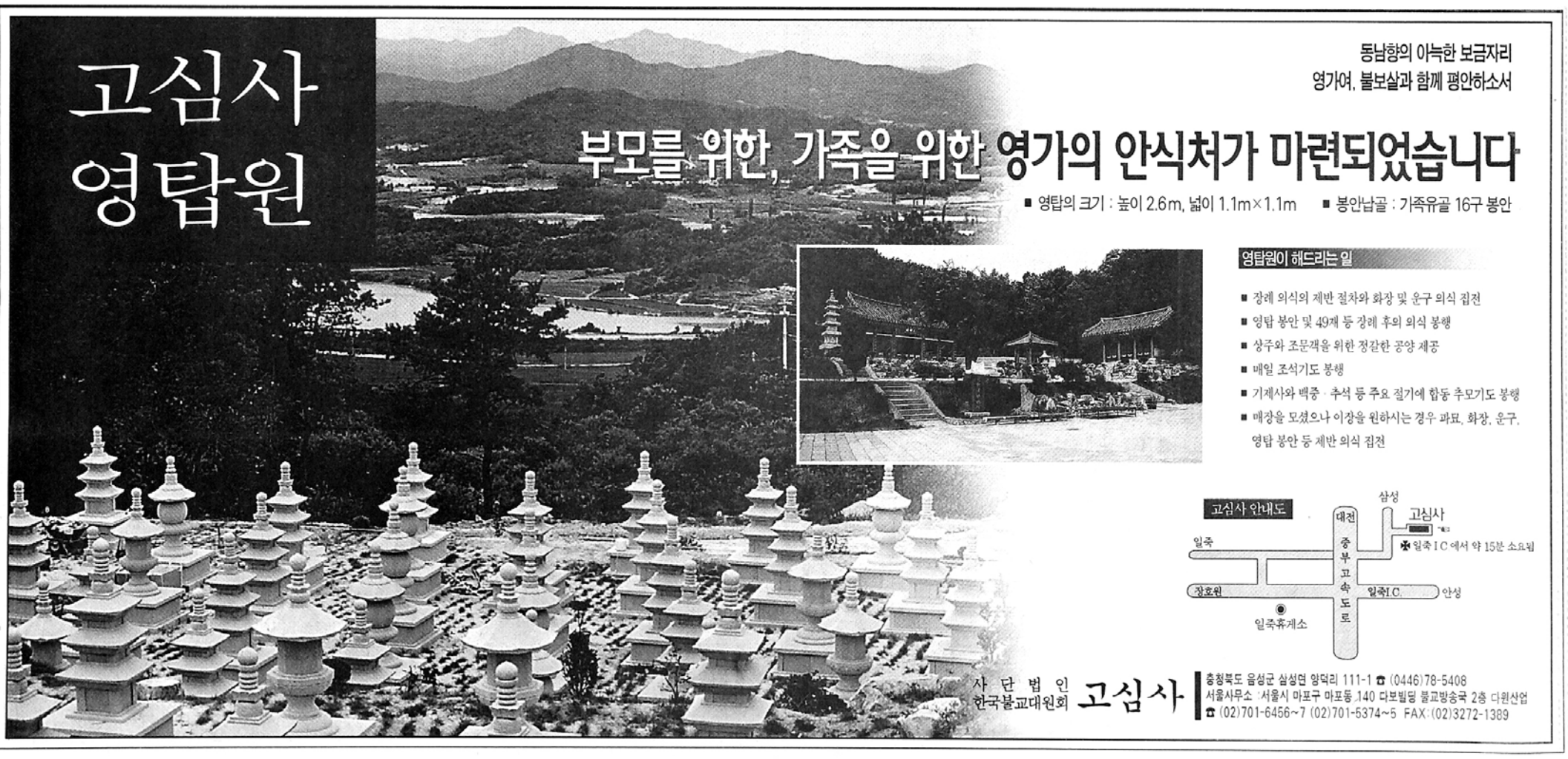
불기 2514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5회 천태예술제가 5월19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예술제에는 일곡 원융종 종정,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등 스님 40여명과 서돈각(불교방송 사장) 폰민(미얀마 대사) 진지(중국대사관 참사관) 김유혁(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회창(신한국당대표위원) 신경식(정무제1장관)씨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했다.



용호정사 군법당 개원 봉불식

육군 제8962부대 내 용호정사(지도법사 심불산)법당 개원 및 봉불식이 5월20일 심불산 스님(진주 토왕암 주지)을 비롯 백승두 진주시장, 최현태 진주경찰서장, 박명식 진주 시의회의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문에서 심불산스님은 "군포교에 지역불자들이 힘을 합쳐 동참할 것"을 당부. 이번 불사는 연건평 50평에 단층건물로 6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됐다.



법회안내

대각사(02)765-0972
합참단법회 매주 월요일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주지 도문스님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1시
청년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7시30분
금강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전북불교회관(0652)77-3497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4시

◇원감 회일스님

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6시
대학부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6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3일(양) 오전10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광주 자비정사(062)234-0879
신중기도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정진기도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주지 일광스님

거사회법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10시

제주 한마음선원(064)21-4662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목요일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30분

동해 삼락사(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22일 오전11시

평택 명법사(0333)655-3215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
청년부법회 매주일요일 오전11시30분

밀양 대승정사(0527)355-4846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7시

광도사(02)979-5183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경전읽기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호국 탐욕 끊고 정법대로 살면…

남북한은 5월26일 베이징에서 7월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t의 구호물자를 쌍방이 인도·인수키로 합의하는 등 대북 직접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오랜만에 남북한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쌀 30만t 북송때 잠수함 남파사건이 일어났듯이 평화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유비무환의 안보태세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정한 '호국'의 의미를 경전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든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밖의 모든 적들을 항복시켜 온 국토를 잘 보존하고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원하거든 중생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 재물을 널리 베풀어 주는 덕과 신명(身命)을 버리면서도 헛되지 않고, 대용맹을 갖추어 원적(怨敵)을 제어할 수 있는 3덕만 갖추어도 치국할 수 있다. 〈화엄경〉

▨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 왕은 〈인왕경〉을 읽고 외우라. 100개의 불상을 세워놓고 100명의 비구를 청해다가 〈인왕경〉을 외우게 해야 한다. 그리고 100개의 등불을 켜고 갖가지 향을 태우고 꽃을 뿌려 공양하면서 하루에 두 번 경을 읽어야 한다.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

▨ 이 성(城)이 파괴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세가지 우환이 있으니 큰 물, 큰 불, 나라 안의 사람과 나라 밖의 사람이 서로 음모할 때이다. 〈유행경〉

▨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다섯가지 공포(恐怖)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 순박해서 조심성 있고 과세기준이 평등해서 '국왕에 의한 수탈의 공포'가 없는 것, 군인은 충절이 있고 현명하여 욕심내지 않는 것을 신조로 하되 '왕의 측근이 협박한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관리가 그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서 '혹사로 고통받는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각자 모두 도리를 지켜 겸양하므로 나라에 왜곡된 일이 없어 '도적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평화로워 교류가 잘 이루어지므로 '침략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즉 수탈 협박 혹사 도적 침략의 공포가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화엄경〉

▨ 3종업륜(三種業輪)이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외침과 내란을 항복받아 인연들을 포육(抱育)하는 것이고, 집짓고 농사짓는 일을 국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식(住食)을 충족케 하는 것이며, 종업과 상업을 인민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가지 도구와 재물을 뜻대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

▨ 5종대사(五種大事)는 만민을 영도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고, 본업을 잘 닦아 복덕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충신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여 정직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탐욕을 절제하여 방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구성전경〉

어린이지도자 참선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는 14, 15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3차 전국 불교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1박2일 일정의 이번 행사에는 대효(원명선원 회주) 철오스님의 참선교육법과 부처님 가르침을 어린이에게 전달하는법 강의, 불교 레크레이션지도 등 여름불교학교에 실제로 활용되는 교육과 수행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군종병과 도서벽지 지도자는 동참금의 50%를 지원해준다.
(051)808-4569


◇전국불교어린이지도자 7백여명이 자리한 연수회에서 종광스님(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이 강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제20차 연수회.

신행수첩

'불교문화배움터' 개설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사찰문화와 불교문화의 진수를 공부할 수 있는 '불교문화의 배움터' 강좌를 개설했다.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에 열리게 될 '불교문화의 배움터 강좌'는 우리 문화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불교문화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6월5일 오후7시 대학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열리게 될 첫강의에는 '한국의 불화'를 주제로 박도화씨(동국대학교 박물관 연구원)가 강의한다. 참가회비는 매월 1만원이다.
(02)587-6613

中 장강 삼협 성지순례

불교방송은 6월24일 동국대 역경원 원장 월운스님(봉선사 회주)과 함께 하는 중국 장강 삼협 성지순례를 떠난다. 6박7일 일정으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는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거쳐 유람선을 타고 장강 귀신성 백제성 형주박물관 마수보탑 황학루 귀원사 옥불사 등을 둘러보게 된다.

참가비는 총 1백30만6천원이며 불교방송에 신청하면 된다. (02)726-5702

지리산 일대 생명기행

'지리산 맑은 물에 노니는 작은 생명들'이란 주제로 떠나는 제75차 우리문화기행. 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은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양하고, 부처님의 진리와 늘 함께 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답사를 떠난다.

이번 답사는 지리산 일대로 경남 함양 마천 여래입상을 비롯 벽송사, 백무동 계곡을 찾아간다. 6월8일 오전 7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회비 3만원.
(051)466-4080

목탁·염불하는 법 강의

승우스님(금오선원주지)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불가침구학회 법당에서 목탁치는법, 바르게염불하는법, 불교예식에 필요한 기초지식 등을 강의한다.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목탁을 바르게 잡고 치는법, 구품수행염불법, 예불과 불교식 제례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해 가르칠 예정. 일반 신도들의 가정법회 개최시나 혼자서 정근할 때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02)591-6464.

법조계, 佛供길 숨진 판사가족 돕기

법조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11일 불공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영진 정채종 판사가족을 돕기위한 모금운동이 펼쳐져 잔잔한 화제가 되고있다.

광주고법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모금운동은 장례식 직후 동료들의 발의로 시작돼 다른지역까지 전파돼 전 법조계가 호응하게 된 것.

故 김영진 정채종판사는 가족들과 승용차를 타고 경북 봉화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아가다 경남 함양군 88고속도로에서 한진고속버스와 정면충돌해 참변을 당했었다.

모금통장을 개설중인 광주고법 김규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동료애가 넘쳐나고 있다"며 "전국법원에서의 모금운동이 마무리되는대로 성금을 자녀등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은 (062)222-0044~46 광주고법 김규장판사실. 〈원〉

나의 수행일기


박 중 현

"어떻게 회향할까" 생활 화두

학생교화 보람… '隨處作主' 수행 나침반

반세기의 방황을 청산하고 불교수행의 바른 길을 찾았다. 어머님께서 불공을 드려서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태중 불자인 셈이다. 그러나 나는 50대 중반까지 바른 불법을 만나지 못하다가 1989년 여름방학 때 한국불교연구원이 경주에서 실시한 초·중·고교교사(교장, 교감 포함)들을 위한 불교강좌에서 내 인생행로에 큰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날의 그 많은 세월, 불교는 기복적인 면만 나에게 다가왔었지 참선, 염불, 간경 등을 통한 불교수행은 나와 인연이 닿지 않았다. 자신의 불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원대한 목표가 불교에 있음을 몰랐었다. 경주에서 故 이기영원장님과 정병조교수님의 조리정연한 불교경전 강의를 들었으며 참선도 했다. 또 불국사와 석굴암에서의 조석예불은 새로운 감명을 주었다. 그 뒤에도 불교전문 교수님들의 강의와 덕높은 스님들의 법문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들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혼자 여러 불서를 열심히 읽어나갔다.



그리고 참선단체인 수선회 도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명 선도량을 찾아서 참선을 하였다. 화두를 받아 결가부좌로 보통 7박8일의 참선수행에 여러 해 동참하였고, 지금도 집에서 매일 새벽에 30분씩 참선을 하고 있다. 또 관악산 연주암에서 실시하는 '3천배 철야정진'에 나이도 잊고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업장 소멸을 위해 밤새워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 도전하여 어렵게라도 계속 뜻을 이루어냈다.

그래도 소득은 전무하다. 두터운 철벽을 작은 바늘 하나로 뚫는 격이라 할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났다. 그러나 워낙 늦은 나이에 발심하였다는 자책감과 함께 나는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보살임을 자각했다. 보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과 함께 자기의 쌓은 바 선근을 남에게 돌리는 것, 즉 회향'이 요청된다. 나는 어디에 회향할 것인가? 나의 앞에는 항상 가르침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지 않은가? 이들을 올바른 인간으로 길러내야 한다. 그래서 전국교사불자회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한다. 나 자신의 수행을 계속하면서 나의 제자들과 교사불자 도반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학생들에게 불교설화, 불교우화, 불교전래동화나 부처님의 전생담 또는 불교경전의 내용을 쉽게 풀어 이야기 해주면 학생들은 재미있어 하면서 감화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 나는 교사불자회원들과 함께 불교전문서점에 가서 많은 우수 불서를 찾아내어 '청소년 불교도서 목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보내었다.

또 참선도 지도할 수 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서, 눈은 반쯤 뜨고 약간 아랫쪽을 바라보면서 내나름으로 만든 화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케 하며 매일 10여분씩 하였더니 몇 달 후부터는 학급의 분위기가 더욱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는 방석을 깔고 좌선하도록 지도하였더니 학년말까지 여러 학생들이 꾸준히 계속하였다고 한다.

교사불자회에서는 회원들의 신행담, 학생 불교지도 우수사례, 경전 연구 등 다양한 내용을 실은 문집 〈빛을 찾아서〉를 두 번 냈고, '학교에서의 불교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주에서 세미나를 열어 전국의 회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면, 그 서 있는 곳이 다 진실하고, 영원한 곳, 가치가 있는 곳이다(隨處作主 立處皆眞)'라고 한 〈임제록(臨濟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수행할 것이다.

〈서울신화초등학교 교사·전국교사불자회장〉

創 宗 公 告

1. 本宗의 宗名은 大韓佛敎 臨濟宗이라 한다.
2. 本宗의 敎主는 釋迦牟尼佛로 하고 宗祖는 臨濟義賢大祖師로 하며 太古普愚國師의 法脈을 繼繼相資한다.
3. 本宗의 所依經典은 金剛經과 華嚴經,傳燈錄,祖師語錄으로 한다.
4. 本宗의 我國傳來는 小獸林王 二年으로 起算한다.
5. 本宗의 淵源은 中華民國 白聖大長老의 뜻에 따라 弟資 先白岡大禪師가 設立한 臨濟宗을 繼承하여 賢弟이신 釋賢巖 大宗師를 創造主로 十方三世 諸菩薩이 證明하시는 가운데 十方世界에 大韓佛敎 臨濟宗創宗을 宣布합니다.

佛紀 2541年 5月 28日

大韓佛敎 臨濟宗

創造主 宗正 : 釋賢巖 大宗師
長 老 院長 : 釋慧巖 大宗師
總 務 院長 : 釋香巖 大禪師
宗 會 議長 : 釋竹巖 大禪師
司 正 院長 : 釋峰巖 大禪師
敎 育 院長 : 釋正巖 大禪師
布 敎 院長 : 釋圓巖 大禪師

忠南 公州郡 鷄龍面 中壯里 山 108 番地
臨 濟 宗 護 國 禪 寺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인 원 : 10명 선착순
■출 발 일 : 1997년 6월 27일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1997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불교대학원(야간) ☎260-3097, 3098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나. 불교사학과 : 불교사, 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포교학
3.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 6. 9(월)~6. 20(금) 09:00~17:00(토, 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 1997. 6. 26(목) 14:00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5.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1)일반전형 : 필기시험(영어·전공) 및 면접
2)특별전형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6. 특전 : 조계종 재적 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불교지도자과정
가. 지원자격 : 조계종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신심이 돈독한 자
나. 원서교부 및 접수 : 석사과정과 동일
다. 전형일시 및 방법 : 1997. 6. 27(금)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 문화예술대학원(야간) ☎260-3606, 3607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연극영화학과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학과	환경예술

3.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6.2(월)~6.13(금) 10:00~17:00(토, 일요일은 원서만 교부)
4. 전형일시 및 장소 : 1997. 6.21(토) 10:00 본대학원
5.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 필기시험(논술) 및 면접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 각종 장학금 지급제도 있으며 해외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있음

문화예술지도자과정
1. 모집분야 : 문예창작,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
2.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본사 주지급 스님, 언론·문화·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환경·조경 등의 유관기관임직원,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직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 연구과정과 동일
4. 특전 : 석사과정과 동일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증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불자 세상보기

식량 직접전달 합의
남 · 북赤, 투명성 보장도

남북적십자사는 5월 26일 북경 차이나월드호텔에서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물자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절차문제와 지원규모에 대해 최종합의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4년9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남북직통전화가 재가동되고 적십자접촉이 재개됐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16개항으로 구성된 공동합의문에서 한적이 7월말까지 옥수수를 기준으로 곡물 5만톤을 1차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1차 지원 이후 추가지원 문제는 추후 논의해 양측합의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5만톤의 곡물은 북한주민 1백만명이 1백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공동합의문에서 양측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전달계획을 연락하고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남북적십자간 협의를 통해 분배대상지역을 확대하며 △포장지에 한적마크 및 지원자 명기 △IFRC 대표단을 통해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키로 했다.

'죽음의 재' 다이옥신

"국민생명 태울 수 없다"

쓰레기소각장 대부분 기준치 초과…231배 넘는 곳도

"쓰레기 감량 지혜 모을 때"

환경부가 5월 23일 발표한 '소각로 다이옥신 농도 조사결과' 선진국 규제수준인 ㎥당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 이하로 측정된 곳은 서울 목동 신소각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0개 소각로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의정부 소각로의 경우 배출농도가 23.1ng이 검출돼 선진국 기준치보다 23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농도 수치를 발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다이옥신은 생물과 인체 안에 들어온 뒤 분해되지 않고 농축되며 미량으로도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생존을 위협하는 독물질로 분류된다.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거나 T임파구에 장애를 준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세계에서 소각장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일본에서는 유아사망률의 증가, 여성불임의 주요원인인 자궁내막증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차 연소장치 등 소각로 시설을 보완하고 쓰레기 수분을 줄이는 등 연소온도를 높이는 관리를 강화하면 독극물의 발생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백필터와 선택적 촉매환원장치를 갖춘 목동 신소각로만이 기준치에 미달됐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대책과 함께 1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배출농도가 높은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9월과 올 2월 목동과 상계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주민 반대로 가동이 중단됐듯이 일부 소각장의 일시적 가동중단도 예상된다.

정성운 기자



◇수도권쓰레기 시민연대 회원들이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초과배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들교의 눈 "쓰레기 재활용 방법찾자"

환경운동연합 이태일 환경조사팀장은 "정부가 다이옥신 절감기술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정책을 소각위주로 전환하는 바람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며 "소각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가려내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지도자 즉 정부의 도리를 백성들이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과 같이 만민을 위해 근심을 없애주며, 물과 같이 사방을 윤택하게 해주어야 한다."〈잡보장경〉 "국가의 안전을 기하고 정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원한다면, 백성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금광명경〉

시론

돈 안드는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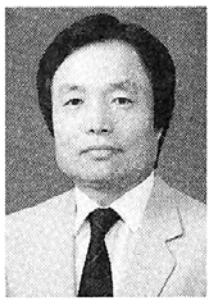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92년 대선에 상상을 초월한 돈이 쓰여졌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루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한다.

주권 포기하는 표팔기

'돈으로 얻은 공천', '돈으로 표를 사는 선거', '돈으로 유지되는 선거구'라고 이름하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곳이 한국의 정치풍토다. 즉 돈이 없으면 절대 정치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정말 고비용 정치구조이다. 그러므로 정경유착의 부패현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금 여·야는 모두 '돈 안드는 정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과 같은 법개정 작업을 통해 외국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폐지를 모색하고 있다.



정 용 길
〈동국대교수 · 정치학〉

그런데 선진국과 같이 '돈 안드는 선거' 또는 '돈 안드는 정치'는 법이나 제도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정치인만 탓할 일도 아니다.

'돈 드는 선거', '돈 드는 정치'의 주범은 돈에 표를 팔아먹는 우리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답게 오로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입후보자가 그들의 아까운 돈을 함부로 쓸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풍토는 돈 쓴 만큼 표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입후보자가 돈을 쓰지 않겠는가?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개혁이다. 국민이 참다운 주인의식을 갖는 일이다. 투표용지는 한 번 써버리는 값싼 종이쪽지가 아니다. 국민인 내가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이다. 도저히 돈 몇푼에 팔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치무대에서 주인의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각 정당의 당원들이어야 한다. 독일정당의 정치자금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 국고보조금, 기부금, 교섭단체위원회비, 자산에 의한 수입, 당사업 또는 출판에 의한 수입, 선거때 배당금등으로 충당한다.

독일정당의 당원은 주인답게 매월 당비를 내고, 또 선거때가 되면 자기가 속한 정당을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같은 큰 정당들의 당원에 의한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 정당 수입의 약 50%나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때마다 막대한 돈을 써 가며 당원을 늘리는 운동을 펼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는 일이다. 독일의 정당원들이 당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몇몇 중앙당 요원들을 제외하면 전혀 주인의식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한국 중앙당 요원들도 사정에 따라 이 당, 저 당으로 당적을 자주 바꾸는 것을 보면 주인의식을 논하기는 커녕 부끄러운 정치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에는 '정당은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독일 정당의 지위에 관해 밝힌 독일 기본법 제21조이다.

이와같이 독일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헌금을 기부한 사람은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독일에서는 당에 수입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회계보고서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이 회계보고서는 경리심사원 또는 경리심사협회의 검사를 받아 독일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연방의 관보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당의 재정상황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치자금의 음성적 역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법은 이와 큰 대조를 보인다.

국민 의식개혁 급선무

이밖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여·야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세(勢)과시와 동원정치의 온상인 정당연설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방송연설회 또는 TV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홍보물의 축소와 공영제 도입, 지정기탁금 제도의 개선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돈 안드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방법은 당리당략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정치는 우리의 사회생활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돈 안드는 정치'야 말로 민주적인 정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하루빨리 국민이 주인의식을 찾아 돈 몇푼에 주권을 파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것이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지계 금주 파계

매달 10만원 적십자회비

● …국회 통일대비의원연구모임(회장 박종웅의원)은 5월 27일 남북적십자회담 타결에 따라 앞으로 대북 구호물자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회원들의 회비에서 매달 10만원씩의 성금을 공제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키로 했다.

'사랑의 팁' 꽃동네에 전달

● …호텔 리츠칼튼서울 직원들이 95년 개관이래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 전액 7천2백여만원을 5월 26일 충북음성 꽃동네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 호텔은 직원들에게 팁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나 서비스에 고마움을 느낀 손님들이 직원들에게 팁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랑의 팁' 상자를 만들어 이를 적립해왔다.

장애인에 PC-승용차 기증

●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사운도피아 97'을 삼성종합기술원과 공동개발, 5월 28일 CD롬 2천 세트를 맹인복지연합회에 기증했다. 효성그룹은 23일 장애아동에게 면학열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의회에 PC 30대를 기증했다. 서울 송파구는 29일 관내 사회단체에서 기증받은 승용차 6대를 장애인에게 전달했다.

'돈정치 추방' 시민연대 결성

●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60여개 시민단체들은 3일 돈정치추방을 위한 범시민 연대기구를 결성, 광범위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다. 연대기구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청원키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혈액형 관계없이 수혈가능

● …한국과학기술원 생물학과 변시명 정성태박사는 사람이나 동물의 적혈구 표면에 있는 혈액형 항원을 특수복합물질로 감싸 혈액형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해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5월 26일 발표했다.

재활용품 모아 북한돕기

●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도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회단체들은 5월 28일 남북적십자사가 합의한 지정기탁제를 활용해 '북강원도' 동포돕기운동에 나섰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청 등은 읍·면·동사무소와 학교별로 종이 빈병 깡통 등 재활용품을 이용해 자금을 만들어 대한적십자사에 지정기탁키로 했다.

3백억대 코카인밀수 적발

● …서울지검은 5월 27일 코카인 10kg을 밀수해 팔아온 혐의로 페루교포 등 7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페루교포 김모씨 등은 지난해 11월 코카인 10kg을 수출용 가공원목에 구멍을 파서 숨겨 들여왔다. 남미에서 직접 마약밀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에 독극물 협박편지

● …식품회사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협박편지가 잇따라 배달돼 경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월 28일과 5월 9일, 15일 등 3차례 협박편지가 배달됨에 따라 용의자인 40대 남자를 5월 26일 공개수배했다.

학교폭력 도박 때문에 자살

● …불량학생들의 구타와 협박을 견디지 못해 대구 ㅎ중3년 권모양이 5월 26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노름과 경마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50대 가장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혼수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에게 안수기도를 받던 교회신도가 숨지자 교회집사 김모씨가 26일 자살했다.

컴퓨터 이용 잇단 지폐위조

● …경찰은 5월 21일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 위조지폐를 제조, 사용한 회사원 최모씨를 적발했다. 경찰수사 결과 최씨는 스캐너로 173장의 위조지폐를 대량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캐너를 이용한 위조지폐는 5월중에만 206장이 발견됐다.

교수 임용 부조리 여전

●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가 5월 25일 발표한 '대학교수 임용부조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161건의 교수 불공정임용 사례 중 총학장과 이사회의 인사권 전횡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정임용심사위' 설치를 제안했다.

대학 2곳 수질오염 위반

● …충북제천 세명대와 단국대 의과대학(천안)이 오수정화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2배와 4배 이상 초과해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3천3백89개를 대상으로 오수정화단속을 벌여 이들 대학을 비롯 7백6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구 혼

이 동 운 (33세,男)

▷ 공무원, 대학원졸
▷ 불교신도중 미혼여성을 원합니다.
(23세~30세 사이 희망자)

연락처 02)584-0342
(19시 이후 전화)

직인 무효 공고

■ 사찰명 : 보문사(불심사)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996년 5월 26일 이전의 보문사 직인과 주지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함.

보 문 사 주 지 행 담

사 찰

■ 위 치 : 경북(읍을 인정한 지역)
■ 평 수 : 480평
■ 건 물 : 대웅전 21평(증축 2년)
요사채 20평(산신각)
■ 가 격 : 2억 9천만원
(사정에 따라 절충가능)

연락처 0578)83-5250

● 대한불교조계종 ●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추가 모집 요강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실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어산과 : ○○명
습의과 : ○○명

■ 교육내용
어산과 :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상주권공 등 작법(바라무, 착복무등)
습의과 : 불전의식(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일반
일용의식 - 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 등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 교육기간
어산과 : 2년(4학기)
습의과 : 1년(2학기)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 교육시간표

'97학년도 1학기 시간표		
요일/과정	습의(習儀)과정	어산(魚山)과정
월요일	18:00~19:30(학교강의실)	19:30~21:00(학교강의실)
수요일		19:30~21:00(학교강의실)/작법
	16:00~18:00(정진관 301호) / 전체 이론 특강	
금요일	18:00~19:30(학교강의실)	19:30~21:00(학교강의실)

■ 응시자격
○ 종헌,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로서
○ 은사스님이나 각 본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추천서(은사스님, 또는 본사의 추천)
4) 반명함판 사진 5매

■ 접수일자 : 1997. 6월 13일까지
■ 면접일자 : 1997. 6. 13 (금) 오후4시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중앙승가대학교 내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교학처 (☎921-3425)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公 告 文

今般 本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 第二代 法主에 現 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 維持財團 理事長 金 慧 洽(信賢)스님이 推戴되었음을 公告합니다.

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 法主推戴委員會
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 維持財團理事會

常務委員 鄭坡南 朴惠耕 咸仁成
金妙仁 任慧光 金仙潭
李天虎 尹慧正

● 委 員 ●

묘덕사 서묘법. 법승사 안법승. 묘수사 신혜용.
묘행사 김묘행. 성불사 강명광. 한림정사 동상렬.
자명사 손자명. 보림사 김덕용. 만봉사 윤만봉.
대원정사 김일원. 연지사 김혜원. 성화정사 김선순.
보현사 이법우. 쌍용사 최명진. 해성사 고장열.
성진사 김현구. 불모사 김학봉. 보현사 이상윤.
대성사 김태명. 길상사 이지담. 옥류사 이길용.
천양사 방수현. 혜명사 이혜명. 용봉사 김태봉.
덕산사 권해래. 천수사 박태환. 덕용사 손상수.
금용사 이소득. 수복사 최정순. 대불사 장해돈.
법륜사 윤혜원.

1997年 5月 15日

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叢務院
서울市 城北區 三仙洞 2街 233番地
전화 (02) 763-8061 / 전송 (02) 742-2241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⑧

향엄의 나무위 사람

香嚴和尙云, 如人上樹, 口銜樹枝, 手不攀枝, 脚不踏樹, 樹下有人, 問西來意. 不對則違他所問, 若對又喪身失命. 正恁麼時, 作麼生對.

無門曰, 縱有懸河之辯, 總用不著. 說得一大藏教, 亦用不著. 若向者裏, 對得著, 活却從前死路頭, 死却從前活路頭. 其或未然, 直待當來問彌勒.

頌曰, 香嚴眞杜撰, 惡毒無藏眼. 亞却衲僧口, 通身迷鬼眼.

*향엄화상이 말했다. "가령, 누가 나무에 올라 갔다고 하자. 손으로 가지를 잡지도 않고 디디고 선 발판도 없이 다만 입끝으로 가지를 물었다. 그때 나무 아래서 누가 '달마가 서쪽에서 건너온 뜻'을 묻는다면 어떨 것인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대답하려 한다면 떨어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 혜개가 말한다. "은하수를 풀어먹이는 달변도 소용없고, 팔만 사천 법문의 해설도 도무지 소용없다. 만일 여기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때까지 죽어 있던 길을 살려내고, 이때까지 살아 있던 길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정거린다면, 먼 훗날의 미륵을 기다려 구걸할 밖에."

*송하여 가로되, "향엄은 정말 엉터리라, 잣굿기가 한이 없어. 납승의 입을 틀어막아, 온몸에 도깨비불 번쩍거리게 하네."

향엄(香嚴智閑 ?~898)은 앞에서 본 여우의 주인공 백장의 제자이다. 그의 깨달음은 간고한 데가 있다. 총명한 자질에 학식이 뛰어났던 향엄은 처음 백장 문하에서 수년을 지냈으나 근본 소식을 뚫지 못했다. 백장이 천화(遷化)하자, 사형인 위산(山靈祐 711~853)에게 갔다. 위산이 묻는다. "듣자니 자네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열을 물으면 백을 대답한다는데, 그런 잡다한 지식을 떠나 생사의 근본과 부모가 태어나기 전의 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어디 말해보라." 향엄은 눈 앞이 아찔했다. 숙소에 돌아와 그 동안의 저작과 노트를 다 뒤적여 보았어도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향엄은 탄식하며 위산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위산은 냉엄하게 거절했다. "얘기를 해 줄 수는 있다. 허나 그랬다간 나중에 틀림없이 너는 날 원망할 것이다." 매몰찬 대답에 향엄은 인연없는 불법을 한하며, 그저 유랑 걸식승으로 한 세상 마치겠다며 울면서 위산을 떠났다. 각지를 떠돌다가 남양(南陽) 혜충국사(慧忠國師)의 유적 근처에 처소를 정했다. 여느때처럼 밭에 나가 풀을 뽑고 김을 매고 있는데, 무심코 집어던진 자갈 하나가 대나무에 부딪쳐 딱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예기치 않은 소리에 문득 향엄의 칠통같은 마음이 열렸다. 부모 이전의 자기를 선연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목욕재계하고 향을 피워 위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 은혜 부모보다 높습니다. 그때 만일 친절을 베푸셨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위앙종(위仰宗)의 종풍은 독특한 매력이 있다. 임제나 운문처럼 험준하거나 날카롭지 않고, 조동(曹洞)처럼 면밀하거나 재치있지 않으며, 법안(法眼)처럼 사려깊거나 폭넓지 않다. 그러면서도 장강의 깊이를 갖고 있다. 향엄의 이 예가 그 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족을 붙이기 전에 제기된 이야기의 후반부를 덧붙여 주는 것이 좋겠다. 향엄이 이 질문을 던지자, 호두(虎頭)라는 사람이 성큼 나섰다. "나무 위에 올라간 뒷일은 제쳐두고, 나무에 올라가기 전의 일을 말씀해 주시오." 이 말에 향엄이 가가대소했다. (是時有虎頭上座, 出問, 上樹卽不問, 未上樹時, 請和尙道. 師呵呵大笑.)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무 위의 일은 무엇이고 나무 아래의 일은 무엇인가. 호두의 대답에 왜 향엄이 가가대소했는가. 이를 두고 누가 이렇게 읊었다. "향엄은 괜시리 나무 위로 올라가 평지 풍파를 일으켰고, 나무 아래서 근원을 궁구해 호두에게 웃음으로 답했다. 나무 위에 올라 향상의 도리를 밝힐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어찌 나무 밑 고요의 사바하만 같겠는가.(雪竇拈頌, 香嚴樹上鼓風波, 樹下窮源笑答他. 上樹更能明向上, 爭如靜處薩婆訶)" 이 이야기를 듣고 〈벽암록〉의 저자 설두(雪竇)가 나서서 이렇게 자신했다. "나무 위에서 대답하기는 쉽지, 나무 밑에서 대답하기가 어렵다.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갈테니 어디 한번 물어보시구려(樹上道卽易, 樹下道卽難, 老僧上樹也, 致將一問來)"

여기에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향엄',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의 소식을 알려 달라는 '호두', 그리고 한술 더 떠, 가지를 물고 대답하는 것쯤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설두'가 그들이다. 〈선문염송(禪門拈頌)〉에는 개암 붕(介庵 朋) 화상이 낸 이런 수수께끼가 실려 있다. "황당무계한 소극(笑劇)의 주인공들은 모두 도적이다. 그 중 하나는 진짜 도적이요, 또 하나는 도적에게 사다리를 건네준 놈이고, 또 하나는 앉아서 장물을 챙긴 놈이다. 과연 누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겠는가. 이들을 가려낼 눈이 있다면 향엄의 진짜 속을 읽을 수 있을 것인 바, 생사의 쳇바퀴로부터 벗어날 길이 거기에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달변 소용없네…죽은길 살려라"

도적들의 수수께끼 풀면 생사 쳇바퀴 벗어나

法數로 배우는 불교

〈18〉

삼학(三學) (下)



◇범주스님 선화

지혜 세계를 있는그대로 볼 수 있는 빛

집착 사라진 무상·무아의 열반경지

위빠싸나(Vipassana) 수행법은 '꿰뚫어봄'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불교수행의 핵심이 바로 여기있다. 깊이 몰입되어 자기를 잊은게 아닌, 있는 그대로의 마음 흐름을 보는 것이 깊고 예리하게 지속되어 깨어있는 상태이다. 요즘은 위빠싸나라고 하면 남방불교의 수행법을 가리키는 말로만 알고 있는데 불교의 모든 수행은 대 소승을 막론하고 다 위빠싸나인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남방불교의 위빠싸나 수행이 몸과 느낌과 마음법을 밀밀하게 수평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라면 대승불교의 위빠싸나 수행은 마음 하나에 촛점을 두고 관찰하여 몸과 느낌과 법을 깨닫게 하는 찾이가 있을 뿐이다. 자신의 마음을 보려는 사람은 대상에 마음이 흡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상을 보는 주체로서의 마음을 보려하기 때문에 자연히 번뇌의 흐름이 차단되어 돌이켜 비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학의 이룸이다.

삼학 가운데 세번째인 혜학(慧學)은 지혜를 닦는 것이다.

혜는 인도어 프라냐(prajna) 즉 반야를 해석한 것이다.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이란 자신과 세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 생·로·병·사의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경지이다. 온갖 번뇌와 무지속에 가리워져 맹목적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스러지고마는 생명의 한계로부터 훨훨 벗어나 대해탈 대광명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혜는 자신과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햇빛같은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와는 다르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흔히 분석하고 추리하고 발명하는 지식적 지혜로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깨치지 못한다. 하지만 계와 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혜는 전체적인 속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상의 윤리인 계를 지키고, 알고 꺼지는 자신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관찰하여 깊은 선정에 이르게 되면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던 의식들이 홀연히 깨지면서 중생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수행에 있어서 혜에는 보통 네가지가 있다고 한다.

부처님 설법을 듣거나 경전을 읽고 알게되는 이론적 지혜인 문혜(聞慧), 문혜를 스스로 사색해보고 연구해서 확신하게 되는 지혜인 사혜(思慧), 문혜와 사혜를 생각이나 사상으로써만 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 실천해서 얻게되는 지혜인 수혜(修慧), 수혜를 더욱 쌓아 완전히 모든 것을 환히 알아버린 지혜인 증혜(證慧)가 그것이다. 근본불교에서는 지혜가 열리면 모든 법은 무상이요 무아요 고통이라는 것을 투철히 알게되어 일체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 안온한 열반의 경지를 누린다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지혜가 열리면 현상적으로 무상이요 무아요 고통인 것 같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법이 진여요 청정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일체에 대한 차별심이 사라져 본래가 모두 열반임을 보게된다고 한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공성(空性) 불성(佛性) 여래장(如來藏)으로 취급하기도 하면서 절대화 시키기도 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⑪

무한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⑰

불교는 무한세계를 한묶음으로 인식

자유로운 사유 무한넘어 완결에 접근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생활이 단순한 시절에는 기껏해야 이것, 저것, … 정도가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오지의 원시사회에서는 지금도 하나, 둘, 많다 정도의 수만을 갖고 살고 있다. 3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그저 많다고 할 뿐이다. 이 사실은 어린이의 수 세계를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하나, 둘, 그리고 많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정도로 수를 표시한다.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발전한 인간은 1, 2, 3, … 백, 천, 만, …으로 수를 확장해 나갔다. 상당한 수준의 문명사회가 되어도 만, 억 정도면 충분했다. 이때 어느 천재가 스스로 물었다. 도대체 수는 얼마나 커질 것인가? 분명히 얼마든지 수는 커 갈 수 있다. '얼마든지'라는 뜻은 무엇인가? 조금 똑똑한 사람이 대답한다. 그것은 '무한'이다. 무한이란 무엇인가? 지금도 전문적인 수학자, 철학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그저 '무한이면 되지 그 이상 쓸 데 없이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해서 그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이가

1, 2, 3, 많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라고 하는 것, 또는 원시 사회에서

1, 2, 많다, 많다, …

라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는 일이다.

1, 2, … 무한이라는 것과

1, 2, 3, … 만, 억 …, 무한이라는 것 사이에 후자에게는 좀더 많은 수가 등장할 뿐이고 결국에는 무한으로 낙찰되는데 이들 3자 사이에는 근본적으로는 별다름이 없는 것이다.

다만 많다, 또는 무지 많다는 말을 무한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1, 2, 3, … 무한으로 커져 간다는 것과

1, 2, 3, …을 한 덩어리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적인 수 체계는 아승기(阿僧祇), 나유타(那由他), 불가사의(不可思議) 무량수(無量數)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무량수는 크기는 하지만 1부터 시작되는 수의 연장선에 있는 유한의 수이며 무한으로 뻗어가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을 한 묶음으로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1, 2, 3 …, n으로 그친다면 아무리 n이 큰 수일지라도 유한이다.

1, 2, 3, …은 무한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동적인, 말하자면 무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1, 2, 3, …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고 할 때는 완성된 무한이다.

조금 혼동하기 쉬움으로 좀더 자세하게 이들 두 무한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1) 1, 2, 3, …… → 무한으로 커가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2) {1, 2, 3, ……}을 끝까지 포함하는 한 덩어리를 생각하는 것을 완성(완결) 무한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보거나 듣지 못한 사실도 머리 속에서는 생각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그 존재를 확립할 수 있다. 이때 순수 사유의 철학적 세계가 전개된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한의 시간 위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유한의 인간이 어떻게 계속 무한으로까지 수를 셈할 수 있는가? 또는 완성된 무한은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철학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부처가 되는 인간은 단순한 생물적인 존재가 아니나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의 대상에는 무한도 포함시킬 수 있다. 자유로이 사유 세계를 넘나들고 유한의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는 경지가 '무애(無碍)'이다.

불교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유한세계의 극점에까지 생각하고 다시 그곳에서 무한 세계를 넘어간다. 이 성을 지렛대 삼아 상식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비약을 한다.

가령 〈법화경〉에는 지용(地涌)의 보살 수는 5만 항하사(恒河沙)로 돌출했다. 또한 각 하나의 보살에는 5만 항하사의 시종이 이어져 있다. 이 논리를 계속 전개해 가면 한 사람의 시종에 또 5만 항하사 만큼의 그 아래 종자(從者)가 있고, 또 그 아래…라는 식으로 분출되는 수의 가능성은 무한으로 뻗어 가고 있다.

여기서 이들 거대한 무한 세계 모두를 한 묶음으로 인식, 파악하는 이성(부처의 지혜)의 존재를 알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불교적인 지혜는 가능한 무한 세계를 넘어 완결된 무한에 접근하는 것이다. 불교적 사유에서는 늘 이 문제를 다루며 그 가능성을 따진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인국동로터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시방세계

"무엇이 우리를 이롭게 하나"



〈컴퓨터그래픽 = 부디피아〉

세계 환경의 날 서울선언

팔만대장경과 해인골프장

골프장건설 반대 1백만명 서명
대법원 상고…"환경우선 결정을"

92년 6월 경기도 용인군에서 양돈업을 하던 퇴직공무원 이모씨(73)는 산능선 건너편에 위치한 골프장 개발업체를 상대로 6천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돼지우리에서 1㎞ 떨어진 골프장 건설공사장에서 터져나오는 발파폭음과 진동으로 자신의 씨받이돼지 21마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 유산 불임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골프장측은 발파소음이나 진동이 우둔한 돼지를 탈나게 했을리가 없다고 맞섰다. 이렇게해서 '골프장과 돼지'는 환경조정위원회의 법정에 들어오게 됐다.

조정위는 6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당시의 소음-진동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치이다. 돼지는 사람보다 외부반응에 민감하다. 따라서 돼지는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6천8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당시 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돼지와 대화할 수 있었다면 결론을 얻기까지 반년 넘게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골프장과 팔만대장경'이다.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및 관전과 대화할 때가 닥치고야 말았다. 골프장 건설로 팔만대장경과 관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얼마치의 배상액을 결정할까. 아마 배상액을 결정치 못할 것이다. 또 배상으로 마무리될 문제도 아니다.

골프장과 팔만대장경이 문제가 된 것은 90년초 성주군이 농어촌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경북 성주군 백운리 산66번지 일대에 골프장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주)가야개발을 국립공원 개발 사업주로 지정하면서부터였다. 이후 경상북도는 94년 12월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해인사는 문화체육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95년 7월 가야개발에 대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야개발은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은 96년 6월 사업계획승인취소재결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법의 결정이 있자 해인사와 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각계에 해인골프장 건설의 취소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등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4개월만에 1백만명의 국민이 참여,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반대의 국민여론을 확인시켜 주었다. 학계 종교계 정·관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110인의 '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건설 전면백지화 선언'을 비롯해 각계의 반대성명도 잇따랐다.

현재 이 사건은 문체부와 해인사에서 고법결정에 이의를 제기,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 결정될 지 아직 모른다. 다만 문체부와 해인사에서 제기한 경북도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치우친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불법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체로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 맹독성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 생태계 파괴, 문화유적지 훼손 등으로 분류된다. 해인골프장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박상진교수(경북대 임산공학과)는 골프장 건설은 해인사주변의 공중습도조건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해인사 주위는 식물의 생태환경에 알맞은 공기유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인사의 생태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골프장 건설 후 개활지를 통과한 바람이 경관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각으로 유입되었을 때 공기중의 상대습도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지금까지 안정되어 있던 경판의 목재함수율에 교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급작스런 경관의 과건조를 불러일으켜 경판이 갈라지고 비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루 2300톤 지하수
년 7.5톤 농약 사용
환경피해 '불보듯'

"생태계 변화 초래
대장경판 과건조
갈라지고 비틀어질
가능성 많다"



◇"산이건 물건이건 그대로 두라" 해인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돌자 1천여명이 지난해 7월8일 해인사 부근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48만평 18홀 규모로 계획된 해인골프장의 경우 년간 7.5톤의 농약이 살포될 것으로 추정되며, 골프장 잔디보호-유지용으로 1일 2300톤의 지하수 사용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의 고갈도 우려된다.

대장경 및 관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골프장 예정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농사를 지어 가업을 잇는 고령을 4만여명의 식수와 덕곡면 일대 농경지 190만평의 농업용수가 위협받을 지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덕곡면주민대표 도영환씨는 "년간 7.5톤에 이르는 농약사용으로 고령군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고령군민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농작물 또한 오염되어 임금님께 진상되던 덕곡쌀은 더이상 빛로를 잃고 말 것"이라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의 강산을 후손대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침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이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다. 이 날을 전후해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들은 환경주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펼쳐 환경의식의 제고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지구환경보전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할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을 각국 정부대표 및 환경단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다. '서울선언' 전문에서는 "자연을 정복과 조종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탐욕을 충족시키려 하는 한 지구환경의 피폐는 필연적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실천강령에는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히 시행하며, 예측이 불확실하면 개발결정을 유보토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해인골프장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 팔만대장경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다. 생태계의 파괴와 인명의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팔만대장경의 훼손은 세계인의 유산을 빼앗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명하다. 문화유산과 삶의 터전을 온전히 보전키 위해 골프장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것뿐이다. 가장 적은 비용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정성은 기자

최선의 선택

골프장 건설 백지화뿐

환경부는 5일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에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예측이 불확실하면 개발결정을 유보토록 한다"는 실천강령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선언'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지는 '팔만대장경과 골프장'이 그 척도가 될 것이다.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목소리는 1백만 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마음깊은 뜻을 무엇일까.

"가야산이 갖는 중요성은 국내명산으로 일컬어지는 금강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인골프장이 신설된다면 중맹독성 농약이 년 7.5톤이나 살포된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물론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또한 48만평의 잔디보호와 유지를 위해 1일 용수량 2천30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뽑아써야 함으로 산등성이 하나 사이로 있는 해인사쪽의 지하수 감소현상을 불러와 지반의 붕괴위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고 등의 균열이나 부식부패없이 영구히 보존하지 못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인골프장 관련 주요일지

90년	성주군, 가야개발을 가야산국립공원 개발사업주로 지정
94.12.24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95. 3.18	골프장 건설저지 고령군민 궐기대회
95. 5.27	해인사 총림대책위 결성
95. 6.22	불교범종단 대책위 결성
95. 7. 5	문체부,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취소
95. 8.24	가야개발, 서울고법에 사업계획 취소처분 취소소송
96. 6.19	서울고법, 취소처분 취소 결정
96. 6.28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백지화 요구 대구지역 40개 사회단체 공동결의문 발표
96. 7. 1	해인골프장 백지화 요구 각계 대표 110인 해인골프장 백지화 요구 선언발표 및 기자회견
96. 7.18	해인골프장 전면백지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 시작
96. 9.18	해인사 문체부, 대법원에 상고
96.11.14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 1백만명 돌파



◇사진 오른쪽 끝에 해인골프장 사업주 소유의 '국민호텔'이 보이고, 그 왼쪽 산허리 48만평이 골프장 건설 예정지이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언어품(言語品) ②

解自抱損意 해자포손의
不彈言得中 부조언득중
義說如法說 의설여법설
是言柔軟甘 시언유연감

스스로 해꼬지할 생각 풀어버리고
경솔하지 않은 말로 중도에 들어
이치로 말함이 법다운 말이 되면
이런 말은 부드럽고 달기도하다

是以言語者 시이언어자
必使已無患 필사기무환
亦不觸衆人 역불극중인
是爲能善言 시위능선언

그러므로 말이란 것은
반드시 제겐 후환이 없게하고
다른 이를 다치지 않아야하나니
이것이 잘하는 말 좋은 말이 된다

言使投意可 언사투의가
亦令得歡喜 역령득환희
不使至惡意 불사지악의
出言衆悉可 출언중실가

말을 뜻에 맞게 쓸줄 알아

"지성스런 말은 법다워 허물이 없어 제겐 후환없고 남 다치지 않게한다"

상대가 즐겁게 듣도록 하고
나쁜 뜻에 이르지 않게하면
하는 말마다 모두다 좋은 말이 된다

至誠甘露說 지성감로설
如法而無過 여법이무과
誠如義如法 체여의여법
是爲近道立 시위근도립

지성스런 감로의 말은
법다워서 허물이 없고
이치가 이치답고 법다우면
이는 도에 가까웁다 하느니라

說如佛言者 설여불언자
是吉得滅度 시길득멸도
爲能作浩際 위능작호제
是謂言中上 시위언중상

그 말이 부처의 말과 같은 이
경사로이 열반경지에 들어
능히 큰 법을 이루나니
이를 일러 말중의 으뜸이라 한다

쌍요품(雙要品) ①

心爲法本 심위법본
心尊心使 심존심사
中心念惡 중심념악
卽言卽行 즉언즉행
罪苦自追 죄고자추
車轢於轍 거력어철

마음은 일체법의 근본이 되어
마음이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 속에 악한 생각 품어지니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즉
죄의 고통이 스스로 따라 붙어
수레가 바퀴자국 따르듯하네

心爲法本 심위법본
心尊心使 심존심사
中心念善 중심념선
卽言卽行 즉언즉행
福樂自追 복락자추
如影隨形 여영수형

마음은 일체법의 근본이 되어
마음이 주인으로 모든 일 부리니
마음속에 착한 생각 품어지니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즉
복의 즐거움이 스스로 따라붙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네

隨亂意行 수란의행
拘愚人冥 구우입명
自大無法 자대무법

何解善言 화해선언

어지러운 뜻을 따라 행하고
어리석음에 얽매어 어둠에 빠져서
스스로 잘난척 법을 모르면
어떻게 선한 말씀을 깨달으리오

隨正意行 수정의행
開解淸明 개해청명
不爲妖嫉 불위투질
敏達善言 민달선언

바른 뜻을 따라 행하고
맑고 밝음을 깨우쳐 알고
투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
선한 말씀 빨리 통달하리라

惱於怨者 온어원자
未嘗無怨 미상무원
不惱自除 불온자제
是道可宗 시도가종

원한가진 이에 성을 내면
원한 없기를 바랄 수 없다
성내지 않으면 스스로 없어지니
이 도는 으뜸 삼을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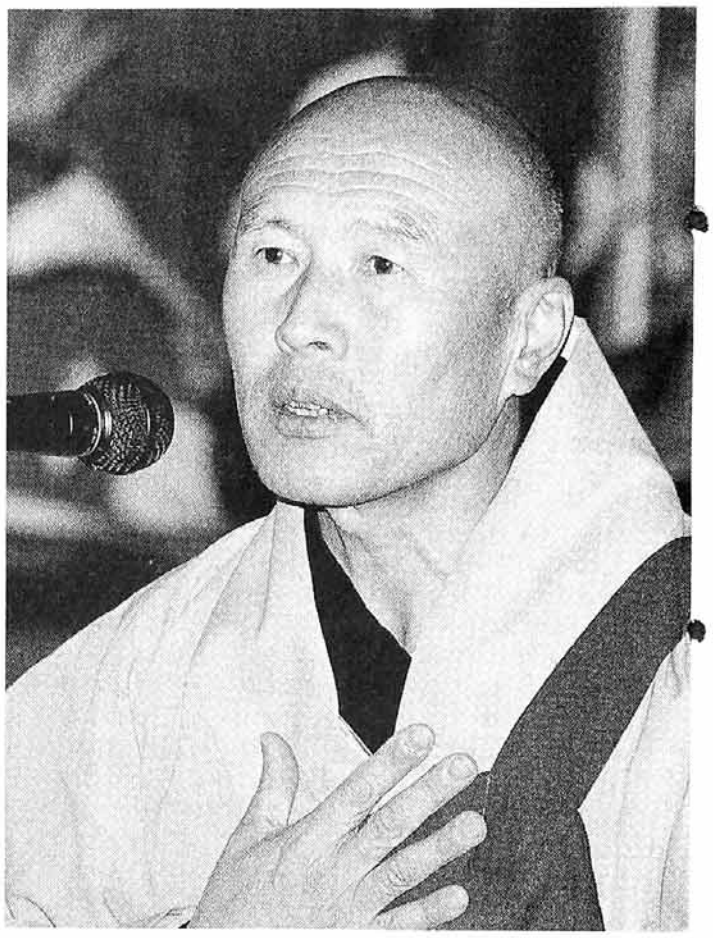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오늘 내 행동 하나하나

우룡스님 〈학성선원 한주〉

"제대로 살려면 인생가계부 쓰자 복짓기 보다 죄많이 지으면 적자"



- 20년 일본서 출생
- 47년 해인사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 55년 동산스님 계시로 구족계 수지
- 20여년전부터 울산 학성선원 한 주로 주석

모든 법은 연을 좇아 생겨났다가 연이 다하면 흩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이 닿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속가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인연따라 그렇게 된 것일뿐 특별히 무엇이 달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루어준다는 것이 벌써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단 그렇습니까?

47년에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일본에서 생활하셔서 형제들 모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도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복되면서 돌아오게 되었죠. 빈털털이로 돌아오니 부모님과 여섯남매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해인사에 출가해 있던 외숙부가 왔는데 나보고 공부하러 가자고 하시데요. 그때는 공부라는 말이 그냥 글 배우는 학교공부로 생각했고 부친께서도 그러라고 하셔서 따라 나선게 내 출가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라 내가 출가한 이후로도 집안이 펴지질 않고 어려우니 내가 20대 중반이 되자 부친께서 이제 그만 속가로 와서 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출가인연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부친이 12살 때 조부님 심부름을 가다가 고개턱에서 한 스님과 마주치셨답니다. 그때는 마을에서 울면 스님이 잡아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님을 무서운 존재로 느끼던 시절이라 어린 부친은 덜컥 겁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스님은 부친께 당신을 따라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하더랍니다. 부친께서 안된다고 하니 몇가지 집안에 관계된 일을 예견하시면서, 지금 부친이 절에 공부하러 가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중에 스님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던 길을 가셨답니다. 부친께서는 그 스님께서 큰 도인이시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인연의 줄기란 참으로 단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출가를 해서 고봉스님께 경학을 배웠습니다. 손꼽히는 학자이신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경학을 마치기까지 장애가 많았습니다. 내가 배우고자 해도 자꾸 어떤 사정으로 인해 중단이 되곤 해서 62년에서야 비로소 청암사 극락암에서 고산스님과 함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봉스님은 항상 나에게 선(禪)을 주춧돌로 하는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생활을 하든 교학을 배우든 항상 그 중심은 선에 두고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생활일선에 뛰어든 포교보다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선을 중심삼아 살고 있습니다.

이곳 학성선원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선방에서 공부하던 그 당시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사람들과 함께 불성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불법보다는 생활 가까운 불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상속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으로 염불이든 기도든 참선이든 부지런히 정진하다 보면 자연히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사람 모두 부처될 거룩한 존재 서로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불성 주춧돌 놓는 시발점 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 같이 부처될 가능성을 가진 부처님의 제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부처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 집안의 가풍에 맞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자신의 생활을 돌아봐야 겠습니다. 부처될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불자라면 나의 일상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고 있는지를 늘 반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절에 머무를때는 부처님의 제자이지만 절문을 나서면 불자인지 무종교인인지 분별이 안되는 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불자는 마음의 주춧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가지 주춧돌이 있습니다. 물거품 주춧돌과 불성의 주춧돌이 그것입니다. 불자라면 불성의 주춧돌을 바로 세우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불성의 주춧돌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불성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소리도 없고 그러면서도 펄펄 살아있는 어떤 기운같은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 불성을 시작도 끝도 없고 가고 옴이 없기에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했고, 때가 끼는 일이 없고 더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불구부정(不垢不淨)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나가 평등하고 한결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증불감(不增不減)이라고 했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여여한 경지인 불성자리를 찾아 가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불성을 자기 스스로 수용하는 자수용(自受用)의 세계를 체험해 보십시요. 그 체험을 통해 절대유일의 불성자리로 돌아가서 살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불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속의 불교 (124)

깨달음의 길에 기발한 손자병법은 없다!

"물이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이 누구라도 끝내는 성불하고 말 것이다. 물이 흐르다가 갖가지 용도로 쓰여져 그만 흐르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는 바다에 이르듯이 인간도 탐심 진심 치심 망심 따위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다가도 결국은 성불의 바다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의심치 않고 두려워 하지 않고 초조해 하지 않는다면 나의 참 근본은 곧 부처이니 나의 뜻과 부처님의 뜻이 하나로 돌아갈 때가 찾아 오리라."

얼핏 생각하기에 진귀한 보물은 산 넘고 물 건너 머나 먼 곳 어디에, 낯 설고 은밀한 곳 어디 쯤에 있을 것 같이 여겨진다. 고로 보물을 손에 넣으려면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게 된다.

보물을 손에 넣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개는 빠른 방법, 지름길을 적어 놓은 보물지도부터 찾아내야 한다고 믿는다. 자연히 두리번거림이 시작된다. 여기 저기 기웃대게 된다.

그러나 바로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살림살이 중에 길이 있고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다. 갑에게도 있고 을에게도 있다. 유식한 사람, 잘난 사람에게만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삼이사(張三李四) 누구에게라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법등명 자등명(法登明 自登明)은 속임수가 된다.

두리번거림은 믿음이 약한 탓이다.

누구라도 끝내는 성불하고 말 것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약한 탓이다.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 보낸 탓이다.

길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깨달음의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부처님에 의해 오래 전부터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 더우기 그 길은 우회로가 아니라 직행로이다. 그리고 그 길은 내 마음 안으로 훤히 열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를 때에 숨을 고르며 묵연히 한 발 한 발 떼어놓듯이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

이 골 저 골 골마다 들어가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열려진 길로 소걸음처럼 걸어가면 된다. 그것이 믿음이요 정진이다. 거기엔 두리번거림이 없다.



구비 구비마다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 길도 다듬어져 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장광설이 그것이다. 거기엔 갑을 위한 가르침도 있고 을에게 알맞는 가르침도 있다. 오늘에 맞는 가르침도 있고 내일의 경계에 닿는 가르침도 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고로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육사외도(六邪外道)를 두루 섭렵하시고 마침내 큰 깨달음에 들어서서 제시하신 길 이외에 다른 무엇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이다. 믿는 마음에 틈이 생긴 것이다.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에서 그 도정(道程)의 길다 짧다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은 묵연한 발걸음-정진을 방해한다.

어디 탑을 쌓는 데 단숨에 쌓아 올릴 방법이 있겠는가. 밑에서부터 한 층 한 층 정성을 기울여 쌓아 올리는 길 밖에는 없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서 빠르다 늦다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바른 길로 가는 수행을 방해한다. 빨리 가고자 하면 길을 잘못 들기 십상이고 더딘 것을 탓하면 주저앉기 쉽다. 묵묵히 참구하고 정진하는 것, 그것 이외에 왕도는 없다. 마음 공부에서 기발한 병법은 없다. 애초부터 손자병법 같은 것은 없다. 있다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육바라밀·팔정도가 있을 뿐이다.

일찍이 조사스님들이 애쓰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 다가 다리를 놓고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넓히고자 한 것이지 또 다른 지름길을 여신 게 아니다. 설사 새 길을 열어 놓은 듯이 보여도 그것은 직행로가 아닌 우회로일 뿐이다. 길은 부처님께서 열어 놓으신 마음의 길 그것 뿐이다

자성불을 믿고 내 마음, 내 살림살이로 눈을 돌려 참구하고 정진하는 것, 그것이 마음공부의 손자병법이다.

협찬 : 홍 인 숙

큰 스님 수행한담

씨앗되어 열매 맺힌다"

"이웃에 보답하는 생활 하세요 베풀지 않으면 빚덩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 불성자리로 돌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일여의 불성이 잠시도 우리와 떨어져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불성을 나는 '가능성'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 노력에 따라 크게 개발 할수도 있고 적게 개발할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곧 불성입니다. 불성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개발하려는 나의 노력과 향상하려는 나의 의지 여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 가능성은 모든 중생에게 한결같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자신에게 이미 존재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실히 인식하여 믿고 그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평등하고 여여한 불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춧돌을 불성의 주춧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불성 주춧돌 위에 서서 우리가 복잡한 현실속에서 참으로 불자답게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계부를 잘 쓸 것을 당부합니다. 가계부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 계산만 하지 말고 인생 전체를 회계하는 인생 가계부를 잘 계산하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인생 가계부의 수입은 복을 짓는 일이고 지출은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은 적게 짓고 재앙만 늘리면 적자인생입니다. 설사 지금 사는 형편이 전생에 지은 적자인생으로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요. 이제부터라도 금생 가계부를 착실하게 잘 운영하면 삶이 펴질테니까요. 불성의 주춧돌 위에서서 물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사세요. 물질에 한없는 애착을 일으키면서 내 몸과 마음과 대우주의 주춧돌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결국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제발 겉모습에 속지 말고 물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나의 상좌가 찝차를 한 대 장만했습니다. 그 때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나는 지금 자동차를 산다면 엑셀 중고차를 마련할 거야"라구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한결같이 "스님 체면에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체면은 또 무엇이냐"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짧은 대화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 나라는 물질로 값어치를 따지는 나라,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착각을 하며 사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병폐들과 문제들은 불성을 인생의 주춧돌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무시하고 남을 무시해 버립니다. 불성에 대한 확신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불성이 참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무상한 몸뚱아리를 나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 상대가 부모든 형제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서로 헷고 싸우고 살인까지 서슴치 않게 되는 이 모든 현대의 문제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불성을 지닌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 위대한 불성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모 형제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지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차 부처가 될 존귀한 분들을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교를 타종교에서 하듯이 절대자를 부처로 정하고 그것을 믿는 가르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불성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절하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각자에게 있는 불성을 확신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한 과정인 것입니다.

불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참선, 염불, 기도, 경전공부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혹자들은 참선이 바른 길이고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하고 혹자는 염불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공부방법으로 하더라도 귀결점은 같은 것이며, 다른 것은 각자 노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의 생활속에서 부모나 자식에게 행하는 말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를 부처로 생각하고 아침저녁으로 공양하고 내 아들딸을 부처로 보고 생활속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지마다 부처님으로 대우할 때 바로 일상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고 또 한걸음 한걸음 그곳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 곁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일상속에서 내가 주변의 고마움에 얼마나 보답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주변을 내 욕심 채우는 것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살펴보아도 금방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자식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에 얼마나 맞춰 주는지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모든 것이 결국은 빚덩이가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베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 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빚을 갚듯이 그렇게 당연하게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주변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진정한 불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할 때 경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저 멀리있는 얘기로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서 겪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법도 그러합니다.

늘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멀리 근사한 것에서 불법을 찾지 말고 일상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찾아 가야 합니다. 현재의 내 행동 하나가 바로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리십시요. 그렇게 자신을 단속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므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통해 지혜의 눈을 떠서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펴며 살아야 겠습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일상생활속에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불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는 우룡스님. 스님은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하다 어렵게 응했다.

불자는 부처님 집안사람답게 가풍대로 진리의 소리듣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대로 실천해야

불성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향상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결실보는 열린 자리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진·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인간복제' 불교와 모순 없나요

문 과학자들에 의해 양의 복제와 원숭이의 복제가 이루어졌고 머지않아 인간복제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인간복제가 이뤄지면 창조론을 내세우는 종교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지만 불교의 가르침과 인간복제는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요.

〈김상태 · 경북 청송군 진보면〉

답 〈현대불교신문 4월 30일자 2면에 요약게재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세미나(5월 9일) 발표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우선 긍정론은 불교의 생명본을 근거로 합니다. 물질과 생명이 둘이 아니므로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생명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정론은 복제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또하나의 죄악일뿐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마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교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일단은 인간복제를 불허하자는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성향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실험실의 루테타를 통해 반론의 벽을 깨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과학은 많은 경우에 가치판단을 유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복제가 제도적으로 억제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 나름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바른 지견을 갖는 일은 중요할 것입니다.

불교의 생명관은 불이(不二) 무아(無我) 오취온(五取蘊) 업식, 윤회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론 물질까지도 본래는 둘이 아니어서 '나'라고 할 고유의 실체가 없는 오취온의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인간복제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든가 생명경시 문제는 인간 위주의 생명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오히려 불교적인 생명관을 재인식하는 차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따른다해도 업·윤회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인간을 복제했을때 유전적인 정보도 복제되겠지만 복제인간의 업·윤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불타의 교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는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부정론의 논지는 인간복제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강한 의구심에 근거합니다. 가령 인간을 공산품처럼 찍어내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혹은 불치병 연구나 장기이식등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생명체를 부품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스스로 원치 않았던 생명체를 복제라는 형식으로 태어나게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따릅니다. 이 문제는 일견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명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서구에서는 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 내지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기독교적 사고로 보면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쳐지고 있지만 그것은 다분히 인간 위주의 이기적 생명관 내지는 교조적인 신앙관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곧 인간완성·불타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에 있으며, 모든 존재는 실유(實有)가 아니라 다만 가유(假有)로써 연기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생명창조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본질적인 의문을 화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업은 처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 우주의 근본이 영원한 생명에 너지라면 거기서 어떻게 업식이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견성을 해서 본래의 성품자리를 깨달으면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강명숙 · 경북 포항시〉

답 부처님께서는 제법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본래 '나'라고 할 실체는 없는 것이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다만 망념이 빚어낸 거짓 존재, 꿈같고 그림자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공(空)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흔히들 처음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시이래(無始以來)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을 알 수 없는 처음'이라는 뜻인데 그 말씀은 바로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처음과 끝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은 우리의 망념이 빚어낸 생멸의 시간일 뿐이지 실은 시간도 공입니다.

한생각 일어났다 사라졌다하는 그것을 관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고 죽는 이치로 보면 끝없는 나툼이 있을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 법륜사 대중처소 입주 안내문 ●

지혜와 소원성취는 부처님 도량에서

삼보귀의 하소서!

급변하는 사회적인 제도하에 대가족적인 공경심과 孝의 미덕이 핵가족 및 물질만능에 가려 참된 성품을 잃고 하루가 일년같이 빠른속도로 변화하는 얼키고 설킨 시대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나","我"라는 高貴한 존재가 망각되고 잃그러져 가정,사회,직장 어느곳 요소마다 불안한 현실안에 "삶"과 함께 잠재해 있으므로 어느때 어느시 질병,초조,갈등,번뇌가 겹쳐 허무가 닥쳐올지? 우리 붇자님께서는 "삼보"를 의지삼아 마음의 거울을 닦아 과거,현재,미래 生의 삼세 苦를 멸하시여 성불성취 하소서! 금번 법륜사 대중 수향처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연법에 닫는 불자 및 년로하신 분과 고시 준비생을 입주시켜 기도,불경,좌선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지혜의 등불이 되옵고 삶에 지치고 사랑,믿음,좌절,배신,분노 얼키고 씰킨 인간사의 병든 마음과 육근을 이곳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산수수려한 만대산 법륜사 대중처소에 오셔서 청정한 마음 열으소서!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대의 설계로서 욕탕, 휴게실, 독서실 및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가족이 함께 심신을 맑게 하시도록 비구니 스님께서 행으로써 다함께 지혜와 마음 거울을 닦아 성불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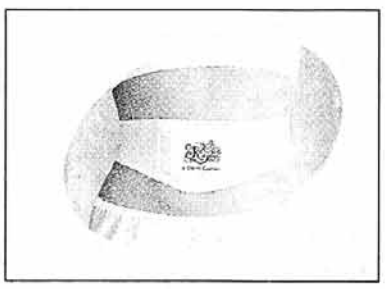
법륜사 대중처소 내용별 구분 안내란				
남·녀 총인원	65명	※ 자격 및 년령 제한 없습니다!		
방 1실 인원	1명	※ 小실	※ 일생 수양하실분 가능함	※ 小,中,大 방의 분담금에 관한 것은 문의처로 하십시오.
방 1실 인원	2명	※ 中실	※ 년령이 많으신분 우선	
방 1실 인원	3명	※ 大실		
고시 준비생	약간명	시험을 앞둔 고시생 선착순위		
문 의 처	본사) 합 천 법륜사 : (0543)955-1379			
	마산) 법륜사 포교원 : (0551)21-8775			

※ 빠른시일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입양 접수일 : 1997년 5월 15 ~ 6월 31까지 (선착순 마감)

주 지 : 김 운 봉, 총무스님 : 손 자 혜
고 문 : 이 기 우
회 장 : 이 경 자 합 장
회 주 : 최 복 남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2~3년전부터 방광염과 불면증이 생기면서 기미가 끼기 시작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하루는 언니가 한약재 성분인 "향비"를 써보라 했습니다. 착용하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불면증이 없어지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도 잘 도는 것 같아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약 9개월이 되었는데 끈기있게 사용하고 있고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고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심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우녀는 송아지로 태어나 무욕도 어부집에 살고 있었다



128

또하나의 우녀

우녀는 그의 암굴 안으로 들어갔다. 쿵! 소리가 멎어 있었다.

그는 아귀계의 수원처럼 무욕도에서 떠난 뒤 도무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파현을 문득 떠올리자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마치 꿈 속에 나타난 것처럼.

파현의 얼굴은 피투성이였다. 아주 힘겨운 격투를 벌이고 난 직후인 것 같았다. 그의 승결은 아직도 성난 짐승처럼 씩씩거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우녀를 만나는데도 충혈되었고 부릅뜬 채였다.

"파현님!"

우녀가 그의 생시의 환상 속에 나타난 파현을 아주 따뜻한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파현은 퉤! 하고 침을 뱉는 것이었다.

"너 이년! 아직까지 여기를 독차지하고 살아 있구나."

이를테면 아수라계의 말투로 하는 오랜만의 인사일까.

"이런 요망한 년 같으니라구… 지금 내가 이렇게 싸울 한 판에 지고나자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겠지… 이제 네 년의 두 다리를 짝 찢어 놓을 차례다."

우녀는 이렇게 험한 소리를 마구 내뱉으며 다가오는 파현을 겉으로는 태연히 대하였다.

"파현님! 파현님의 입이 그렇게 찢어져서야…. 그 아픔이나 먼저 다스립시다. 마침 여기에 약이 남아 있습니다. 지혈제(止血劑)입니다."

"관둬라, 이 쌍년아."

우녀는 도무지 어이가 없었다.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무책이었다. 무책이 상책이었다. 그는 황량한 심정으로 가득한 아수라의 파현에 대하여 아주 조용히 참고 있어야 하였다.

그때 갈매기 몇마리가 무욕도로 들아왔다. 그 중의 한 마리가 파현에게 달려들어 파현의 이마를 한번 찍어 주고 날아가는 것이었다.

"저놈의 갈매기까지 나를!" 하고 파현이 돌멩이를 던졌으나 그 돌멩이는 허공에 단조로운 포물선을 그린 뒤 파도 이랑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우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파현이 풀썩 주저앉았다. 위낙 힘겨운 싸움 끝이라 피투성이 몸으로 주저앉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녀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상태와 정반대였다. 그는 피투성이 파현의 뒤를 따라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수라로 가는 길이었다. 우녀의 마음 속에는 파현의 뒤를 따라가는 자신과는 또 다른 자신의 귀가 어떤 아수라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중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었다.

아수라계에서도 으리으리한 곳은 수중궁궐의 도성에서 살 수 있는 라후라아수라(羅睺羅阿修羅)가 있다. 그런 축과 달리 아주 하층 아수라들은 바다 밑이 아니라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늘 싸우면서 살고 있기도 하다. … 네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냐? 자아, 내 말을 더 들어보아라. 아수라는 본래 일천(日天) 월천(月天)이 비치는 것을 사람들이 해와 달로 말하고 있거니와 그것들이 내는 빛이라는 것을 아주 저주한다. 그래서 햇빛을 잡아먹으면 일식이요 달빛을 삼켜버리면 월식이 되기도 한다.

다만 아수라는 천상계를 미워하지만 그 천상계 천녀(天女)의 춤만은 아주 좋아한다. 캄캄한 밤이야말로 아수라가 천녀의 춤을 감상할 수 있을 때인 것이다. 어둠 속의 춤이야말로 진짜배기 춤이고 춤추는 미녀들의 잔치인 것이다. 이년아 너도 그런 미녀가 되어보아라. 왜 그렇게 못생긴 낯바닥으로 수행한다는 헛수작이나 하고 있느냐… 하하… 실은 너같은 년만이 아니다. 지금 육지의 인간계에는 멀쩡한 놈들이 진여를 꼬나잡겠다고 아닌 밤중에 화두라는 것을 잡고 늘어져 있는데 화두야말로 망상 중의 망상인 줄을 그놈들은 모르고 있다… 하기야 화두는 망상을 내몰아주는 또하나의 망상이므로 그 망상이 하는 일이 있기는 있다….

본래 우리 아수라족은 실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천상계의 족속이었다.

아수라는 화생(化生)이다. 인간이나 축생처럼 태생이나 난생이 아니고 벌레따위의 습생도 아니다. 아수라야말로 어느 날 불현듯 태어나는 화생이다. 사바세계 인간의 눈으로야 그런 화생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아… 아수라는 일찍이 도리천 천상계의 미녀들을 알아본 제석천이 그만 그 미녀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다.

그 일로 아수라는 제석천과의 싸움을 되풀이하면서 점점 아주 사납고 무서운 악신으로서의 아수라로 바뀌어졌다.

그런 뒤로 아수라는 천상계 따위를 미련없이 내버리고 인간계에도 아귀계, 축생계에도 끼어들어 날마다 분쟁과 전쟁 그리고 이웃 사이의 극심한 불화로 세월을 채우는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년아, 너도 한번 이런 아수라의 계집이 되어 머리에 거머쥘 머리칼이 다 뜯기고만 그런 땐대기리 싸움 계집이 되어 보겠느냐?

"여기까지 듣고 난 우녀는 그의 귀를 막았다. 이제 파현의 몸이 어느만큼 회복되었다. 그가 원한을 품고 말하였다.

"어디 두고보자. 조금 있다가 그놈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우녀가 그런 파현을 말렸다.

"파현님 제발 옛 도반들이 공부하는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 함께 아라한을 성취하시지요."

"네년이 나에게 감히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구나… 두 다리를 짝 찢어놓으려다가 그만 둔 참이라… 어서 너 같은 년은 여기서 꺼져라… 꺼져서… 돼지 멧돼지가 사는 세상에나 가서 끌끌거려라. … 이 햇바닥에 억새풀이나 돋아날 년아."

이제 우녀는 우녀 자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얼굴도 달라졌다. 생각도 달라졌다. 어딘지 짐승이 된 느낌이 들었다.

과연 그는 축생계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축생이란 사람이 기르는 짐승을 말한다. 엎드려 기어다니거나 네 발로 걸어야 한다. 오직 식욕과 이따금의 성욕이 강하고 부자 모자 사이의 윤리나 형제자매의 윤리도 없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으로는 아수라계와 다를 바 없다.

도둑질, 살생, 빚 갚지 않은 것 따위의 악행이 그런 짐승으로 태어나는 업인(業因)이지만 그 업인에는 몇 세 이전의 잔재까지도 누적되었다가 발현되는 과보로 나타난다. 업보라는 것이 어제의 일로 오늘는 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축생은 바다속에서 시작되었다. 먼훗날 어떤 사람이 생명의 진화에서 생명은 원시의 바다에서 생겨나 육지로 옮겨졌다는 주장을 하기 훨씬 전에 축생계는 그런 바다 속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 태고(太古)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도마뱀 꼬리에는 몇 억겁 전의 파도소리가 아득히 들리는 밤이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런 축생은 그들이 사는 곳에 따라 하늘 육지 물로 나누어 살아가는 것과 함께 낮살이 밤살이 낮밤살이로 초식 육식 잡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윤리 이전의 세계, 이 윤리 이전의 자유가 바로 축생계의 중생에게 누려지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계가 가장 경멸하거나 천대하고 학대하는 중생계야말로 거꾸로 인간계를 꾸짖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녀 송아지는 그 전신의 우녀한테 말하였다.

"야 너희들 인간세계야말로 아수라보다 더 아수라요 아귀보다 더 아귀요 지옥보다 더 지옥이 아니냐! 야 너희들 인간세계라는 곳이야말로 삼천대천세계의 법칙이나 운율(韻律)을 등져서 제멋대로 무법천지를 지어내고 제멋대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지 않느냐. … 어디 그것만이겠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축생의 모든 생명을 마구 잡아먹고 심지어는 아귀까지도 잡아서 아귀요리를 해먹으며 아 맛있도다 맛있도다 하고 좋아하지 않느냐. … 앉아서 먹다가 누워서 먹다가 배에 음식이 가득하면 목에 손가락을 넣어 마구 게워내고 다시 먹지 않느냐. … 너희들 인간계야말로 천상도나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의 다섯 도(道) 중생 가운데서 가장 더럽고 가장 나쁜 족속이 아니냐. … 중생이란 그 무엇이더냐. 아직 해탈하지 못한 미혹의 생명 아니더냐. 그러나 다른 한편 중생이란 무릇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과 죽음의 한없는 축복이 아니겠느냐. 인간계! 이것이 세계의 재앙이 아니더냐."

"너희들 인간세계야말로 아수라보다 더 아수라요 아귀보다 더 아귀요 지옥보다 더 지옥이 아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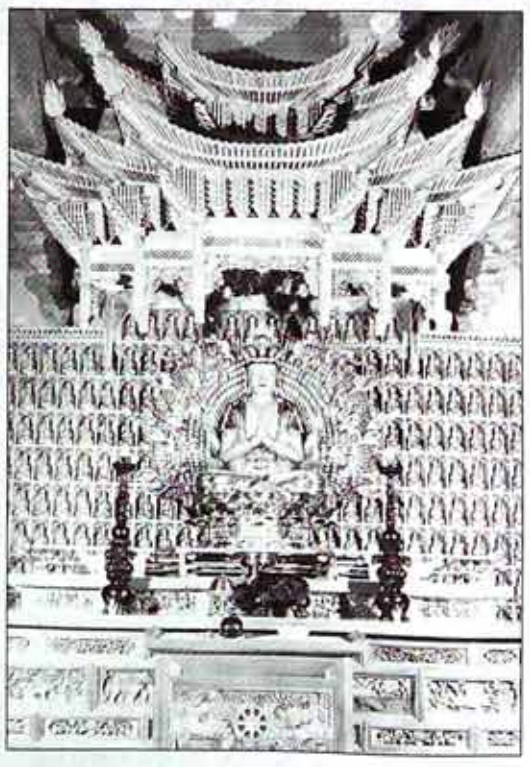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救國 큰스님 소리로 만나세요"



창작판소리 '사명대사' 발표회 갖는 이용배씨 6월 호국의달

21일 문예회관서 두차례 공연
소리 입문 50년 '회향무대'

"사명대사는 도력높은 선사로서도 이름높지만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뇌리에 깊이 인상지워진 것은 왜군들을 상대로 싸워 나라를 지키고 또 일본에 강화사절로 가서 조선포로 3500명을 구출해 온 구국의 승군장이라는 점일 겁니다."

교계 최초로 '사명대사' 관소리 발표회를 갖는 원로 국악인 용담(龍潭) 이용배 거사(66·전통음악연구회장)는 올해 관소리 입문 50년을 맞기에 이번 공연이 더욱 뜻깊다고 말한다. 오는 21일 오후 3시·7시 두번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관소리 '사명대사'는 전통 무형문화재인 관소리로 사명대사의 지극한 불심에서 나온 구국행(行)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의 해와 6월 호국의 달을 빛내는 값진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사명대사'에는 스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승과급제, 개오(開悟), 운수행, 서산대사와의 만남, 일본과의 강화조약, 열반 등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1시간여에 걸쳐 구성진 관소리에 실린다. 또 살풀이(강남기) 진도북놀이(무형문화재 18호·임경자외 9명) 등 전통춤공연도 함께 열린다.

이용배거사는 17살때 당시 국악계의 거목 임방울씨의 문하에 들어가 3년여에 걸친 피나는 수련을 거쳐 득음(得音)의 경지에 오른 전통예술인. 사명대사와의 인연은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국극사 '만리장성' 단원으로 있을때 인기가 하늘을 찔렀지요. 돈과 인기가 높아가자 아집과 자만도 높아가 마침내 병을 얻었습니다. 우연히 금정사에 계신 경월스님을 뵈었는데 내 병이 어디서 왔는지 간파해 내시더니 책을 하나 보라고 권하시더군요. 그게 이광수의 소설 〈사명대사〉였습니다."

선사로 승군으로 또 효심지극한 자식으로 일생을 뜨겁게 산 사명대사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온통 휘어잡았다. 그때부터 밀양의 사명대사 생가를 비롯 출가사찰인 직지사, 스님의 유물이 전시되어있는 표충사, 열반지 해인사 등 스님과 관련된 사찰들을 수차례 순례한다. 그리고 자비를 들여 사명대사의 일생을 드라마화, 2장의 레코드로 만들어 전국사찰에 보냈다. 불교에 심취한 이거사는 이후 '목련존자' '석가모니' 등을 작창(作唱), 음반으로 펴 냈다.

"범종소리는 한번 치면 여음(餘音)이 9번이나 뒤를 잇습니다. 관소리도 범종소리와 같이 여운이 있어야 감동을 주겠지요." 전강 구산 춘성스님' 등 큰스님들을 친견하며 불교공부를 했다는 이거사는 내년엔 로마교황청의 초청으로 한국 관소리의 진수를 세계에 들려줄 계획.

관소리 '사명대사'는 마지막에 전 출연자가 나와 관객들과 함께 합장, '나무아미타불' 염불로써 장엄한 막이 내려진다. 이용배거사는 '사명대사' 관소리 테이프도 제작했다.

예매처
현대불교 (02)732-1522
여시아문 (02)737-0695
녹수청산 (02)736-3782
대 불 광 (02)738-1117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88〉

선경에 있는 절

寺在仙區俗否遐 (사재선구속종하) 절은 신선 구역, 속세 자취 멀고
鶴悤秋晩景偏多 (학대추만경편다) 학대의 늦가을 경치 유난히 흐드러져
溪含瑤瑟臨窓奏 (계함요슬임창주) 시내는 거문고 안고서 창기에서 연주하고
山被錦衣向日誇 (산피금의향일과) 산은 비단 옷 입고 햇살 보며 자랑하다
紅影滿江楓老岸 (홍영만강풍로안) 붉은 그림자 강에 가득, 언덕에 늙은 단풍
綠陰迷戶竹低阿 (녹음미호죽저아) 녹음은 창문을 가려, 언덕에 나즉한 대나무
數聲淸夜來何處 (수요청야래하처) 맑은 밤 어디에서 오는 몇 마디의 울림은
千里征雁月下過 (천리정안월하과) 천리로 가는 기러기 달 아래 지나다

이 시는 천경대사의 '가을 경치(秋景)'라는 시이다. 산사의 가을 경치를 담담하게 읊고 있다. 신선 구역과 속세 자취는 원래가 떨어져 있는 것이니 역시 사실 그 자체를 말한 것이지만, 산 속의 누대라 해서 가을 경치가 더 풍부할 이유야 없다. 그렇지만 깊숙히 감추어져 있어 멀리 찾아온 손님에게는 신선 경계 같기에 더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또한 상례다.

다음 시구들은 산 속이기에 더 맑게 느껴지는 가을 경치를 실감있게 표현하였다. 시냇물의 울림은 비파나 거문고소리처럼 아름답다. 그것도 창가에 다가와 더욱 반갑게 연주한다.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산골이다.

햇빛에 비쳐져 더 아름답겠지만, 시의 구성은 단풍이 오히려 햇빛에다 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산사의 넉넉한 표현이다. 자랑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자랑이다.

다음 구에서 이 단풍을 받아 강에 비친 모습으로 상황을 달리 설명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다시 단풍을 읊는 것은 시의 구성으로는 좀 흠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 구에서는 산에 있는 단풍의 원 모습을, 해라고 하는 저 허공의 공중으로 끌어올렸고, 여기서는 실제의 단풍보다도 그림자인 허상으로 처리하여 강물에 비친 붉은 빛을 서술하였으니, 상하 공간으로의 대칭이다. 이 점으로 어색한 소재의 흠을 다소 덜게 하였다.

그러면서 대구(對句)에서 대나무의 푸르름과 대조시킨 색깔의 조화가 대구(對句)로서의 구성에 걸맞게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풍경의 산사도 밤이 되면 더더욱 고요하다. 이러한 고요함을 깨는 기러기의 울음 역시 적막과 요란의 대칭이면서 '달 아래 지나다'의 결론이 마치 밤 하늘의 풍경을 사실화로 재생시킨 느낌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 세미나 연다

10·11일 세종문화회관

해방이후 반세기동안의 한국 매장문화재 발굴현황을 돌아보는 대규모 세미나가 10,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회고와 전망'이란 주제아래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와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매장문화재 발굴의 현황과 문제점(이선복) △제2주제-유적 유물 보존관리 현황과 문제점(정징원) △제3주제-구제발굴 위주의 발굴현황과 개선책(윤덕향) △제4주제-발굴경비 표준화, 현실과 당위(조영현) △제5주제-문화재 지표조사의 시행현실과 대책(이강승) △제6주제-발굴전담 법인체의 운영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이백규) △제7주제-현행 매장문화재 관련법령 제도 기관의 문제점과 대책(배기동) △제8주제-지자체의 매장문화재 행정실무현황과 과제(정연우) △제9주제-현장 실무자들이 보는 발굴제도에 관한 제언(이상길) △제10주제-현행 발굴허가 제도의 현황과 과제(고수길) △제11주제-일본의 매장문화재 현황(고도 타다시)

장천 1호분 예불도 행방묘연

"중국·북한등 산재 고구려 고분벽화 도난·훼손 심각"

현재 남아있는 한국 불상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장천1호분(중국 집안시)의 예불도(禮佛圖) 도굴 사실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도굴과 습기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밝혀졌다. (사)고구려연구회(이사장 서길수)가 5월23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장천1·2호분의 고분벽화가 도난당한 것을 비롯 북한내 고구려 고분벽화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자금과 기술부족으로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5년 여름 도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천1·2호분은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특히 내부 벽화가 통째로 없어진 1호분에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불상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예불도가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2호분의 경우는 미공개인 관계로 확실한 피해상황을 알 수 없으나 전체가 연꽃장식으로 뒤덮여 있어 비교적 자료가 적은 고구려사회와 불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지난 96년 도굴로 인해 행방이 묘연한 장천 1호분 예불도.

서길수교수(서경대)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중국의 돈황벽화에 버금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화유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보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석 기자

해인사 경판전 35년만에 보수

8월말부터 2년동안 기와 전면교체

낡은 기와로 인한 고려 팔만대장경의 피해방지를 위해 신비의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국보 52호)이 오는 8월말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간다.

해인사(주지 보광)는 장마와 무더위가 끝나는 8월말부터 경판전의 지붕기와를 전면 교체하는 대불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경판을 꽂는 판가(板架)와 서까래 등도 점검, 보수할 계획이다. 이번 대불사는 지난 62년 기와를 전면 교체한지 35년만의 일이다.

보수에 대해 문화재관리국측도 "기와가 너무 낡아 비가 새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어 대장경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인사는 작업 도중 대장경 경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붕위에 덧집을 만들고, 기와를 조금씩 걷어내 공기나 비바람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향후 2년여가 걸릴 보수작업에는 보통기와 1.5배 크기(42×45㎝)에 달하는 특대기와(特大瓦) 2만여장이 들어가는 등 총 8억원의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문화 소식

경북 문화재대관 발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지사 이의근)가 오는 99년까지 도비 7억원을 들여 경상북도 문화재대관을 발간한다. 국가지정문화재 499점과 도 지정문화재 824점 등 총 1323점의 도내 문화재가 수록되는 문화재대관은 천연색판 전 5권 총 3천쪽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2권에는 금속 및 공예, 목조건물, 석탑 불상등 국보와 보물(유형문화재)이, 3권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이, 4권에는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를 가옥 복식 자수 음악 무용 등 12편으로 분류해 실으며, 5권에는 문화재자료를 6편으로 구분하여 묶는다.

문화재 보존 관리 50년전

문화재관리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반세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문화재 보존 관리 50년' 특별전시회를 8일까지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재관리국 각 실·과에서 발간한 도서 1천1백9권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해 전시하고 있다.

단오날 영산재 시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회가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스님) 주최로 9일(단오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다. 송암 벽응 일응 스님 등 인간문화재 스님들과 보존회 스님 4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시연회에서는 시련 대령 관욕 식당작법 초할향 등 영산재 전과정을 보여준다.

도신스님 찬불가요 발표

노래로 포교하는 도신스님이 3집 앨범 출반에 맞춰 찬불가요발표회를 갖는다.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7·8일 양일간 오후 6시 연강홀에서 갖는 발표회에는 '구도' '무상' 등 10여곡이 소개된다. 이번 공연에는 박용호(대금) 곽태규(피리) 민의식(가야금) 김영미(해금)씨 등이 협연한다. (02)3472-8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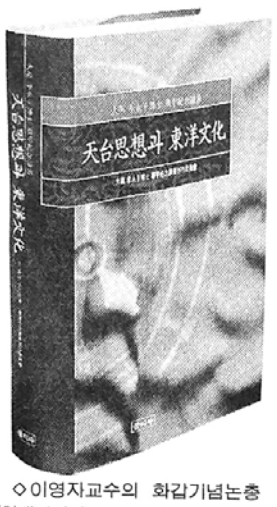
제2회 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번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 불교산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11]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지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이영자 교수 화갑 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 발간



◇이영자교수의 화갑기념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불교학자이자 천태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이영자교수(61)가 화갑기념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불지사 刊)를 발간했다.

논총 〈천태사상과 동양문화〉는 '천태사상과 역사' '동양문화와 종교' '불교와 문화' 등 세 주제로 나눠 모두 40편의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했다.

'천태사상과 역사'에서는 〈천태사상과 현대사회(이영자)〉 〈천태의 사선론(최기표)〉 〈중국불교의 수용과 변용(폴 스완슨)〉 〈중국북쪽 교판론에 대한 천태의 비판과 재수용(이병욱)〉 등 13편의 논문을 통해 환경파괴와 종교갈등 등의 해결방안을 천태사상의 이해속에서 추론해 내고, 천태사상을 통해 한국불교와 현대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불교사상에서 본 생명윤리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이영자)〉 〈원효와 칼 야스퍼스의 종교철학(신옥희)〉 〈20세기 초반에 북미대륙의 불교의 발전(이길용)〉 등 5편의 논문을 담고 있는 '동양문화와 종교'에서는 불교가 동양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있다.

또 '불교와 문화'에서는 〈고대 인도의 여성관(곽만연)〉 〈경허의 미륵사상연구(김경집)〉 〈불교수행의 근본(김용환)〉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특징적 가르침(김인덕)〉 〈고려왕실 선대의 불교신앙(양은용)〉 등 21편의 논문을 통해 불교가 한국의 문화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시대의 사고와 논리체계에 맞는 이론을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영자교수는 이번 화갑기념논총 발간과 함께 선수행 입문서 〈초보자를 위한 선〉(민족사 刊)도 함께 펴냈다.

60년 동국대에 입학, 불교학과 인연을 맺은 이교수는 65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천태대사의 교관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불교문화연구원 조교를 거쳐 일본 다이쇼(大正)대학에 유학해 82년 〈한국천태사상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기까지 한국천태사상 연구에만 매진해 왔다.

이후 〈천태사교의〉(중앙일보사 83년), 〈한국천태사상의 전개〉(민족사 88년) 등을 펴내 천태사상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일반대중에게 전파해 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논문 40편 수록 한국불교 방향제시
국내 첫 여성불교학자 학문 37년 '축하'


◇지난달 26일 엠베서더호텔 출판기념법회에서 이영자교수(왼쪽)는 제자들로부터 논총을 봉정받았다.

이은자 기자

'석가모니불 500대원' 펴낸 학림스님



"원력이 없는 신행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반드시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500대원을 정리한 책 〈석가모니불 500대원〉(悲華經)을 펴낸 학림스님(예천 포교원장)은 원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한다.

〈석가모니불 500대원〉(운주사 刊)은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오신 뜻·원력의미 알리려고 비화경 정리"

부처님이 왜 오셨나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어 신행생활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몇년전 어린이법회에서 비롯됐다.

"한 아이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원력을 세우셨으며,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성불하셨나'고 물었을 때 탁! 말문이 막혔지요"

그때 부처님의 500대원도 제대로 모르면서 포교당을 시작했던 자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다는 스님은 즉시 500대원이 무엇인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막막했다. 많은 경전 중에서 현겁 사바세계 오탁악세에서 성불하신 석가모니불의 전생 500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비화경〉을 고려대장경과 한글대장경, 그리고 신수대장경 등에서 찾았다. 원(願) 하나하나를 정리해 1번부터 500번까지 번호를 차례로 붙이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여러 학자들에게 고증을 부탁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스님은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하던중에 문득 6바라밀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시도했더니 500대원이 술술 정리가 되더군요.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로 가능했습니다"



500대원은 인과에 대해 설명해주고, 또 실존인물로서의 부처님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이 스님의 책을 참고로 특집(현대불교 제127호 24~25면 참조)을 마련해 더욱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경남 예천에서 어린이법회와 학생법회를 지도해 오고 있는 학림스님은 앞으로도 불교의 생활화를 위한 쉬운 불서를 계속 펴 내겠다는 원력을 밝힌다. 〈은〉

화제의 책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천년을 향기로운 생명으로 원혜 지음



천년을 향기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은 온전한 불자로서 불법에 귀의하는 삶이 아닐까.

오랫동안 수행과 포교활동에 전념해 온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 스님이 평소 느끼고 보아온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펴낸 불교포교서가 바로 〈천년을 향기로운 생명으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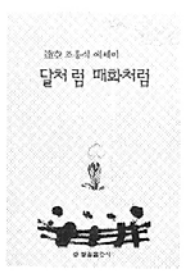
"불교가 사회와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포교다. 포교는 단순히 불자수를 늘인다거나 교리지식을 높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다"는 스님의 평소 소신과 포교에 대한 열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여래 6천원〉

화제의 책

내 마음안에 있는 달 보는 방법은

달처럼 매화처럼 조홍식 지음



〈달처럼 매화처럼〉은 감각적인 삶에 울고 웃으며 우왕좌왕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는 불교에세이다. 황폐화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 본래 우리 안에 있는 달을 볼 것을 기원하는 탈공 조홍식 선생의 마음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불일회 회장이며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선생의 희수(喜壽)를 맞아 그동안 각 언론에 발표했던 글을 모아 놓았다. 일생을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강단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선지식으로서의 선생의 면모가 달처럼 매화처럼 아름다운 감동을 안겨준다.

〈불일출판사 7천원〉

화제의 책

"고미술 한점 한점 곁에서 보는듯"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이원복 지음



기존의 문화기행서들이 유적지를 돌며 주마간산 식으로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고미술 한점한점을 실제 보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묘미가 일품인 책. 우리 전통문화재의 명품을 통한 미의 체험이 이 책의 일관적인 주제다. 제1부 아름다움과의 만남, 제2부 옛사람의 멋과 향기, 제3부 박물관 뜨락에서 등 총 109편의 글은 정통 비평서의 성격을 띠면서 한편으론 대중적 교양서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미의 산책을 통한 옛사람의 멋과 생활철학이 문장 곳곳에 배어있을 만큼 고미술을 대하는 글솜씨가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으로 20년간 근무해온 이원복씨가 집필했다.

〈효형출판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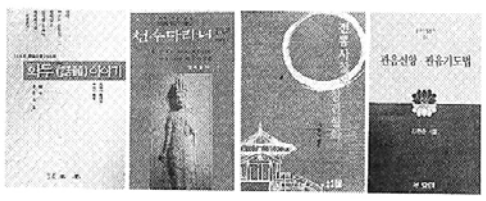
불교 동시집 '아가에게 엄마에게'


◇박용열씨

가족간의 이해와 사랑을 불교적 시각에서 펼쳐낸 유아용 동시동요집 〈아가에게 엄마에게〉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동시작가 박용열씨가 손주, 며느리에게 주는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깨우침과 용기를 일깨워 준다.

박씨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아이 사랑하는 법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동심으로 바라보는 자연과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이 시집에서 '부처님과 아기' '부처님 혼자서 절을 지켜요' 등의 시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삶과 꿈 비매품〉

새로나온 책



▲화두이야기=선이란 본래의 성품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명에서 벗어나 자기 부처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밝고 맑게 살다간 100대 선사들의 말씀에 담겨있는 가르침의 요지를 현재의 생활과 접목, 이치를 쉽게 설명하여 나의 실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한다. 〈삼양 7천원〉

▲천수다라니공덕과 의미=인도철학과 범어학을 전공한 철호박사 전재성 교수가 천수다라니에 담긴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화현과 심오한 진리의 참뜻을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또한 현재 잘못 표기되어 있는 천수다라니를 올바른 표기법에 의해 바로잡아, 불자들이 범어 원음에 가깝게 외울 수 있게 했다. 〈이바지 4천5백원〉

▲전통사찰의 창건설화=우리의 전통사찰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야기를 묶었다. 짧은 이야기에서 부터 긴 이야기,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찰과 연관되지 못한 이야기를 비롯, 명산고찰의 내력과 고승들의 행보까지 짚어볼 수 있다. 〈창 6천8백원〉

▲관음신앙 관음기도법=우리나라 불자의 60%이상이 관세음보살을 신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불자들 가운데 관음신앙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믿는 이는 그리 많지가 않다. 이 책은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분인지, 그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은 무엇인지, 관음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일러준다. 〈효림 3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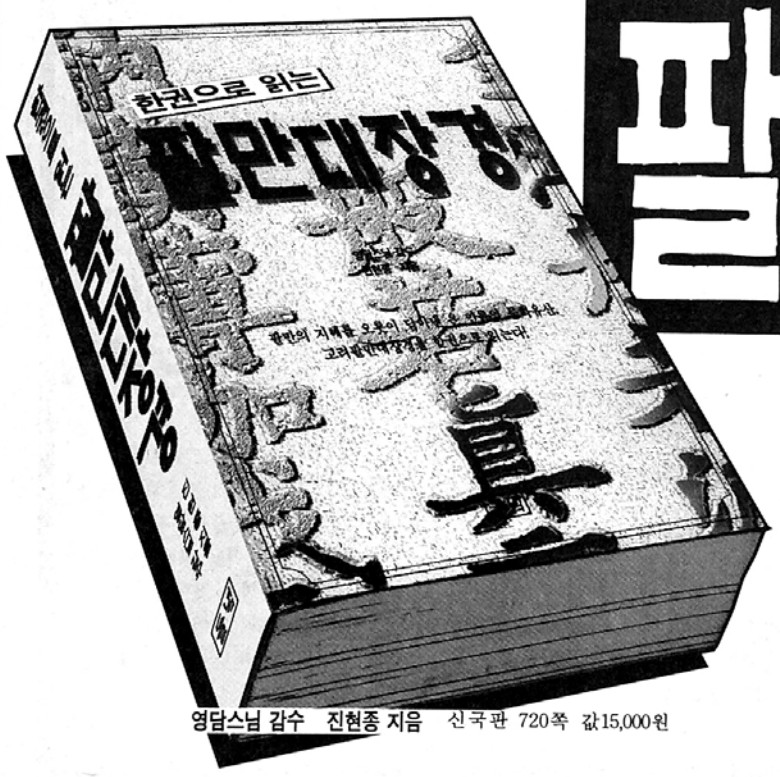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2	기도	일 타	효 림
3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 은 날
4	한국사찰 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5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둥 지
6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 현 종	들 녘
7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8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9	한국사찰의 주련2	권 영 한	전원문화사
10	불교대전	이 원 섭	현 암 사

구입문의:(02)737-0695

들녘 TEL:337-0296 FAX:338-9640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영담스님 감수 진현종 지음 신국판 720쪽 값15,000원

팔만의 지혜를 담아낸 온 인류의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읽는다!

팔만사천 번뇌의 바다를 떠다니는 우리들 중생을 위해
팔만사천 법문을 연 부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았다.
해서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자한자 뜨거운 호국의 염원으로 빚어냈기에
팔백년의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흠결 하나 없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고려팔만대장경.
해서 세계는 전인류가 보전해야 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확정하였다.
팔만대장경은 단지 불교사상의 결집체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백전불굴의 기개와 뛰어난 문화창조자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이 담겨 있으며
오묘한 우리 전통과학의 정수가 체현되어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방대하고 중요한 팔만대장경의 구조와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해봄으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문화의 향기와 자긍심을 듬뿍 안겨줄 것이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를 낱낱이 읽는다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는 500여년간의 왕조사를 한권으로 묶은 이 책은 조선의 역사에 관한 입문서다. 각 왕통의 가계도와 함께 조선의 과학지식,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당파싸움 등 조선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64쪽 값 10,000원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 역사의 허리에 해당되는 고려왕조. 그러나 고려의 진면목은 짙은 안개에 가려 있다. 외세의 힘을 빌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이자 북방을 경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고려. 그 강인했던 역사를 왕들의 치세를 중심으로 소상히 알아본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88쪽 값 10,000 원

학술단신

'종교와 문화' 세미나

종교인평화회의, 1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가 종교간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도모하고 종교계 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97 종교지도자 세미나를 6월12일 세종문화회관(1부)과 도고 파라다이스호텔(2부)에서 개최한다.

'종교와 문화'란 주제의 이번 세미나에는 '21세기를 여는 한국사회문화와 종교'(김진현 서울시립대) '한국인의 의식과 종교'(박일영 가톨릭대) '한국 사회와 정신문화 피폐 원인과 대책'(길희성 서강대) 등이 발표된다.

(02)816-2250

학술연구비 지원

성철사상硏, 23명에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97년도 학술연구비 대상자를 선정했다.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설성경교수(연세대 국문학) 최일범교수(성균관대 한국철학) 등 총23명. 연구비 대상자들의 논문은 〈백련불교논집〉에 게재된다.

'동국사학' 30호 발간

동국대 사학과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동국사학〉30호 특대호를 발간했다. 이번 특집호에는 이기동교수의 '고구려사 발전의 劃期로서의 4세기'란 논문을 비롯 김병곤씨의 '신라중고기의 화랑도' 심요섭씨의 '신라 사천왕 신앙의 수용과 전개' 등 논문 25편이 수록됐다.

'단호문화연구' 창간호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재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소장 김춘남)가 〈단호문화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정우택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의 '이학소장 수월관음도의 표현과 기법' 박지선씨(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의 '이학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보존수복에 관하여' 등 4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저술연구-번역 체계화 필요" 버즈웰교수

국제 원효학회, '원효의 사상체계…' 학술회의


◇김영태교수


◇박성배교수


◇버즈웰교수

원효사상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적' 특질만을 찾는 진부한 태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불교전통과의 상호연관을 연구하고 번역에 대한 철저한 각주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제원효학회(IAWS 공동회장 송석구·셜리케니)가 5월30일 '원효의 사상체계와 원효전서 영역상의 제문제'란 주제로 동국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버즈웰교수(UCLA)는 '원효저술 영역상의 제문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버즈웰교수는 "불교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원효의 저술은 경(經)과 소(疏)에 관한 해석적 주석서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원전의 의미구조를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원효사상 형성에 영향을 준 불교 경전에 대한 인유(引喩)를 밝히고 주석서에서 자주 쓰이는 수사(修辭)의 목록 작성 등의 기초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번역 원전으로 〈한국불교전서〉 외에도 〈신수대장경〉에 수록된 원효 저술까지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IAWS 제1차 3개년 사업인 원효전서 영역사업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성배교수(동국대 석좌)와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도 '원효사상의 논리구조' '和會의 道理를 통해 본 원효의 사상' 등을 각각 발표했다.

박성배교수는 "원효사상은 체(體)와 용(用)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원효가 〈대승기신론〉의 제목을 풀이하며 대승은 체요 기신은 용(大乘是論之宗體起信是論之勝能)으로 해석했듯 원효사상의 위대성은 바로 體의 발견"이라며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 사상에서 화쟁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이문'은 바로 體인 진여문과 用인 생멸문을 가리키며 이들이 서로 원융될 때 '자재'와 '무애'가 나오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대승기신론〉에는 '말로써 말을 버린다(因言遣言)'는 역설적인 사상이 면면히 흐르며 이 사상은 말(言, 用)에 얽매인 사부대중을 해방시켰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한국불교학계가 그동안 관념론 이상주의 해체주의 관점에서 원효의 논리를 재구성하는 경향은 잘못"이라며 "원효는 체용의 논리를 토착화시킨 선구자"라고 말했다.

김영태교수는 "원효사상은 불교학의 큰 흐름인 법성(法性)이나 법상(法相)의 어느 종학(宗學)에도 치우쳐 있지 않는 하나의 '부처님 마음'(一佛心) 세계를 드러내는 화회(和會)의 학(學)"이라며 "和會의 도리는 성상불이(性相不二) 즉 한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법산·보광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권기종 서윤길 최현각 목정배 정병조 김상현 이영자교수, 서울대 심재룡 윤원철교수, 연세대 신규탁교수 서울교육대 은정희교수 뉴욕주립대 조성택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고 루이 랭카스터교수(버클리대)가 총평을 맡았다.

"관념적 원효학연구 잘못" 박성배교수

"和會의 도리는 한마음" 김영태교수

오종욱 기자

나옹禪詩 '고루가' 첫 텍스트 분석

정진원씨 논문발표



선시(禪詩) 한문본을 번역함에 있어 고대어와 현대어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서술구조를 비교하는 텍스트 분석이 중요하며 본래 의미도 배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옹스님(1320~1376)이 지은 한문 선시 '고루가'(枯髏歌)의 원문과 현대국어 번역본을 대조해 텍스트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정진원씨(홍익대 국어교육과 강사)의 '나옹화상의 고루가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고루가' 첫 수의 망노형(妄勞形)은 '허망하게 허덕였던가'로 〈나옹화상집〉과 〈나옹록〉에 각각 번역됐지만 '勞'는 '번뇌'로 '勞形'은 '번뇌의 형상'을 뜻한다는 것. 따라서 '허망한 번뇌의 찌꺼기구나'가 본래 의미에 적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둘째 수중 '육근치산주청황(六根馳散走靑黃)'에서 靑黃은 '세월' '시간' '이리저리'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반해 〈나옹록〉은 靑黃에 '검고 희며(皂白)'을 첨가시켜 방황의 세월로 해석해 본래 의미를 희석시켰다고 설명했다.

'마른 해골'이 윤회를 거듭하며 진흙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지만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노래한 선시 '고루가'는 한 수가 4구씩으로 이루어진 총13수 한시로 〈나옹집〉(1972) 〈나옹록〉(1991) 〈나옹화상집〉(1995) 등에 번역됐다.

정진원씨는 "고루가의 원문은 6언구인 반면 〈나옹집〉에서 '3언구'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것은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시대적 차이"라며 "불교관련 번역서는 번역자와 편찬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올바른 텍스트 분석을 위해 기명(記名)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텍스트 연구회(회장 이광수) 논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욱〉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 하우스

박물관 서비스 '눈길' …달라이라마 어록도 소개



티벳하우스는 티벳정부 산하 문화-학술기구로 인터넷 상에는 뉴욕과 런던 지부가 개설돼 △교육 △박물관 △환경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뉴욕 지부 '티벳 하우스' 사이트에 개설된 '박물관' 서비스는 18·19세기 티벳 동부지역에서 불교 의식에 사용됐던 의구(儀具)의 전시 정보를 비롯해 티벳관련 사진 3백여점을 그래픽 파일로 제공하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지부 '티벳하우스'는 이외에도 14대 달라이라마의 어록(語錄)을 제공한다. 이중에는 노벨상 수상식('94), 미국기자협회('93), ICT('96)에 참여한 달라이 라마의 연설문을 비롯해 '평화행진 선언문' '〈아시아 나우(Aisa Now)〉지와의 인터뷰' 등이 제공되며 열람-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또한 티벳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위스덤 출판사'(Wisdom Books, 美)와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도서목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출판사를 방문하면 최근 발간된 〈20세기 고승열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소 'http://quietmountain.com/tibethouse/'

나와 경전 9

금강정경


정 태 혁
〈동방불교대학장〉

팔만대장경의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희유한 부처님의 고마운 말씀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불교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경전이라도 널리 섭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특히 한 경전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근년에 와서 내가 주목하게 된 경전하나를 소개하겠다. 그 경전은 바로 〈금강정경(金剛頂經)〉이다. 조금은 그 경명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경은 일반불자들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경전은 대승경전으로서 〈화엄경〉, 〈섭진실경〉과 서로 사상적으로 통하는데 〈화엄경〉이나 〈섭진실경〉이 법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비하여 〈금강정경〉은 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하는 법의 행상(行相)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금강정'은 금강과 정의 합성어로서 〈금강정경〉은 그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최상의 진리를 상징하는 대승불교의 완성을 보여준다. 특히 〈금강정경〉속에 들어있는

모든대상 청정하면 묘락세계 열려

화엄경의 원융원리 구체적 제시

〈대비공지금강대교왕의궤경〉에서는 대소승의 일승교의(一乘敎義)를 과감하게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불교의 근본입장을 궁극적으로 현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경의 제9 청정품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말해지지 않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교설이 나온다.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원리적으로는 사유되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이 〈금강정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설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청정품 첫머리에서 부처님이 금강장보살에게 고하시기를 '이제 청정함을 설함으로써 일체가 의혹이 없다. 하나하나의 성현위(聖賢位)는 뛰어서 마땅히 분별하여 설한 것이니라. 오온, 오대종, 육근 및 육처, 무지, 번뇌안도 자성은 모두 청정하다. 이른바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다른 것들의 지은 바도, 묘락상응(妙樂相應)이라고 설하노니, 경계등은 청정하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설교함으로써 일체성(一切性)이 청정하다고 설하신다'라고 했다.

일체법이 청정한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나 모든 대상들이 자성으로서는 청정한 것임을 말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대상이 청정하니 그들이 서로 상응하면 그것이 묘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묘락세계가 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참으로 간명한 이 한 이치를 깨닫지 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금강장보살에게 말씀하시자 금강장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어떤 꽃을 청정이라고 합니까'하고 묻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색 등의 대상을 관하거나 생각하여 능취(能取) 소취(所取)를 떠난다. 이른바 눈은 색을 취하고 귀는 소리를 취하고, 코는 향을 취하고, 몸은 촉을 취하고 의는 묘락을 취한다. 마땅히 이들 남김없는 친근, 이것이 곧 청정이라고 알아라'라고 하고, 이어서 이들을 취하는 대상이 청정함에 이른 것을 명비(明妃)라고 하여 각각 명비로써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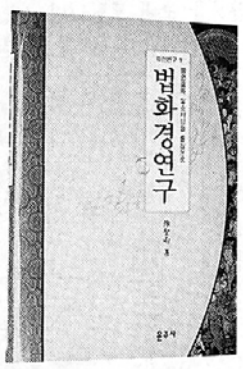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주관이나 객관이 있

법화경연구

법화경의 핵심품인
방편품의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법화경을 고찰한다!

대승불교의 완성, 법화경의 핵심사상을 규명

참예한 대소승의 대립으로
불타교법이 상실될 위기에,
이 양자를 화합융회하려는 노력들의
결과물이 법화경 방편품이다.
그리고 그 핵심사상이 바로
일승이란 대명제였다.
일승사상의 규명을 통해 우리는
'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徐聖雨 著/신국판 양장/330쪽/값 10,000원

中國淨土教理史

중국의 정토사상을 시대별·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중국정토교의 변화·발전·쇠퇴의 모습을 한눈에!!

염불·사경·불상조성 등 타력(他力)신앙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한 사람들의 발자취

정토의 교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다.
이 책은 중국 후한시대에 정토사상이
도입되면서부터 청나라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정토교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쇠퇴 등을 개관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정토수행자들의 사상과
실천수행의 모습을 광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望月信亨 著·李太元 譯/신국판 양장/630쪽/값 20,000원

절대의 행복·죽음으로 부터의 자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 누구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죽음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과연 의연할 수 있는가?
웃으며 죽음을 맞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인생은 대만족, 지금 죽어도
후회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淺倉保 著·金鍾聲 譯/46판/202쪽/값 4,2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좌골신경통 · 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주 · 야 · 七一一 · 四三七〇 · 五四二 · 七三〇六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沫 압구정역

간경화 · 완치 보장
만성 신장병 · 정신질환 · 신병 (성인) 백혈병 · AIDS 대체의학
전화:0552-82-8128, 8118/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체통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계발 및 집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안내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표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1-279-4600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소재
- 대지 760평, 건평 108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10평)
- 신축 2년 6개월 ■ 객실 10개, 보일러시설
- 해외이주로 과격적인 가격 - 1억 5천

연락처 0373)374-7417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 대 지 : 434평
- 건 평 : 법당 30평, 요사 90평 (3채)
- 법종각, 산신각 기타 시설 완비
- 비 용 : 대지 1억 5천만원
- 시 설 : 기증
  ※ 보살님도 입주가능

연락처 0395)41-2886

- 위 치 : 경남 고성군 삼신면 탄공리 163
- 대 지 : 280평
- 건 물 : 법당 50평
- 비 용 : 1억 5천만원

연락처 0556)74-4024

포교당 안내

- 위 치 : 안양시내(전철 5분거리)
- 평 수 : 3층 건물 3층, 실평수 50평
- 법당,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 보증금 : 1천 5백만원, 월 50만원
- 서실비 : 2,100만원

연락처 : 0342)42-0108
015)8447-1147

◇ 포교당 구함 ◇

- 위 치 : 서울 근교지역 (지하철 역세권지역, 기존포교당, 포교당 가능한 건물)

연락처 : 02)429-6623

기타정보내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사, 철학원이사, 풍수업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정의 스쿨 통학가능
3. 종학은 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전화(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97호)
만대교학대학원

암자 적합한 땅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지번 (1-1, 1-2, 1-3, 1-4)-감만중학교 후문쪽
- 평 수 : 280평 ▶ 가 격 : 평당 70만원

연락처 : 051)441-3377
012)520-2424



바로보인 깨달음의 정수를 바로 보이다
대원 문재현 역저
T.597-2460

사찰(절) 매매

- 고창읍
- 대지 : 500평
- 건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전액 또는 一부 인수가능

문의전화 062)513-0545~6
011-605-1569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오불시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울성(심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대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보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선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대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382-4609
자 택 02 248 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慶北 | 합장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치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병.
- 절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실 노보살님 모십니다(노부부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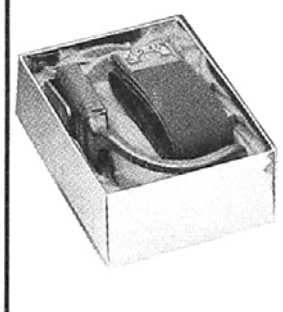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011-453-8611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얻은「不老化精」은 천태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액)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청아들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넣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아무것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한이 없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단전 자동 氣 운동 열풍!



예로부터 신선이 된다고 하는 최고의 건강법으로 알려진 단전회음 "氣" 운동열풍이 인기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단전,회음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자리에 누워 스위치만 누르면 20분간 짜릿짜릿한 미세진동파가 단전과 회음을 운동시켜 준다. 단전은 인체 에너지(氣)의 중심이며 단전운동을 통하여 20대 못지않는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대소변이 시원시원해지는 *단전, 회음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과 소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서 피르가 없어지고 얼굴색깔이 달라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韓國傳統氣健康 硏究會
Tel. 02)455-6944(代)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諧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 · 242-0255

선방 토굴 별장하실 분

- 대지 260평
- 건평 30평
- 구조 : 황토 너와집
- 신축 시설 완비
- 당지역 유망 개발지역임 (특히 주위경관이 좋음)

※ 고품격 토속건물이므로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집만 사셔도 가능함)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연락처 : 0342-702-7793,707-5564
011-356-7793

사찰 운영하실 분

- 위 치 : 충북 제천시
- 부 지 : 743평
- 법 당 : 20평(전통 목조 단청 필)
- 요 사 : 50평
- 가 액 : 1억 6천만원 시세 절반
- 특 징 : 시내 중심지에 속하면서 독립된 산속에 위치한 기도 및 포교도량. 스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헐값에 양도하고 사찰보존 차원에서 스님외 일반인 양도는 절대 사양합니다.

연락처 011)736-4447
015)124-6334(24시간 호출요)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지만 생활은 또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이지,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발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2-1522(直) (02)737-8881(代)

"부처님 말씀이 절실한 때입니다"

만약 경전의 가름침과 세속의 문건을 보시하면
해박한 지혜의 과보를 받게 되며
밝은 등을 보시하면 눈이 밝아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
- 육취윤회경 -

사회의 어둠을 밝혀줄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군부대 · 경찰 · 교도소 · 양로원 · 中高불교학생회 · 도서관 · 가까운 이웃 · · ·**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 보낼곳

▷ 국내 : 군부대(법당, 포교당, 군승, 불자장병)
: 경찰(법당, 포교당, 경승, 불자경찰, 개인)
: 교도소(재소자중 불자, 교도관)
: 복지회관(전국 시 · 도 · 군 · 읍면 소재 회관)
: 대학(불교학생회 및 도서관)
: 도서관(전국 시 · 군 · 구립 및 사립도서관 열람용)
: 개인불자(시주자가 지정하는 분:지정법보시)

▷ 국외 : 해외의 한국 사찰 · 포교당
: 각국 불교 관련 단체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 보시방법

▶ 법보시
본사 소정 구좌에 1,000원 이상 송금하시면 모아서 신문사가 군부대등 필요한 곳에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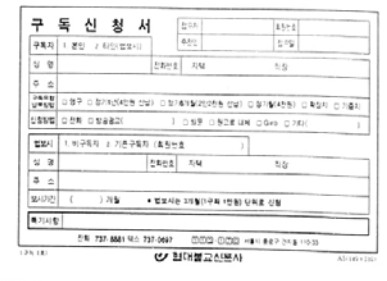
▶ 해외 법보시
지정법보시와 동일
1부 80,000원(우편료 포함)

▶ 지정법보시
특정인 또는 특정의 기관에 신문을 보시하는 경우로서 **보낼 곳의 주소 · 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의 주소 ·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1부당 40,000원(1년분)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본사 지로 이용 입금**
※ **계좌 : 국민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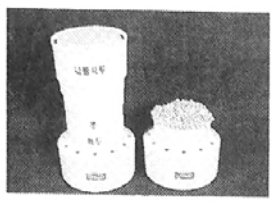
■ 정기구독자 추천
친지 · 이웃등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정성껏 신문을 보내 드립니다.
1년 정기구독자 4만원, 6개월 22,000원, 1개월 4,000원

● 법보시양식


구 독 신 청 서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02)732-1522, 737-8881 F. (02)737-0697

새상품



나물시루

무순등 채소재배 적합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콩나물 메밀 무순 등 각종 채소를 기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제품. 어린이들에게는 '신토불이' 정신을 함양하고 어른들에게는 무공해 식생활로 성인병을 예방케 한다. 하루 한두번 맨 위 물시계 그릇에 물을 채워두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준다.

맥스통상 제품, 값은 3만8천원. (02)578-5571

자상 알뜰시장

아동의류·탈수기·시계 접수

본사와 종단협소비자위, 맑고향기롭게모임이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아나바다운동)' 과정을 통해 무절제한 소비를 지양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지상알뜰시장을 연 이래 286PC, 보행기, 360ℓ 냉장고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또한 7~8세용(210~215㎜) 아이스스케이트, 성인·아동용 의류, 탈수기, 탁상시계, 손목시계, 책 등 다양한 물품이 새롭게 접수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또는 내놓을 물건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 문의·접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종단협소비자보호위
(02)3452-7485·맑고향기롭게모임
(02)741-4696

우리 가락 춤에 '모두 한마음'

청교련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 현장

"한많은 이세상 야속한 님아, 정을 주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때이른 초여름 날씨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이 등줄기를 적시는 일요일 낮. 동국대 캠퍼스를 울리는 동대부중 풍물패의 흥겨운 사물(징 꽹과리 장구 북) 장단에 중창단이 '한오백년' 노래가락을 붙이자 강당을 가득메운 1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호하기 시작했다. 양악과 국악의 만남이 익숙치 않은 탓인지 때때로 배꼽을 쥐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여학생들의 천진한 모습이 또다른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동안 동국대 중강당은 열기를 더해 갔다.

5월25일. 올해로 10회째 열린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의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는 놀이·공연문화에 대한 갈증으로 갈 곳없이 시내 곳곳을 배회하기 일쑤인 청소년들이 주연이 돼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로 꾸며졌다.



◇200여개 팀이 참여해 경연을 벌인 제10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에서는 영등포여중 류나진양이 '살풀이'로 문체부장관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강당을 쩌렁쩌렁 울린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어깨춤과 박수갈채로 한바탕 시끌벅적했던 분위기도 잠깐, 청교련 대전지부의 '선체조' 공연이 이어지자 행사장은 삽시간에 조용해지면서 불자청소년들은 성숙된 공연문화를 연출했다. 정경은(동방여고)양외 10여명의 출연진은 주말에 한번, 3시간씩 합동훈련을 한 덕분인지 누구 한사람 실수하는 사람 없이 김영동의 '귀소' 곡에 맞춰 손바닥을 비비고,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등 불교전통 체조를 차분하게 선보였다. 공부하는 틈틈이 선체조 교육용 비디오 테잎을 보며 머리를 식히기도 했다는 출연자들의 얼굴빛은 모두들 평온하다못해 혼탁한 세상속에 빛을 발하는 젊은이다은 절제미를 보여주었다.

그 여세를 몰아 영등포여중 류나진(대림포교원)양의 창작고전무용은 불자청소년들을 잔잔한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빨간색과 검정색이 극렬한 대비를 이룬 무대복과 국선도와 전통살풀이 춤을 접목시킨 류양의 창작무는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의 격을 한층 높였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혜명보육원 원생들의 '부채춤'과 자비예술단의 '한국예술무용'. 작은 체구에 앙징스런 몸짓으로 둥근 원을 만들고, 파도를 만들때면 관람객들의 박수와 함성소리로 마치 강당이 떠나갈 듯 들썩였다.

혜명보육원 장설현양은 "매일 매일의 연습으로 힘들때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꾀부렸는데 언니 오빠들이 너무 이뻐해주니깐 좋아요"라고 말한 뒤 잠시 머뭇거리더니 "높은 상 주세요"라고 소리쳐 행사장을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경연대회에서의 경쟁마저 순수하게 웃고 즐길 줄 아는 불자 남녀학생들은 어느새 친구로 또는 오빠-동생 누나-동생이 돼 도반의 인연을 맺어 합장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선체조·사물놀이·창작 고전무용등 '갈채'
방황하는 신세대에 건전 오락문화 제공

도필선 기자

건강과 식품 〈8〉

고 추

붉은색소 비타민C 많아
매운맛 감각둔화 작용
진통·찜질약으로도 활용



눈을 즐겁게 하는 빨간 열정적인 색, 매콤하고 향긋하면서도 자극적이고 우아한 향취, 혀에 바람을 불어넣게 하는 강렬한 매운 맛, 코 그리고 혀를 사로잡는 고추가 기호식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전후라고 한다. 고추의 붉은 색은 캡사틴, 캡솔루빈이라는 기름에 잘 녹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이다. 이 색소는 비타민A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고추 중에는 알파 및 베타카로틴 같이 효력이 있는 것도 제법 많은 양이 들어있다.

고추의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은 고함량의 비타민C와 더불어 위에 활성산소나 프리래디칼을 제거하는 항산화작용을 발휘한다. 비타민C가 처음으로 순수하게 분리된 식물체도 바로 헝거리산 고추인 파푸리카(피만)였다. 한편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있다. 이것은 산화성이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그대로 증발해 공중에 퍼진 그 자극으로 재채기나 눈물을 유발하고 피부를 따갑게 한다. 고추가루 근처에서 흔히 경험한다.

캡사이신은 신경을 자극해서 처음에는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지만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감각을 둔화시켜 진통을 지속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동시에 퇴화시키는 생리작용도 가지고 있는 신경독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진통작용도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탁월한 동통해소의 찜질약으로 최근 활용되고 있으며, 감각 신경퇴화작용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자료로 주목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고추을 접한 외국인이 쩔쩔매는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미각반응의 정직한 표현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몇번 섭취한 후의 길들인 미각은 캡사이신의 무감각화 효력 덕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작용 때문에 고추섭취가 계속 늘고 있는 한국사람의 감각은 둔화되고 있음을 능히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고추는 건강상 유익한 성분과 그렇지 못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고추의 섭취량이 가장 많은 한국인에 있어서 두 얼굴을 가진 고추의 과다한 섭취가 과연 우리의 건강, 정서, 행위,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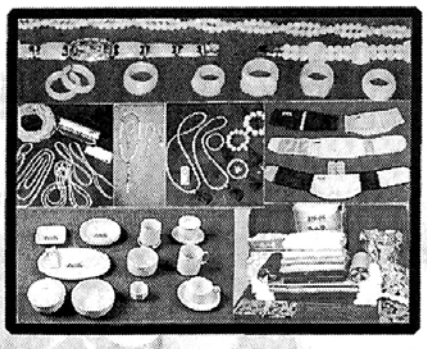
이태넝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홧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여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민을 직접에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山家 옥산가 옥의 신비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나 한의서 추무체비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렐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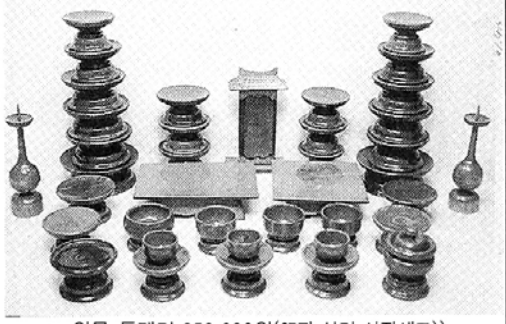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정성과 얼이 담긴

남원 木器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피-상기 사진세트))
● 100년산 물푸레나무 288,000원

고찰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통의 재목으로 품위있고 격조높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목기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6-9
전화 : (062)511-9641
대 표 임 동 주 합장

관음출판사

관음 역서시리즈 8

古典 풍수학 설심부



수년간의 연구과정에서 탄생한 풍수학의 정통.

申 坪 지음
값 18,000원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사주학 핵심비결



송칠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 929-3470

종단소식

조계종

재가 종무원 체육대회

총무원(원장 월주)은 5월 24일 은석초등학교에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재



가 종무원들간의 화합과 친목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체육대회는 천진·난만 2팀으로 나눠 축구(남), 피구(여), 줄다리기, 봉굴리기, 장애물경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총무원은 매년 재가종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태고종

순국선열 천도 대법회

서울 서대문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백련사(주지 운경)가 주관한 '나라의 안녕과 순국선열 천도 영산대법회'가 4일 독립공원에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괘불이운과 관욕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인곡스님의 법어에 이어 순국선열 및 원혼천도 영산대재와 사회안녕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관악산 성주암 성지순례

관악산 성주암(주지 종연)은 5월24일 금산 보리암에서 무박 2일간의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천태종

구인사 조사전 상량식

총무원(원장 운덕)은 5월26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조사전 상량식을 거행했다.

92년 공사에 착공한 조사전은 연건평 1백70여평의 3층 규모로, 적송(赤松)과 특수자기와(황자)를 들여 전통 목조건물로 지어진다. 조사전 안에는 중국 천태종을 개창한 지자대사, 한국 천태종 개창조인 대각국사, 중창조인 상월조사의 조사상이 봉안된다.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

부산 삼광사는 1일 지관전에서 주지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새 주지에 취임한 덕수스님(총무원 규정부장)은 "지금까지 불철주야 불법포교에 애쓰신 춘광스님의 공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 및 지역발전을 위해 거듭나는 삼광사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삼광사 주지를 맡아온 춘광스님은 총무원 교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취임식

통리원은 5월16일 통리원에서 제25대 성초 통리원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취임사에서 "종단의 시급한 현안은 화합승단의 종풍을 새롭게 일신하는 것"이라며 "무작정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옳은 일을 진지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종단의 발전을 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각해 총인을 비롯해 태응(불교TV 사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법공(총지종 통리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보인(원융종 총무원장) 월서(종단협의회 상임부의장) 서석재(국회정각회장) 강성재(신한국) 구천서(자민련)의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한·중·일 천태종 합동법회

구인사 천태대사 열반 1400년 추모대재

남북통일비 제막 "인류평화 기원"

2만여 신도 참가…민속 공연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9일부터 이틀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천태지자대사 열반 1천4백주년 한·중·일 삼국합동 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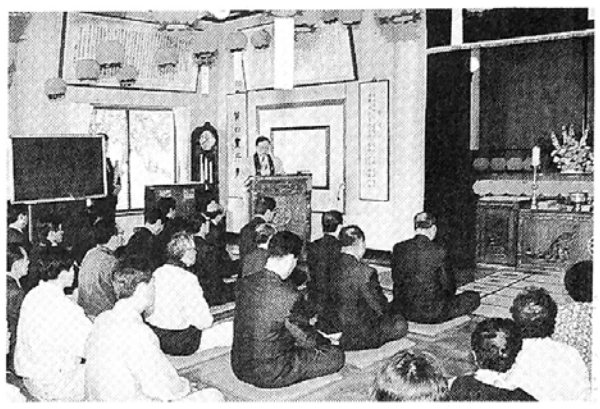
천태지자대사 유적현장사업과 세계인류평화 및 남북통일 기원, 3국 불교의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대법회는 첫날 전야제와 탑제막식에 이어 둘째날 법요식과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삼국 고승대덕스님 상견례로 시작되는 대법회는 9일 오후 7시30분부터 설법보전에서 3국 민속공연을 중심으로 한 전야문화예술제가 펼쳐지며, 10일 오전 9시30분에는 사전왕문 앞에서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기원비 제막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천태종 종정 우에야마 엔료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본산 히예산 연력사 주지 고바야시 류조스님 및 신도 등 1백60여명이, 중국측에서는 불교협회 부회장 명양(明暘)법사, 천태산 국청사 방장 가명(可明)법사 등 34명이 참석하는 등 삼국 불교도 2만여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열리는 한·중·일 삼국 합동법회는 95년 한국 천태종이 중국 천태종의 총본산인 국청사에서 한·중 천태종조사기념당 낙성을 시작으로, 96년에는 중국 국청사와 일본이 천태지자대사열반 3국 합동법요식을 개최하면서 정례화된데 따른 것이다.

운덕 총무원장스님은 "이번 대법회를 통해 삼국 천태종의 유대와 우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그 기반이 다져져 아시아 및 세계평화와 나아가 세계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는 바란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울릉도 금강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울릉도=한명우 기자〉

진각종 창종 50돌

울릉도 금강원서 기념식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5월28일 울릉도 금강원(총지삼인당)에서 창교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각 심인당 대표 1백20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성초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조인 회당 대종사의 창종정신을 되살려 모두가 종단과 역사의 주인이 되는 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 회의

11~13일 월정사 세미나·월드컵 홍보논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회장 법흥스님)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월정사에서 제1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사리신앙과 조사사상'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1일 법요식을 시작으로 12일 킴스호텔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충식교수(동국대) 요시다고데스교수(일본 대정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토론회를 갖는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2002년 월드컵개최와 관련, 양국의 불교홍보를 위한 선언문도 채택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대회에서 양국 회원들은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 보궁도 참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등을 비롯 다나카 일본협회 회장등 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5·18 영령 왕생극락 기원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스님)는 5월 18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것을 기념해 이날 5.18묘지에서 월인(법륜사 주지) 도산(대각사주지) 시각(만덕사주지) 선암(화림정사주지) 혜령(율곡사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영령추모법회'를 개최했다. 타종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추도문 낭독에 이어 영령들을 위로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영산재의식으로 봉행됐다. 〈사진=주용직 광주지사장〉

한국 법화종 통합 추진

여주에 총본산 건립계획

지난 15년간 침체를 거듭했던 한국불교법화종유지재단이 법주추대위원회를 구성 최근 현 한국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인 혜흡스님을 법주(종정)에 추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유지재단측은 "그동안 양분돼 있던 한국불교법화종의 통합과 아울러 종단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김광태 총무원장의 한국법화종과 화합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태 총무원장측이 통합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유지재단측은 오는 6월중으로 총무원장 및 각부 부장 인선을 마친 후 경기 여주에 총본산건립을 비롯해 승려교육시설 및 납골당 건립, 교학지 및 법화경 관련서적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승가원 종합복지타운 추진

소쩍새마을이전·특수학교·병원 갖춰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이 10년계획으로 강원도 원주지역(부지 물색중)에 소쩍새마을 이전및 종합복지타운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소쩍새마을 종합복지타운은 노인, 스님양로원 재활병원 특수학교 등 3천여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승가원은 현재 소쩍새마을 이전및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땅 한평 사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4일부터 22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1층 전시실에서 서양화가 '하반영화백 초대전'을 연다는 계획이다.

심장병환자돕기 모금행사

감로심장회 진주지역서

감로심장회(이사장 보운스님)는 5월 14일 의곡사 호국사소속 고교 불교학생회 회원들과 진주시인근 12개 사찰에서 심장병환자돕기 모금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성금모금에는 4백여만원이 접수됐다. 감로심장회와 불교학생회회원들은 이 성금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심장병환자들의 수술비로 사용키로 했다.

"바미얀 대불 살리자" 국제여론

인도·유네스코 한국위 등 보호운동 나서

회교주의자들이 파괴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세계 최대 불상 '바미얀 대불'(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본지 127호 18면 참조)을 보호하자는 국제 여론이 형성될 전망이다.

회교 원리주의 탈레반군이 "바미얀 대불을 파괴하겠다"는 공언에 대해 인도 정부가 최근 "아프카니스탄 회교 원리주의자들이 바미얀 대불 파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참작하길 바란다"고 두차례에 걸쳐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5월8일 인도 외무성 차관 라구나트(Ragunath)가 한국 일본 스리랑카 태국 등 8개국 대사를 초청해 '유적 파괴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한국불교계도 바미얀 대불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성룡씨(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문화담당)는 "'아시아·환태평양지역 협의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욱〉

美 LA '한미불교방송' 설립 순조

후원회 구성…포교영상제작 모금

불교TV미주지사(사장 도안스님, 관음사주지)와 미주 현지법인 한미불교봉사회(대표이사 도안스님)가 부설 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불교문화방송(KBC-TV)'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이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 LA 관음사의 회관에 들어설 한미불교문화방송은 개국설립 기본자금 50만불(한화 약4억 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기금 조성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홍보사업용 불교비디오 제작등을 구상하고 있다.

방송기금 조성후원회는 '불자모연주'로 이익배당 지분을 복지기금으로 전환한 후 그 활용은 불자주식 혜택분으로 주주에게 지분이 배당될 예정이다.

'불교방송 후원회' 창립

기금 2억2천만원 전달

1991년 독자적으로 결성된 불교방송프로그램후원회가 '불교방송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18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불교방송후원회는 이로써 불교방송 재단사무국 산하 단체로 소속돼 불교방송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스님을 대표로 하는 회장단을 구성했다. 또한 불교방송후원회는 지난 7년간 적립했던 불교방송 프로그램후원기금 2억2천여만원을 불교방송에 기증했다.

마음 철저하게 믿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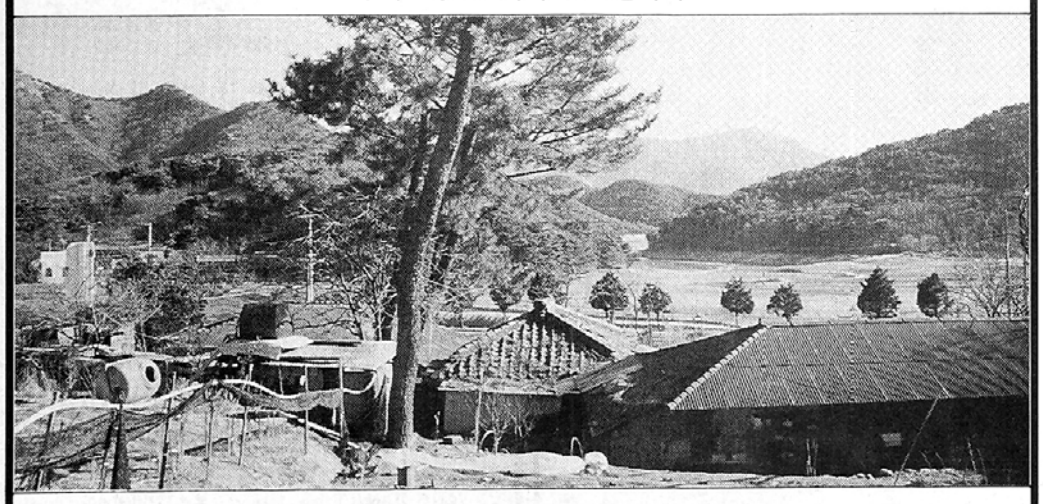
성품을 보지못해서 도저히 생각나기 이전에 부합되기 어려우니 나의 본성을 주인공이라고 세워놓고 멀자. 그리고는 첫째로 멀어야 한다. 둘째로는 모든것을 거기다 인입하여 놓아 버려야 한다. 셋째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인줄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사찰·수련원·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 부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륜수원지 인접

동래관광호텔에서 단 15분거리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면 적 : 1,352평
● 건 물 : 4동 (법당, 요사채, 식당으로 사용)

불사에 원력을 세우신 스님, 불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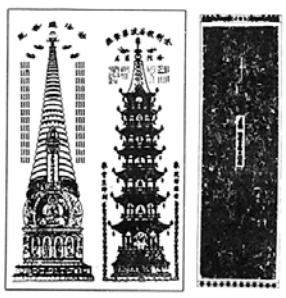
▶ 상담문의 : (02)732-1522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cm×(세로) 160cm

스님들께는 스님용책자내용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현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리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포교자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영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광고 공방… 중재 필요

백양사 대립 '일파만파' 장성군

백양사(주지 지선)가 정부시책으로 전남도의 조건부허가까지 받아 추진해온 납골당을 장성군(군수 김흥식)이 험오시설로 비하하며 예산결재를 거부해 불거진 백양사-장성군의 대립양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본지 124 125 128호 참조〉

백양사와 장성군이 일간지 광고 공방전까지 치달으며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의장 월주) 실천불교승가회가 군측의 사과를 촉구했고, 장성군의회(의장 조봉래)가 5월29일 '백양사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장성청년회의소(JC) 장용균회장은 "군행정에 문제가 있는만큼 군에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지 않을 경우 JC 전남지역청년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정부에 사태수습 요구
본사주지회의 군측사과 촉구
군의회 특위구성 진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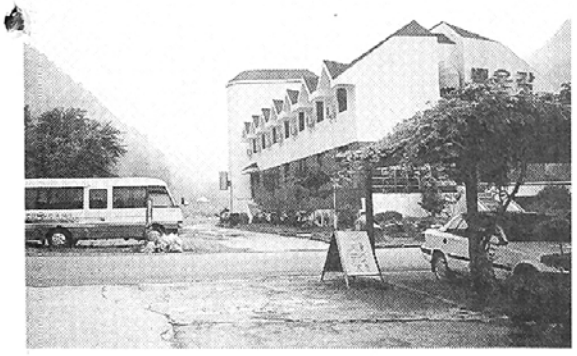
각 단체별로 잇단 성명을 내고있는 교계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군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진상파악을 토대로 정부에 사태수습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백양사와 장성군은 5월26일 무등일보 2~3면 양면에 각각 광고를 게재했다.

백양사는 광고에서 "군수가 개인소유인 백운각모텔이 점유한 백양사땅 30여평을 팔것과 대형호텔을 신축하기위해 대형관정을 파겠다는 것, 모텔앞의 공원관리소 매표소가 영업지장에 따른 이전요청을 거절한데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광고문에서 백양사는 요구를 거절하자, 군수가 되고난후 지금까지 2년간 백양사땅 4곳에 무단으로 관정을 파고 백양사에서 하는 일마다 트집과 문제를 일삼는 '학대행정'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은 같은신문 2면광고에 리·동장연합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협 등 40여 단체이름으로 △납골당 설치가 사찰 자체적인 수익사업이며 청정문향의 고장에 화장터까지 설치하려한다 △민선군수를 모독하는 경솔한 행위 중지 △문제를 야기한 지선스님 승적박탈 등의 주장을 발표했다.

〈김원우 기자〉



◇백양사 30여평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장성군수 소유의 백운각 모텔 전경.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이 봉축상을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마음선원 '최우수상'
봉축위, 우수단체시상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가 5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 봉축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이 연등축제의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받았다.

한마음선원은 연등법회 제등행진 회향식 전과정에서 준비상태, 대중친화력, 질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연등상은 청룡사, 원력상은 도선사, 봉은사, 칠보사 유치원, 능인선원, 보문종 보문사가 받았으며 정진상에는 조계사 어린이회, 천축사, 경향신문불자회, 네팔불자모임, 대불련, 연합합창단이, 특별상은 월간불광, 은석초등학교 연화어린이회, 연화플라워가 각각 수상했다.

대행스님 LA·시카고 대법회

13일-LA, 21일-시카고



미국내 한국불교의 본산인 LA와 시카고에서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본지 명예회장·사진) 초청 대법회가 2천여 교민과 현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열린다.

대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주불자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깨닫게해 "삶은 고(苦)가 아님"을 설파,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LA법회와 시카고법회는 대행스님의 법문을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돼 국적을 초월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큰 몫을 할것으로 전망된다. 2부 불교음악제에는 한마음합창단 40여명의 찬불가공연이 펼쳐진다. LA법회는 한마음선원 LA지원(지원장 혜중)주최 남가주 한국불교사원연합회 협찬으로 13일 위셔 이벨극장에서 봉행되고, 이어 시카고 법회는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지원장 혜지) 21일 노쓰 쇼어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대행스님은 9일 출국한다.

종단협 인사 20여명
16일 중국 성지순례

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중국불교협회(회장 조박초)의 초청으로 중국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이번 순례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등 12개 종단 2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뉴스 & 뉴스

월하스님 종정사임 고수

월하스님 종정사퇴와 관련 5월23일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통도사 정변전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월주 총무원장, 지하 중앙승가대총장을 비롯 설조 불국사주지 등 17개 교구본사 30여명이 참석, 종정직 사퇴의사를 반려해 줄 것을 간청했다.

종정스님 친견이후 설조스님(교구본사 주지회의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종단원들이 종단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사퇴의사를 반려해 줄것을 청하자 월하스님은 "사퇴의사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종회 9일부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9일부터 13일까지(5일간) 제1백26회 임시종회를 연다.

이번 종회는 4월 15일 성원미달로 자동폐회된 1백25회 종회에서 이월된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불교방송 사태 진상조사 특위구성 등 20여개 안건이 재상정됐다.

불방횡령 관련자 고발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5월27일 대검찰청 특수부에 종하스님(불교방송 이사) 조해형씨(전 불교방송 사장) 송병욱씨(전 불교방송 상무) 김동신씨(불교방송 경리부장)를 업무상 횡령·무고죄 등으로 고소·고발 조치했다

전직대통령 서명운동 '물의'

5월초 중앙승가대 학생회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 벌인 서명운동이 말썽을 빚자 이번 사건을 주도한 학생회장 무량스님이 사퇴하고 총장 지하스님이 해명에 나섰다.

지하스님은 "이번 사건이 학생회장 개인의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배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새 총학생회장에 문수스님(불교학 3년)이 선출됐다.

경주지역 교수 236명

"천년 古都 지키자"

보존특별법제정등 선언문 채택

동국대 경주캠퍼스, 위덕대, 경주대 등 3개대학 2백36명의 교수들이 경주보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교수들은 5월 20일 정오 경주 계림파크에서 '고도경주를 걱정하는 경주지역 교수모임'을 결성한 뒤 '역사도시 경주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제하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황성공원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 공사 중단 △고도보존을 위한 경주지원특별법 제정 △경주시 장기종합계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경주청년회의소는 5월 23일 경주JC회관에서 국립공원 경주남산(사적 제311호)보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남산의 유료입장과 남산에 건립되어 있는 경주교도소, 통일전의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경마장 백지화 촉구
고고학회등 15개 단체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를 비롯 15개 단체는 5월30일 5천여명이 서명한 '경주 경마장 건설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경마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황성공원에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경주는 폐허에 처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직영사찰 예산유용
법규위에 심판청구
'…종회의원들의 모임'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공동대표 정우 종광 현소 성문 지현)은 5월 22일 법규위원회(위원장 벽파스님)에 직영사찰 예산의 유용과 횡령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모임은 5월 29일 △선본사의 지출내역 분석자료(96~97년) △깨달음의 사회화 기금 수입장부(익명의 불자부분) 등을 공개하면서 "현 집행부는 직영사찰 예산을 부당지출(95년 7억여, 96년 9억여원)해 종헌종법을 위배하며 청정교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심판 청구사유를 밝혔다.

고려초의 쌍탑(보물 12·13호)이 자리잡고 있는 춘궁리사지(경기도 하남시)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왕복 4차선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춘궁리 일대 19.3㎞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결정, 다음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일대는 백제초기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91년 사적 352호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만약 고속도로가 뚫리면 문화재보호구역 1만5천여㎡이 도로에 편입되고 도로와 탑과의 거리가 고작 20여m밖에 되지 않아 차량진동 등으로 인한 붕괴가 우려된다.

구리~판교 고속도확장
춘궁리사지 훼손 위기

하남시측은 3월 문화체육부에 '공동저지'를 요청하고,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절대불가'의 뜻을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측은 4월28일 "도로확장공사에 앞서 문화재 발굴작업을 먼저 벌이겠다"고 밝혔다.

선원사 유물전시관 4일 개관

팔만대장경의 판각성지 강화도 선원사(주지 성원)가 4일 유물전시관을 개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선원사지 발굴에 이어 유물전시관을 건립함으로써 선원사는 고려 2대 선찰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총 44평 규모의 전시관에는 제1대주지 진명국사진영을 비롯 대장경판, 보상화문전, 지정원년명선원사옥등, 청자류 등 1백39점의 유물과 2백점의 사진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발굴된 유물들은 동국대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거쳐 차후에 전시된다.

성원스님은 "선원사를 복원하고자 유물전시관을 우선 개관하게 됐다"며 "불교문화가 살아숨쉬는 산 역사의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탁소리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부처님오신날 단독개최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조계종 단독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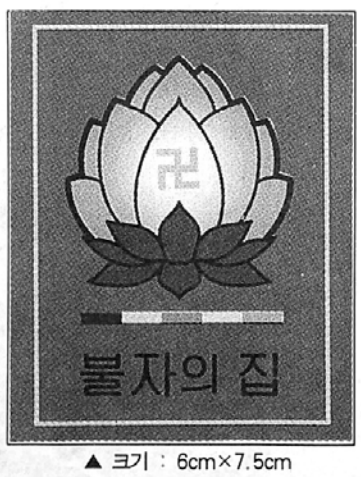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5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시상식에 참석, "종단협의회 주최로 봉축행사를 실시한 지난해보다 조계종이 주도한 금년 봉축행사가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조계종이 단독 개최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년 봉축행사준비 과정에서 종단협의회차원의 논의가 한차례도 없어 여타종단의 심기가 불편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계종의 '봉축행사 단독선언'으로 종단간의 불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종단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평소 조계종 독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종단들이 봉축행사로까지 불화를 겪는다면 이는 불교위상추락과 직결된다. 특히 봉축행사 단독개최의 파장은 향후 불교연합행사가 범종단차원이 아닌 조계종 단일행사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한국불교'가 '조계종불교'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예산확보나 행사추진과정에서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불자화합의 장인 동시에 국민적 축제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고 '큰집'임을 자부한다면 안목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이 또 단독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화합을 강조하는 부처님가르침에 어긋난 발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와관련 종단협의회소속 종단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소리도 나와 벌써부터 혼미를 겪고 있는 분위기다. 불자는 물론 국민들도 참여하는 화합된 봉축행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크기 : 6cm×7.5cm



크기 : 3.5cm×10.5cm▶

▣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7 팩스:(02)738-8682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국반판(10.5cm×14.8cm) 356p·고급비닐커버 정가 2,500원
▲ 국반판(10.5cm×14.8cm) 256p·고급비닐커버 정가 2,000원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

우리말 지장경

혜련 일화 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지장경을
우리말로 쉽게
해설한 필독서!!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금장 비닐커버
◈법보시가격/4,500원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영험록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723-4307 팩스:(02)738-8682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5월 대흥사·일지암

禪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5월25일 새벽 5시.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고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불교문화테마여행단 1300여명이 네번째 답사지인 해남 두륜산 대흥사(대둔사란 원래 이름을 찾았으니 아직도 대흥사라 많이 불리워짐) 입구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두륜산 기슭에서 뿜어 나오는 맑은 공기. 그 공기에 취한 듯 호오만 얼굴을 내밀며 길을 밝혀주는 달과 이름모를 새들의 지저귐은 선지식의 지상한 인도인 듯 파안으로 들기를 권유한다. 대찰의 호방함속에 조화로운 불교의 정서를 깊숙히 간직하고 있는 대흥사 일지암을 향해가는 마음들은 그저 여여할 뿐이었다.



◇초의스님이 40여년 동안 주석하며 자연을 벗삼아 선다일미 사상을 꽃피운 초정(艸亭) 일지암. 암자주변의 차나무가 초의스님의 차정신을 일깨운다.

'禪茶一如' 초의스님 자취 물씬

대흥사 13대종사 13대강사 부도 모셔
산등성 야생차향에 방문객 시름덜고…

대흥사로 들어가는 10리 숲길에 아무러진 떡갈나무, 벚나무, 단풍나무는 한아리로 장관이었다. 두륜산에서 내려오는 여러계곡이 대흥사에서 만나 제법 큰 내를 이루는 이곳은 '너럭내'라고 불리운다. 이 숲이 대흥사 경내의 무염지(無染地)까지 뻗어 있다. 대흥사 입구 파안교를 건너 '두륜산 대흥사'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천왕문을 지나면 길 오른쪽으로 고승의 사리탑과 비석이 즐비하게 늘어선 부도밭을 만난다. 이곳에는 서산대사(1519~1605)이래 초의스님까지 13명의 대종사와 13명의 대강사 납골이 모셔져 있다.

1605년 서산대사가 묘향산 원적암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제자 사명당과 처영스님에게 당신의 의발(衣鉢)을 두륜산에 둘 것을 유언했다. 현재 서산대사의 금란가사와 발우가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관에 모셔져 있다.

대흥사에서 두륜봉 쪽으로 걸어서 족히 40분은 걸리는 산중턱에 자리한 일지암(一指庵). 가파른 산길을 쉬지않고 올라온 답사객들은 야생차밭에 아직 남아 있는 차잎을 조심스레 따만지며 향긋한 한잔의 차를 상상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일지암 암주 여연스님의 지도로 잠시 참선에 들었다.

"……!"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 물을 흐르는 물소리. 그 옛날 초의스님이 일지암을 거닐던 그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본다.



◀불교문화 테마여행단이 새로 지은 법당에서 여연스님의 차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비위틈새를 가르고 흘러나오는 물을 받는 나무대롱이 달린 물확. 초의스님은 이 샘물로 차를 달여 마셨다.



바위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40여분 지나면 보물 제48호로 지정된 백련암(白蓮庵)이 있는 북미륵암에 도착한다. 북미륵암 용화전 앞으로 멀리 완도 앞바다가 펼쳐진다. 산 정상에서 만나는 기없는 푸르름의 바다는 끼달음을 향한 예안을 가질 것을 넌지시 독촉한다.

내려오는 길에 그 유명한 유선여관의 진돗개 노당이를 만났다. 대둔산 일대를 거침없이 뛰어다니며 등산객들의 길을 안내한다는 노당이는 건네주는 음식을 맛있게 받아먹으며 강행군으로 지친 참가자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풀어주었다.

글=이은지 사진=고영배 기자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대흥사 입구에 있는 고승들의 부도와 탑비들

귀한 시간이다.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크나큰 자연의 진리와 불법이 원융되어 함께 숨쉬는 곳이 바로 이곳 일지암입니다. 모든 삼라만상과의 화해, 그것이 바로 초의스님의 삶이었지요. 40세에 이곳에 오셔서 40여년을 두문불출하며 지관(止觀)에 전력하신 스님의 삶은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포용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초의스님은 자연에 묻혀서 꽃과 차나무, 배나무 등을 심고 선을 닦고 시를 읊고 다향에 취했다. 스러져가는 한국차문화를 새롭게 중흥시킨 한국차의 요람 일지암은 지난 79년 한국차인회에 의해 복원됐다. '一指庵' 현판은 강암선생이 썼다.

현재는 여연스님이 일지암 옆에 법당과 요사채를 지어 놓았다.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기 위해 대흥사와 여연스님은 추모재와 특별기획전 등 많은 문화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띠 있는 명필을 불러다가 촛불로 삼고, 흐르는 구름을 불러다가 병풍을 삼으며, 대숲 스치는 소리 소나무 소리 바람부는 소리 친구로 삼아서 물을 끓여 차를 마셨던 초의스님은 학문으로써 선교를 연구하고 유학과 도교에 까지 지식을 넓혔다. 또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같은 당대의 대학자들과 교류하고, 끊어져 가던 우리의 차 문화를 일으켜 〈동다송〉과 같은 명저를 남겼다. 이런 교류 때문인지 대흥사에는 추사 글씨의 무량수각 현판, 원교 이광사의 대웅보전 현판, 정조대왕의 어필사액 표충사 현판 등 명필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추사 김정희가 초의스님이 보내준 차를 받고 그 례책으로 보낸 희대의 명필 '명선(茗禪, 간송미술관 소장)' 차를 마시며 참선에 든다'의 의미를 잠시나마 느끼며 발걸음을 북미륵암으로 옮겼다.

전문가 안내

여연스님 (일지암 암주)



초의선사(1786~1866)가 근 40여 평생을 독처지관(獨處止觀)하며 살았던 일지암.

남종화(南宗畵)의 대산인(大山人) 소치(小痴) 허유이 그의 스승으로 모셨던 선사의 모습을 〈몽연록(夢緣錄)〉에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지암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스님이 머무는 곳은 두륜산 꼭대기 아래이다. 소나무 숲이 깊고 대나무 무성한 곳에 띨 칸의 초실을 얽었다. 늙어선 버들이 처마에 닿아 있고 풀꽃이 섬돌에 가득 차서 그늘이 뒤엉켜 있었다. 뜨락 가운데는 상하의 못을 파고 처마 아래에는 크고 작은 물동을 놓아 두었는데 대홈을 연결해서 멀리서 구름비친 샘물을 끌어온다…."

〈몽연록〉의 일부를 살펴 보듯이 일지암은 산꼭대기 아래 초실을 얽은 아주 작은 암자이다. 대둔사의 오랜 세월 빛나는 선의 광맥에서 가장 찬연하게 꽃 피운 13대(代) 종사의 기개를 환발하게 펼쳐 냈던 곳이다. 40세에 일지암을 조성하였는데 백파(白坡)선사와 추사 김정희가 발인 선문논쟁을 벌였던 저 유명한 〈선문수경(禪門手鏡)〉에 대한 선사의 사상적 논지를 밝힌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와 〈초의선과(艸衣禪課)〉를 이곳에서 저술하였던 것이다.

일지암 초의선사 40년 수행처
'동다송' '다신전' 등 명저 저술
우리차 우수성 일깨운 '茶고향'

초의선사는 〈선문사변만어〉를 통해 수행상의 문제인 참禪 선지를 개념화 된 입제삼구(臨濟三句)에 고착시켜 선의 우열을 가늠하고, 선을 체계화, 이론화하고자 한 백파선사의 선론(禪論)을 비판했다.

초의선사는 또한 종래의 형이상학적 심법문(心地法門)의 도리에서 나아가 즉사즉리(卽事卽理)의 선수행을 제창, 일상생활의 현실토대위에서 선리(禪理)를 파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곳 일지암에서 저술한 작업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있다면 〈동다송(東茶頌)〉과〈다신전(茶神傳)〉이 아닐까 한다. 조선후기 사회 모든 부분에서 사대사상이 강한 시기였을 때인데도 초의선사는 중국차에 대한 예호와 흠모에 가득차 있는 풍토를 타파하고 동다(東茶) 즉 우리차에 대한 우수성을 말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한 것을 이 저술에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스님은 차를 만들어 추사나 다산으로 부터 중국차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검증을 받기도 했다. 스님의 차례(茶禮)와 다도(茶道)는 단순한 차 한잔의 의미가 아닌 선다일미(禪茶一味), 다선일체(茶禪一體)를 통해 체득한 진리, 그 자체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체(體)와 용(用), 선(禪)과 교(敎), 차(茶)와 선(禪), 나아가 부처와 중생의 모두를 균등한 한 맛으로 융섭하여 우주적 삶 전체로 귀일시켰던 것이다.

시, 서, 화, 차, 선이 하나의 거대한 화엄의 바다로 나투었고 우주적 본성이 인간 삶의 뜨락에 일체화 되어 그야말로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옛 향화(香火)가 피피은 곳이 일지암 작은 초당이다.

균사체 보강으로
영비천®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꼭! 영비천S로 주세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균사체(菌絲體)함유! 영비천에스

영지버섯 드링크의 역사를 만들어 온
영비천이 또 한 번 앞서갑니다.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영지균주 -1Y009
로부터 배양된 균사체가 함유되어
더욱 좋아진 영비천에스-
이젠 꼭 영비천에스를 골라 드십시오.

약국에서 판매합니다.

일양약품
건강사업부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



서울대 약대 교수
약학박사 김병각



■ 영지균사체(菌絲體)란?

일양약품(주) 연구진이 특수 영지균주 1Y009 를 개발한 것은 균학분야의 획기적인 진보로 평가됩니다. 이 특수한 영지균주 1Y009에서 배양한 균사체는 영지버섯의 뿌리에 해당하는 균사의 집합체로서 버섯을 성장시키는 유효성분과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생명에너지입니다.